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 창조도시’ 3단계 7개년(2014~2020)

## 문화공동체사업 발전방안 연구

2013. 12



■ 연구책임 || 고 성 영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장)

■ 공동연구 || 김 중 길 (경기문화재단 기획팀 책임연구원)

류 태 힌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연구원)

박 은 진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대리)

박 진 영 (공공미술가)

오 히 영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대리)

유 상 진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과장)

이 상 훈 (성남문화재단 문화사업부장)

# 서 문

최근 중앙정부를 비롯한 각 지역에서는 문화를 통한 공동체활동의 활성화, 그리고 이를 통한 공동체문화의 회복과 발전을 모색하는 많은 논의들과 실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도 2006년부터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경기문화재단 ‘지역협력형사업’으로 추진되는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을 신설, 보다 넓고 다양한 영역의 활동들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재단을 비롯한 중앙정부 및 타 지역의 문화공동체 정책과 사업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문제는, 많은 노력과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주민 문화공동체 활동의 자생성과 지속성이 당초 기대보다는 미약하다는 점입니다. 장기적 전망과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성과와 추진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검토, 분석하여 앞으로의 발전방향과 구체적 실행방안들을 마련하는 일은 서둘러야 할 당면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본 연구는 지난 7년간 성남문화재단이 추진해 온, 문화공동체 육성 정책과 사업을 정리해보고,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의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을 조정, 보완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각 사업의 고유한 특성과 목표들이 보다 명확해지고, 또한 관련 사업들과의 유기적 연계성이 강화되어, 향후 사업의 성장, 발전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연구는 외부 전문가, 재단 실무 담당자, 그리고 그동안 재단 사업에 참여한 경험 이 풍부한 작가가 참여하는 연구진을 구성, 추진하였습니다. 짧은 연구기간에도 불구하고 충실히 연구를 수행해 준 연구진의 노력과 열정에 심심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2013년 12월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신 선 희



# < 목 차 >

I. 연구 개요 .....	1
1. 연구 배경 .....	1
2. 연구 목적 및 기대 효과 .....	3
3. 연구 방법 .....	4
II. 사업별 추진 과정 및 평가 .....	7
1.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 .....	7
1) 사업 개요 .....	7
2) 추진 과정 .....	8
3) 평가 .....	12
2.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	19
1) 사업 개요 .....	19
2) 추진 과정 .....	20
3) 평가 .....	30
III. 국내외 사례 분석 .....	37
1.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 관련 사례 .....	37
1) 국내 마을만들기사업의 현재 .....	37
2) 마을만들기를 둘러싼 여건변화 .....	43
3) 중앙정부 마을만들기 정책의 공통이슈 .....	44
4) 우려와 쟁점 사항 .....	46
5) 소결 : 향후 지역의 대응과제 .....	50
6) 성남지역 마을만들기 추진현황 .....	55
2.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관련 사례 .....	58
1) 국내 사례 .....	58
2) 해외 사례 .....	66
3) 커뮤니티 아트 진흥의 필요성 .....	71
IV. 사업별 발전방안 .....	73
1.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 .....	73
1) 마을만들기 관련 정책 환경 .....	73

2) 향후 성남시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성남문화재단의 역할 .....	74
3) 마을만들기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성남문화재단의 추진과제 .....	78
4) 목표 및 추진과제 .....	82
5) 실행방안 .....	85
6) 연도별 추진계획 .....	90
7)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과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과의 구분 .....	90
2.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	91
1) 커뮤니티 아트의 개념과 배경, 필요성 .....	91
2)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의 추진 방향 .....	94
3)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추진 목표 .....	95
4) 추진과제 .....	96
5) 실행방안 .....	98
6) 연도별 추진계획 .....	101

## <표 차례>

<표 1> 성남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창조도시 실현’을 위한 단계별 발전 계획 .....	1
<표 1>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 1단계 3개년 사업 개요 .....	8
<표 2>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 1단계 3개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	8
<표 3>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 2단계 5개년 사업 개요 .....	10
<표 4>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 2단계 5개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	10
<표 5>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 공간조성 현황(2006 ~ 2013) .....	11
<표 6>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2011년 사업별 지원액 .....	21
<표 7>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2011년 지원영역 및 규모 .....	21
<표 8>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2011년 신청 및 지원건수 .....	21
<표 9>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2011년 일반지원사업 선정 단체 .....	21
<표 10>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2011년 기획지원사업 선정단체 .....	22
<표 11>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2011년 모니터링 사업건수 .....	23
<표 12>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2012년 사업별 지원액 .....	23
<표 13>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2012년 지원영역 및 규모 .....	24
<표 14>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2012년 신청 및 지원건수 .....	24
<표 15>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2012년 일반지원사업 선정 단체 .....	24
<표 16>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2012년 기획지원사업 주민참여지원사업 선정단체 .....	25
<표 17>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2012년 기획지원사업 상생협력지원사업 선정단체 .....	25
<표 18>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2012년 모니터링 사업건수 .....	26
<표 19>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2013년 사업별 지원액 .....	27
<표 20>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2013년 지원영역 및 규모 .....	27
<표 21>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2013년 신청 및 지원건수 .....	27
<표 22>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2013년 일반지원사업 선정 단체 .....	28
<표 23>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2013년 기획지원사업 상생협력지원사업 선정단체 .....	28
<표 24>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2013년 기획지원사업 생활예술창작지원사업 선정단체 .....	29
<표 25>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2013년 기획지원/문화기획인력양성지원사업 선정단체 .....	29
<표 26>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주요성과 정리(2011 ~ 2013) .....	33
<표 27>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 .....	33
<표 28>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단계별 추진전략(안) 도식 .....	39
<표 29>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단계별 추진전략 관련 내용 .....	40
<표 30> 성미산마을공동체 발전 초기 과정(1994 ~ 2001) .....	41
<표 31> 성미산마을공동체 발전 확장 과정(2001 ~ 2007) .....	42
<표 32> 성미산마을공동체 동아리활동 발전 과정(2007 ~ 현재) .....	42
<표 33> 성미산마을공동체 문화예술활동의 확장 과정(2009 ~ 현재) .....	42
<표 34> 중앙정부 마을만들기 관련 법률(2013.9 현재) .....	44
<표 35> 광역지자체 마을만들기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	50
<표 36> 수원시 마을만들기 관련 중앙부처 지원사업 유형별 조사 .....	51
<표 37> 수원시 수원 르네상스사업과의 정부지원사업의 연계계획 .....	52
<표 38>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유형 .....	55

<표 39> 우리나라 공공미술의 발전과정 .....	58
<표 40> 새 장르 공공미술 평가를 위한 세 가지 원칙 .....	61
<표 41> 공공미술 참여방식과 관객의 유형 .....	62
<표 42> 경기도 마을만들기 추진방향 .....	74
<표 43> 성남시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성남문화재단의 역할 정리 .....	78
<표 44> 마을만들기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성남문화재단의 추진과제 .....	81
<표 45>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 3단계 7개년 추진 과제 .....	84
<표 46>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 3단계 7개년 사업지원 방식 및 내용 .....	85
<표 47> 예비사업 지원 내용 .....	86
<표 48> 주민공동체 대상 컨설팅 지원 내용 .....	87
<표 49> 재단 및 연계 기관/단체 대상 컨설팅 지원 내용 .....	87
<표 50>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 3단계 7개년 추진 계획 .....	90
<표 51>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과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과의 구분 .....	90
<표 52>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추진방향, 목표 및 과제 .....	98
<표 53> 일반지원사업과 기획지원사업의 지원방식 구분 .....	98
<표 54>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3단계 7개년 연도별 추진 계획 .....	101

## <그림 차례>

<그림 1>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창조도시 5대 정책사업 개념도 .....	1
<그림 2>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 프로그램 실행 .....	13
<그림 3>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 문제점 .....	15
<그림 4> 진안군 마을개발사업 “5단계 접근론” 도식 .....	38
<그림 5>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추진 표준절차 .....	40
<그림 6> 마을공동체 사업 거버넌스와 중간지원조직 .....	40
<그림 7> 생활예술과 창조적 산업의 선순환 구조 .....	72
<그림 8>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의 3단계 7개년 추진 목표 .....	83
<그림 9>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지원사업 영역 .....	85
<그림 10>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 3단계 7개년 사업 추진 흐름도 .....	86
<그림 11> 컨설팅 지원 영역 및 대상 .....	87
<그림 12> 마을 연계 네트워크 구성 .....	89
<그림 13>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과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과의 연계성 .....	91
<그림 14> 공공미술 개념 변천과정 .....	92



# I. 연구 개요

## 1. 연구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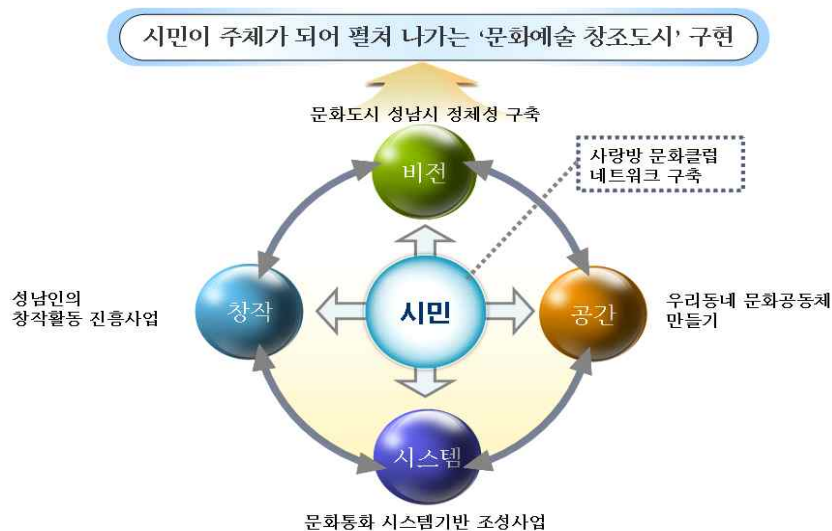
1) 성남문화재단 문화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정책과 사업의 향후(3단계 7개년: 2014 ~ 2020) 발전계획 수립 필요성

- 성남문화재단은 2006년 ‘문화예술 창조도시 성남만들기 기본계획 연구’를 통해 총 3단계 15년에 걸친 ‘문화예술창조도시’ 발전계획을 수립

<표 1> 성남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창조도시 실현’을 위한 단계별 발전 계획

단 계	시 기	목 표	핵심추진과제
1단계 3개년 (기초다지기)	2006~2008	시민주체 형성을 위한 기반 마련	· 문화클럽 발굴 및 교류 활동 네트워크구축 · 문화클럽의 지역사회 참여 기회 확대 · 동네 유형별 커뮤니티 육성 모델 개발
2단계 5개년 (구조세우기)	2009~2013	문화공동체 활성화	· 동네 단위 커뮤니티 활성화 및 교류 활동 확산 · 문화클럽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 네트워크 활성화 · 문화공동체 발전 시스템 구축 · 문화예술 창조도시 포지셔닝
3단계 7개년 (몸체만들기)	2014~2020	세계 속의 ‘예술시민의 도시’ 실현	· 전체 지역사회의 문화공동체 확대 및 발전 네트워크 확대 · 국제 교류 네트워크 확대 및 강화

- 이를 추진하고자 5대 정책사업을 기획, 현재까지 추진해오고 있으며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은 5대 정책사업의 핵심사업으로 2007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음



<그림 1>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창조도시 5대 정책사업 개념도

- 5대 정책사업 중 창작영역의 <성남인의 창작활동 진흥사업>은 2007년 첫째 시행하였으나, 부서 고유 업무와의 이질성, 충분한 지원예산 확보 부족 등의 이유로 2008년부터는 추진하지 않음
- 2011년부터 경기문화재단의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 시군협력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함
- 2013년은 2단계 5개년 계획이 종료되는 해로써 다음 단계인 3단계 7개년(2014 ~ 2020)의 문화공동체 육성 및 발전에 대한 추진 계획 수립이 필요함

## 2)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환경변화 및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 마련

### (1) 사업 추진 환경의 변화와 신규사업 운용에 따른 고유 사업별 추진 목적과 연계방안의 재정립이 필요

-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
  - 2012년부터 사업예산이 예년보다 약 1/4로 축소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지역과 대상이 축소됨
  - 2013년부터 예술가 또는 기획자 등의 중간 매개 조직 없이 직접적인 주민지원으로 사업 방향이 전환됨에 따라 지원방식 등의 재조정이 필요하게 됨
  - 성남시의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립 추진 계획에 따른 연계, 협력 방안과 역할분담 영역 및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사업 초기 활발했던 생활예술공동체인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과의 교류, 연계가 2012년부터 급격히 하락하는 현상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 2011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과 사업성격이 중복된다는 내부적 평가가 제기됨
  -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과 구별되는 사업 고유의 목적 및 성격 정립이 필요함

### (2) 예술가 지원에 대한 지역 내 요구에 대한 대응책 마련

- 성남시 지역사회와 예술계는 성남문화재단의 지역문화예술인 지원사업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
- 이에 따라 문화공동체 육성과 발전을 지향하는 기존 정책구상 안에서 지역문화예술인의 참여와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게 됨
- 기존 사업에서 수행했던 예술가의 기획, 매개 역할 보다 예술적 창작 중심의 지역 사회 참여 방안 마련이 필요함

### (3) 자생성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 방안 모색

-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과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의 사업성과가 사업 지원 기간 내에만 활성화되고 지원 종료 후 중단되는 현상이 발생
  - 기획자, 매개자, 예술가 중심 지원의 결과라는 문제 제기
  - 3년 단위 지원으로는 기대했던 사업 성과 도출이 어렵다는 문제 제기
  - 문화만으로는 주민공동체 형성과 지속이 어려우며, 주민 수요가 높고 생활과 밀접히 관계 된 복지, 교육, 환경, 경제 분야의 적극적 연계, 협력 방안이 시급함

## 2. 연구 목적 및 기대 효과

### 1) 연구 목적

#### (1) 성남문화재단 문화공동체 정책 및 사업의 추진 내용 정리

- 사업 실행 7년째를 맞아 그동안 미진했던 사업내용을 정리, 기록하고자 함
  - 1단계(2006년 ~ 2008년), 2단계(2009년 ~ 2013년) 사업 추진 내용에 대한 기록, 및 정리

#### (2) 성남문화재단 문화공동체 정책 및 사업의 문제점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을 마련

- 기존 총 3단계 15년 계획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
- 지난 7년간 추진해 온 사업내용, 성과들에 대한 정리를 통한 사업 목표 및 내용의 수정, 보완

### 2) 기대 효과

#### (1) 문화공동체 정책 및 사업의 추진성과 제고

- ‘성남시 생활예술정책 성과평가 연구’에서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의 문제점으로 ‘체계적인 사업모델의 부재’, ‘가시적인 성과가 힘든 사업구성’, ‘일관적인 운영체계 구축 미흡’을 지적
-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통해 주민의 자발성과 자생성을 기반으로한 지속 가능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적 기반 마련 및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 사업 고유 목표 및 성격 정리에 따른 지원 영역의 다각화

-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과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의 사업 성격과 내용, 그리고 지원방식을 명확히하여 각기 다른 영역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중복성을 해소
- 마을만들기지원, 전문예술인의 문화공동체 활동 참여지원 등을 통해 지원 대상을 넓히는 한편, 보다 다양하고 특화 된 사업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3) 향후 성남시의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및 사업 추진 시 상호 연계, 협력의 강화

- 성남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성남문화재단 추진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을 없애고 각각의 사업이 연계, 협력되어 추진 시 사업 성과가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됨
- 복지, 환경, 교육, 사회적 경제 등 다양한 마을만들기사업 영역과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문화를 통한 마을만들기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고 실질적인 주민 만족도를 높임

### 3. 연구 방법

#### 1) 연구 영역

-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이 총 2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추진
  -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 : 마을만들기사업
  -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 커뮤니티아트

#### 2) 연구진 구성

- 외부전문가/재단 사업 담당자/참여 작가 및 활동가 등으로 연구진 구성(9월)
  - 커뮤니티아트, 마을만들기 분야 전문가 참여를 통한 전문성 확보
  - 실제 사업 수행 담당자 참여를 통한 실행가능성 제고
  - 사업 참여 작가 및 활동가 참여를 통한 수립 계획과 개선 방안의 현장성 강화

#### 3) 연구 추진 과정

- (1) 사업 참여자들의 지난 7년간의 성과 평가 및 향후발전방안 의견 수렴(5월)

- 연구 개시 전 간담회를 통해 사업참여 작가, 기획자, 활동가, 참여주민들에게 지난 기간의 사업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2) 생활예술 성과지표 개발 및 적용을 통한 성과평가 실시(7월 ~ 8월)

- 지난 7년간 추진해 온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의 객관적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를 개발하여 이를 적용한 평가를 수행

(3) 연구 개시 전 문헌 및 서류 등의 사전 학습 및 조사 실시(9월)

- 연구 개시 전 그동안 제작한 정책보고서, 프로젝트북, 사업보고서 등 관련 문서를 각 개별 연구진에게 제공하고 이를 사전 학습

(4) 각 영역별 연구 실행(9월 ~ 11월)

- 커뮤니티 아트 지원 정책 및 전략과 향후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 진행
- 마을만들기 지원 정책 및 전략과 향후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 진행
- 기존 추진 5대 정책사업과의 연계성 회복과 향후 강화방안에 대한 연구 진행



## II. 사업별 추진 과정 및 평가

### 1.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

#### 1) 사업 개요

##### (1) 목적

- 문화예술을 통한 주민주체형 동네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동네 가치 재발견
-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해 문화예술 공동체로 발전 및 문화마을 조성
- 주민자치적 문화역량 개발 및 자립 기반 조성

##### (2) 사업기간 : 2006 ~ 2013년 현재

##### (3) 사업대상

- 1단계 3개년(2006 ~ 2008년)은 5개 유형(골목길, 아파트, 공단, 시장 등)을 중심으로 추진
- 2단계 5개년(2009 ~ 2013년)은 <동네만들기 지원센터>를 통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의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대상 선정
  - 2006년 태평동의 문화공동체만들기를 시작으로 2012년까지(2단계 5개년 중심) 문화 환경 조성, 다양한 유형의 커뮤니티 활동 등 당해 연도 사업이 이월되어 추진함
  - 2012년 동네만들기지원센터 ‘사랑마루’ 운영지원비 삭감에 따라 마을미술프로젝트의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게 됨.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예산 미확보에 따라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만 진행됨
  - 2012년까지 운영되었던 top-down 방식에서 2013년에는 bottom-up 방식으로 방향 전환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을 가꾸고 만들어가는 사업 실행 체계 마련
  - 2013년 현재 마을에서 자발적 참여를 통해 활동 중인 주민 주도형 커뮤니티 지원(공간, 공공미술, 마을축제 등)으로 마을 활성화 사업 진행 중
- 재단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 및 자율성, 지속성을 위한 간섭 최소화 방식으로 진행 중

(4) 사업장소 : 성남시 일원

- 태평동, 은행동, 상대원동, 수진동, 정자동, 삼평동, 판교동, 단대동 등 8개 지역

2) 추진 과정

- 2006 ~ 2012년 문화예술을 매개로 동네별 커뮤니티 사업 진행
- 태평동, 은행동, 수진동, 상대원동, 도촌동, 삼평동, 정자동 7개 동네에서 유형별(골목길, 아파트, 공단, 시장 등)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진행
- 2013년 마을에서 자발적 참여를 통해 활동중인 주민 주도형 커뮤니티 지원(공간, 공공미술, 마을축제 등)으로 마을 활성화 사업 진행

(1) 1단계 3개년(2006 ~ 2008)

- 추진 사업 개요

<표 1>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 1단계 3개년 사업 개요

연번	사업명	총사업비	기간	장소	비고
1	2006 우리동네문화 공동체만들기	45,000천원	2006. 5월 ~ 11월	태평동	- 태평4동 문화공동체만들기 (골목길꾸미기, 쉼터, 벽화, 영화제, 움직이는사진관 등)
2	2007 우리동네문화 공동체만들기	259,000천원	2007.5월 ~ 2008.2월	태평동, 은행동, 상대원동	- 골목길유형 태평4동 2년차 - 아파트유형 은행주공 - 공단유형 : 동양공업사 등 기업과 함께한 벽화
3	2008 우리동네문화 공동체만들기	304,367천원	2008.2월 ~ 2009.1월	태평동, 은행동, 상대원동	- 골목길유형 태평4동 3년차 - 아파트유형 은행주공 2년차 - 공단유형 : 상대원1동 공단 '예사로운 만남' 문화나눔활동 - 신나는 상대원 라디오방송국'원다방'

- 사업별 세부 추진 내용

<표 2>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 1단계 3개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년도	사업명	기간	장소	내용	대상	비고
2006	골목길 한평 쉼터 '쭉마루 만들기'	9.18 ~ 11.14	태평4동	쭉마루 56개 제작	태평동 주민	-
	작은화단시상식	10.9 ~ 11.17	태평4동	동네 주민 참여 화단 시상	태평동 주민(15가구)	수상자 : 김희순 외 2명
	접시화분워크숍	10.23, 24, 26	태평동갤러리 _1436번지	워크숍 총 8회	태평동 주민	-



년도	사업명	기간	장소	내용	대상	비고
	골목길영화제	10.20,21,22	태평4동 동사무소 공터, 태평동갤러리	세탁소 아저씨의 인생극장 포함(8편상영)	태평동 주민	-
	골목길꾸미기	9.27 ~ 10.28	태평4동 동심길, 샘터길	모빌, 맨홀뚜껑 색칠 등	금빛초 고학년 외 19명	-
	찰칵! 움직이는 사진관	9.18 ~ 9.22	태평4동 골목길, 태평동갤러리	영정사진 촬영, 전시	태평동 주민 (독거노인)	
	‘예술 ,태평동에서 노닐다’워크숍	10.26	태평4동 동사무소 2층	동네, 미술관련 워크숍	50명	-
2007	나눔이 즐거운 Art Pool‘풀장환상’	9월 ~ 12월	은행2동 (은행주공풀장)	문화예술프로그램, 공간재생(생태벽화, 별별이야기벽화, 이정표, 시계탑, 시가있는계단 제작 등	은행주공주민	추진단체 : 밀머리미술학교 (예술감독 박찬국)
	콩닥콩닥 예술공단 (생산과 존경의 벽, 연두리본, 쉽 오!)	2007.10월 ~ 2008.2월	상대원공단, 남한산성 순환로 변 산성아파트 방음벽 200M	문화예술프로그램, 공간재생(벽화, 목공_마루, 벤치 등)	콩닥콩닥 예술공단 참여 기업, 근로자, 복지기관, 주민, 작가	추진단체 : 그림언덕 (대표 이화섭)
	태평동락하세 2년차 ‘꿈꾸는 아이들’	2007.8월 ~ 2008.2월	태평4동 일대 및 금빛초	한울신문, 영상뉴스	어린이기자단 (25명), 학부모, 후원회 등	-
	정자동 들내문화제	9.8	정자동 신기교 일대	버룩시장, 문화제	정자동 주민	-
	일번가 종합시장 젊음의 거리 축제	11.17	신흥3동 종합시장 일대	공연, 경연, 체험 등	성남시청소년, 지역주민, 상인	-
2008	靚장, 詩장, 시장에 간다	8.26 ~ 12.16	상대원시장	골목길프로젝트 (벽화, 조명, 상징조형물 등)	상인, 상대원주민	추진단체 : 도시의 빛과색 (예술감독 안성희)
	인터넷 라디오방송	8.26 ~ 12.29	상대원시장 (원다방)	-	상인, 상대원주민	추진단체 : 비셀린프로젝트 (정상무)
	한마당 문화예술배움터	9.1 ~ 12.29	상대원시장	줌마DJ, 놀토공작 등	상인, 상대원주민	-
	태평동락하세 3년차 ‘Art Dream’	4월 ~ 12월	태평4동	한울신문, 한울뉴스	어린이기자단, 학부모, 후원회 등	-
	문화예술배움터	4월 ~ 10월	은행2동 (은행주공풀장)	생태체험, 버룩시장, 어린이밴드 등	은행주공주민	-
	상공회의소와 함께하는 기업문화공헌	2008.12월 ~ 2009.1월	성남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문화예술프로그램, 공간재생(사진 벽면 전시, 아트벤치 제작 등)	사회복지시설 (예가원, 자광원)	추진단체 : 이심육점구 (예술감독 박진영)

(2) 2단계 5개년(2009 ~ 2013)

○ 추진 사업 개요

**<표 3>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 2단계 5개년 사업 개요**

연번	사업명	총사업비	기간	장소	비고
1	2009 우리동네문화 공동체만들기	224,682천원	2009.2월 ~ 2010.2월	태평동, 은행동, 상대원동, 수진동, 도촌동(5개 지역)	동네만들기지원센터 <sup>1)</sup> '사랑마루' 1년차
2	2010 우리동네문화 공동체만들기	186,701천원	2010.2월 ~ 2010.12월	태평동, 은행동, 상대원동, 수진동, 도촌동, 삼평동 (6개 지역)	동네만들기지원센터 '사랑마루' 2년차
3	2011 우리동네문화 공동체만들기	229,300천원	2011.2월 ~ 2011.12월	태평동, 은행동, 상대원동, 수진동, 도촌동, 삼평동, 정자동(7개 지역)	동네만들기지원센터 '사랑마루' 3년차
4	2012 우리동네문화 공동체만들기	43,000천원	2012. 7월 ~ 12월	삼평동 (봇들 6단지 임대단지 내)	마을미술프로젝트 커뮤니티 공간조성
5	2013 우리동네문화 공동체만들기	65,150천원	2013. 2월 ~ 현재	단대동, 판교동	커뮤니티 지원사업 진행중 - 단대동 : 공공미술을 통한 마을환경 개선 및 마을축제 진행 - 판교동 : 마을목공, 옷수선 등 마을재활용 센터 운영

○ 사업별 세부 추진 내용

**<표 4>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 2단계 5개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년도	사업명	기간	장소	내용	대상	비고
2009	은행주공 문화배움터	4.13 ~ 10월	은행2동 (은행주공풀장)	문화예술프로그램(어린이 밴드, 풍물, 생태연구 등), 벼룩시장, 마을축제	은행주공주민	지속사업
	상대원 라디오방송국 '원디방'	4.8 ~ 12.16	상대원시장 (원디방)	작은음악회, 반짝세일, 라 디오방송국 운영 등	상인, 상대원주민	지속사업
	'사랑마루' 1년차	2009.8월 ~ 2010.1월	태평동 외 4개동	동네만들기지원센터 운영, 문화예술프로그램, 공간재생(은행동 풀장환상 조성, 생태벽화, 골목길 화 단조성 등), 원디방 리모델 링, 작은발표회, 프로젝트 북 제작 등	태평동 외 4개동 주민	-

1) 동네만들기지원센터 : 동네별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 문화환경조성, 문화매개자 양성교육, 동네만들기 페스티벌 등 동  
네동 동네를 연결하여 네트워크화 하고 주민, 재단, 행정, 전문가 등의 협력체제를 이끌어내는 역할 수행

년도	사업명	기간	장소	내용	대상	비고
2010	상대원 라디오방송국 '원다방'	2월 ~ 12월	상대원시장 (원다방)	작은음악회, DJ교육, 워크 숍, 라디오방송 스피커 증 설, 라디오방송국 운영 등	상인, 상대원주민	지속사업
	'사랑마루' 2년차	4월 ~ 11월	태평동 외 5개동	동네만들기지원센터 운영, 문화예술프로그램, 문화예술매개자 양성 교육, 작은발표회, 프로젝트북 제작 등	태평동 외 5개동 주민	-
2011	'사랑마루' 3년차	2011.4월 ~ 2012.1월	태평동 외 6개동	동네만들기지원센터 운영, 문화예술프로그램, 수진동 도자기 벽화전, 동네만들기페스티벌, 숲속 캠프, 프로젝트북 제작 등	태평동 외 6개동 주민	-
2012	마을미술프로젝트 '마을커뮤니티 공간 조성'	7월 ~ 12월	삼평동	작은도서관 겸 커뮤니티 공간 조성, 주민참여프로그램 (책장 디자인, 목공체험, 종이접기, 벽화 등)'	삼평동 봇들마을 6단지 주민	-
2013	마을커뮤니티지원	3월 ~ 12월	단대동, 판교동	주민주도형 커뮤니티 활동 지원(공공미술을 통한 마 을 환경개선 및 마을축제, 마을목공, 옷수선 등 마을 재활용센터 운영)	단대동 외 1개동 주민	-

(3) 2006 ~ 2013년 공간조성 현황

<표 5>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 공간조성 현황(2006 ~ 2013)

연번	위치	면적	오픈일	장소	공간명	내용
1	중원구 은행2동 은행주공아파트 내 수영장	약100㎡	2007.9.15(토)	은행2동 은행주공	폴장환상 아파트 내	단지 내 폴장 탈의실 건물 사용
			2009.9.7(월)	아파트 내		폴장환상 리모델링
2	중원구 상대원동 2980-16 3층	48.45㎡	2008.9.29(월)	상대원시장	원다방	인터넷라디오방송국 및 커뮤니티 공간 조성
						원다방 리모델링
3	분당구 도촌동 섬마을 5단지 506동 1층	약120㎡	2010.12.4(토)	도촌동 섬마을 5단지	섬말사랑방	작은도서관 겸 커뮤니티 공간 조성
4	분당구 삼평동 이지더원 커뮤니티센터 옥상	약165㎡	2011.12.11(일)	삼평동 봇들마을 2단지	하늘꿈터	이지더원도서관 커뮤니티센터 옥상 조성
5	분당구 삼평동 봇들마을 6단지	약165㎡	2012.12.15(토)	삼평동 봇들마을 6단지	꿈너비 도서관	작은도서관 겸 커뮤니티 공간 조성

### 3) 평가<sup>2)</sup>

#### (1) 성과

- 우리동네문화공동체사업은 ①사랑방 단계(열악한 환경의 동네에 문화예술을 통한 자아실현의 장을 제공) - ②사랑마루 단계(지역 단위 내외로 관계망의 확장) - ③사랑마당 단계(사랑방클럽 등과 연계된 지역 문화공헌 활동 활성화로 공동체 형성)를 설정하여 주민들이 자아실현에서 시작하여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넓혀가고 이로써 지역 및 도시 전체의 공동체 형성을 촉진하려는 노력을 경주했다는 점이 주목을 받음
- ‘대상에서 주체가 된 시민’
  -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 초기에 주민들은 사업의 대상이었음. 작가들 또는 기획자들이 사업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주민은 단순 참여자로 한정됨
  - 그러나, 사업의 지속성 문제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중심이 된 문화공동체를 어떻게 만들것인가가 2008년부터 중심의제로 떠오름
- 작가 중심 ‘공공미술’ 외 공동체활동 주민 육성을 지원
  - 각 마을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마을리더 양성을 위한 ‘매개자 워크숍’, 각 마을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한 해 동안 진행 된 프로그램 소개하고, 함께 나누는 ‘작은 발표회’ 등 마을별 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함
- 열악한 환경의 동네에 문화예술을 통한 자아실현의 장을 제공(사랑방 단계) : 현재 까지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이 진행된 곳은 문화적으로 열악한 곳이 많았으며, 열심히 참여하는 주민들의 핵심적인 동기부여는 자신과 자신의 아이들이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을 갖게 된다는 것이었음
-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의 추진으로 시민을 위한 문화혜택이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며, 아이에서 어른까지 폭 넓은 계층의 참여, 지역과 주민에 맞추어진 맞춤형 프로그램, 주민과 작가가 함께 만들어 가는 주민 공간 만들기 등 참여자 간에 소통의 계기가 되고, 아이와 아이가 친구가 되고, 어른과 어른은 정다운 이웃이 되어 동네에 애정을 갖는 계기를 마련함
- 참여자 대부분이 주부로 가사와 보육의 제한된 역할을 벗어나 우리동네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참여를 계기로 사회 활동의 자신감을 회복하고, 그런 속에 동료에게 자극을 받아 사회 재진출의 계기가 되기도 함. 또한 작가는 지역 활동으로 지역의 관심과 이해를 많이 높임

2) <성남문화재단 생활예술정책 성과평가 연구>, 성남문화재단, 2013

① 지역 단위 내외로 관계망의 확장(사랑마루 단계)

- 우리동네 사업은 우선 지역 단위 내에서 ‘문화를 매개로’ 관심 있는 이들 사이에 관계망을 형성하고, (2단계에 세워진) ‘동네만들기 지원센터’라는 허브를 경유하여 사업이 진행되어온 여러 지역 단위들 간의 관계망을 구축하고 확장하고자 했음

② 사랑방클럽 등과 연계된 지역 문화공헌 활동 활성화로 공동체 형성(사랑마당 단계)

- 사랑방문화클럽의 문화공헌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동네 강좌나 모임에서 갖고 닦은 주민들의 솜씨를 지역사회에 보여주는 행사나 축제를 열거나, 신문발행이나 라디오 방송 등 지속가능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지역 공동체 형성에 공헌함



<그림 2>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 프로그램 실행

- 이처럼 자아실현-네트워크 형성-지역 공동체 활성화라는 생활예술의 핵심적인 논리에 따라, 각 단계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많은 기획과 사업이 이루어진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면, 그 외에 특별히 주목한 ‘우리동네’ 사업의 성과는 주민주도의 ‘대안적’ 정책모델 제시(문화예술을 중심에 둔 마을만들기이자, 사랑방문화클럽과 결합한 형태의 마을만들기 시도 등), 이를 통해서 ‘마을만들기’에 대한 인식을 성남시와 경기도 등으로 확산시킨 것 등임
- 2010년을 거치면서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에 대한 평가 과정을 통해 문화예술은 물론 환경, 도시계획, 교육, 사회적기업 등 도시 전반적인 영역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이 통합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기됨
- 2011년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가운데에도 성남 문화재단을 비롯한 문화예술 기관단체들과 더불어 성남의제21, 성남시자원봉사센터, 성남YMCA, 성남시사회적기업지원센터, 청소년육성재단, 사회복지정보센터 등 각계 기관이 참여하는 <행복마을만들기> 추진 지원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성남시 마을만들기와 관련하여 의견을 나누고 사업 연계를 모색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성남시 자치행정과에 ‘행복마을팀’이 구성되고, 행복마을만들기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음

- 이러한 과정에서 자원봉사센터의 마을벽화그리기 사업추진, 사회적기업지원센터의 마을 사회적기업 지원, 청소년육성재단의 마을과 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사업 추진, 도시재생 사업 추진 등 다양한 영역으로 마을 사업이 확대됨
- 정리하면 지난 8년간 성남문화재단에서 추진해 온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은 경험 부족, 인력 부족, 예산 축소 등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성남시를 비롯한 각계각층에 마을만들기의 필요성과 방법을 실천적으로 제시하고 확대해 가면서 이제는 성남시의 주요 정책사업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소중한 성과를 남겼다고 할 수 있음

## (2) 문제점

- ‘우리동네’ 사업은 재단의 집중적인 관심과 예산을 통해 총 7개 동네에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사랑방문화클럽’ 사업과 함께 ‘주민주도형 대안적 정책모델 제시’, 동네별 주민자치 모임 및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한 ‘민관협력 추진체계 및 운영체계 구축’, 사랑방-사랑마루-사랑마당 단계에 입각한 ‘주민의 자아실현과 사회공헌의 장으로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 등 핵심적인 성과를 생활예술 정책의 확산을 이끌어왔음
-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서 2011년까지 운영되었던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추진이 중단되면서 현재는 정점 대비 약 1/5 정도 수준으로 예산이 축소되어 관련 사업의 대부분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생활예술 사업 2단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우리동네’ 사업에 참여한 재단 직원, 작가, 활동가/매개자, 참여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이 사업의 발전을 저해한 핵심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① 체계적인 사업모델의 부재
- ② 일관적인 운영체계 구축 미흡
- ③ 가시적인 성과가 힘든 사업구성



<그림 3>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 문제점

① 체계적인 (상향식) 사업모델의 부재

- 사랑방문화클럽 사업의 경우, 자생력을 가지고 문화예술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동아리들이 1000여개가 넘게 파악된 상태에서, 이들 클럽들 간의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그들 스스로 운영체계를 만들어 사회공헌의 장에 적극적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분명하고(clear) 실현가능한(feasible) 사업모델이 있었음
- 반면에 우리동네 사업의 경우, 1단계에서 5가지 유형을 나누는 식의 나름대로 섬세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기는 했지만, 마을 단위로 자생력을 갖춘 풀뿌리 문화예술 조직(e.g.동호회) 및 리더(i.e. 클럽지기와 같은 매개자)가 없는 상태에서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이 없이 ‘주민들의 생활예술 활동을 촉진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는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방향성만으로 사업이 발족되었다고 비판할 수 있음
- 즉, ‘주민주도형 대안적 정책모델 제시’라는 기획의도는 매우 적절하고 야심찬 것이었으나, 상향식(bottom-up) 정책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조직화된 주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도와 달리) 재단의 하향식(top-down) 기획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체계적인 주민 수요 및 요구 조사를 거쳐서 사업이 시작되었다기보다는, “태평동”과 같은 예외를 제외하면 유형별 노하우 축적이란 명분 아래 충분한 이해 없이 사업이 전개되었으며, “사업 목적이 공공미술이냐, 커뮤니티 형성과 육성이냐에 대한” 혼란스러운 논의들이 반복적으로 제기됨
- 그 결과, (‘사랑방문화클럽’ 사업과는 달리) 재단과 주민간의 직접적인 파트너십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으며, 재단이 애초 기대한 ‘사랑방->사랑마루->사랑마당’으로 확산되는 단계적 사업모델도 분명하게 구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② 일관적인 운영체계 구축 미흡

- 이처럼 체계적인 (상향식) 사업모델의 부재로, 동네마다 천차만별인 상황 및 주민 요구에 따라서 많은 진통을 겪으면서 제 각각의 운영체계가 마련되었는바, 성남문화재단의 제한된 인력으로 동네별 다양한 조직들을 관리할 수 없었으며 사업 전체를 관장하고 조율할 수 있는 일관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지 못하였음
- 예컨대, 1단계에서는 다섯 개 유형을 정하고 성남 외부 예술가들을 불러서 ‘커뮤니티 아트’가 중심이 된 프로젝트를 시도하다가, 2단계에는 성남 지역 예술가들과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한 ‘동네만들기 지원센터’를 구성하여 전반적인 사업 주도권을 넘겨준 사실에서도 재단이 ‘우리동네’ 사업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민관협력 추진체계 구성을 둘러싸고 느끼게 된 부담감이 드러남
- 따라서 동네별로 다양한 사업들이 열심히 전개된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운영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참여 주체들(재단, 주민, 작가, 활동가/매개자) 간의 분명한 역할 규정 없이 과도한 업무나 중복된 책무에 시달리는 이들이 나타나면서 실질적인 기반다지기가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함
- 그 결과, ‘우리동네’ 사업의 주축이 된 부녀회와 해당 동네의 다른 주민 조직 사이의 갈등이 일어나서 부녀회가 해체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재단 측의 효과적인 중재 기능이 작동하지 못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동네별 구심점이 쉽게 흔들리는 상황이 수차례 발생하게 됨

## ③ 가시적인 성과가 어려운 사업구성

- 이상과 같은 복합적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재단, 주민, 작가, 활동가 등이 공통적으로 깨닫게 된 점은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이 추구한 바가 현실적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웠다는 사실임
- 첫째는 ‘문화만으로 마을공동체 조성은 불가능하다는 것’, 둘째는 ‘단기적으로 마을공동체 조성은 불가능하다는 것’으로써, ‘우리동네’ 사업을 재구성하거나 향후 관련 사업을 기획할 때 의미심장한 교훈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함
- 이러한 긍정적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 것과는 별개로, 우리동네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 도출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점, 사업의 총체적인 리모델링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점은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부분임
-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어려웠던 주요 이유는 ‘문화예술’이 공동체의 만남을 촉진하는 윤활유 또는 힐링의 기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문화예술’이 사랑방문화클럽과 같은 관심공동체가 아니라 삶의 터전을 공유하고 있는 지역공동체에서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일이 잦을 수밖에 없음을 미리 파악하지 못한



것을 꼽을 수 있음

- 예를 들면 이 사업을 통해서 그려진 “벽화의 물감이 희미해” 지는 것에서 상징적으로 보이듯이 ‘우리동네’ 사업이 크게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한 데에는 단지 ‘통합형’ 사업에 대한 준비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장기형’ 사업에 대한 준비나 계획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음

### (3) 총평

- 이러한 세 가지 문제점은 공통적으로 재단이 문화예술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하여 공동체 의식을 고양한다는 목표와 달리, 구체적인 성남시의 현실 속에서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를 조성하는 것에 대한 분명하고 실현가능한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는 비판으로 이해될 수 있음
- 이런 상황에서 과거 진행되었던 사업방식을 고수하겠다면, 동네마다 3년이라는 제한된 시간 동안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나, 문화예술 부문 바깥의 복지나 교육 부문과의 긴밀한 연계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것은 수정될 필요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는 현재의 행정체계 내에서 쉽게 대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업방식이기도 함
- 따라서 향후에도 재단의 주력사업으로 ‘우리동네’ 사업을 계승하고자 한다면, 사업 방식보다 더 근본적인 층위에서 사업 모델 자체를 좀 더 평이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수정하고, 여러 동네에서도 일관적인 형식으로 운영 가능한 추진체계 구성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 ■ 참여작가 및 참여주민 평가

- 성남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 (이하 ‘마을만들기’ 사업)의 문제점은 크게 복합적 문제점과 조직별 문제점으로 나누며, 조직별 문제점은 다시 성남문화재단의 문제점, 매개자의 문제점, 참여자의 문제점으로 나누어 작성함
- 매개자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한 지역 작가 또는 지역 활동가로서 성남문화재단과 주민 사이에서 사업 실무 역할을 하는 자이고, 참여자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한 주민을 뜻함. 사랑방은 ‘마을만들기’ 동네별 참여자 조직이며 동시에 커뮤니티 공간을 뜻함

#### ① 복합적 문제점

- ‘마을만들기’ 사업은 문화를 매개로 주민이 공동체의식을 갖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관심과 사회공헌 활동에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이 내면에는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 신뢰를 쌓는 추상적 본질이 자리함
-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련된 3주체(성남문화재단-매개자-참여자)는 본질의 중요성보다 사업의 성과나 혜택의 실리에 초점을 두는데, 우선 성남문화재단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정책

적 성과에 초점을 두고, 매개자는 활동기반에 초점을 두고, 주민은 자기계발과 가족유대  
대인관계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서로 지향하는 목적이 각각 다름

- 성남문화재단의 목표

- 사업 지속성과 참여자 사회 공헌의 목적 강조, 가시적 성과 추구

- 사업 참여주민의 목표

- 주민은 성남문화재단이 바라는 목적보다는 좋은 프로그램을 무료로 혜택 받기를 바람

- 기획자/매개자의 목표

- 매개자는 능력을 발현 기회로 삼는 등의 활동기반으로 삼음

○ ‘마을만들기’ 사업은 성남문화재단이 정책과 계획에서 주도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추진함과  
달리 주민의 관심은 자기계발, 가족유대, 대인관계 형성에 있음

- 이런 한 주민의 욕구는 주민센터나 문화센터 프로그램에서 대체할 수 있으므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지속을 위해 굳이 나서 수고와 책임을 감수하면서까지 유지해야할 필요  
성을 크게 느끼지 못함

- 따라서 성남문화재단 지원(관련 조직 지원 포함)이 끊길 경우 참여자가 스스로 ‘마을  
만들기’를 지속하기 어렵고, 사업의 지속을 위해서는 계속된 지원이 필요함

- 몇 년 전부터 성남문화재단은 마을에 이미 조직된 자생 단체를 지원하는데 이러한  
대안은 지속 가능성이 높다고 봄

② 조직별 문제점

○ 성남문화재단의 문제점

- 성남문화재단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기록, 평가, 홍보를 위해 매년 프로젝트북, 이야기  
북 등의 인쇄물을 출간하나 성과중심 내용이어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분석 노력  
이 미흡했음

- ‘마을만들기’ 사업의 1단계 ~ 2단계는 지역 작가와 지역 활동가가 성남문화재단과 주민  
사이에서 매개자로서 ‘마을만들기’ 실무 역할을 함

- 매개자 그룹은 ‘마을만들기’ 사업 최전선에서 노력하였으나 3단계(주민이 실무 역할 단  
계)부터는 역할이 상당히 축소됨

- 수년간 성남 ‘마을만들기’에서 활동했던 매개자들은 사업의 필요에 의해 활동하였으나  
향후 사업 참여 기회가 불투명한 관계로, 타 지역, 타 사업에서 활동 중이거나 모색  
중에 있음

○ 매개자의 문제점

-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매개자는 사업에 집중도가 약하고, 지속적 활동이 어려움. ‘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금에서 지급되는 매개자 활동비가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힘들어 부족  
한 수익을 충당하기 위해 다른 공간, 다른 영역에서 활동을 겸하게 됨으로 사업에 대

한 집중도가 약해지고, 사업이 중단되거나 선정되지 못하면 지속적 활동이 어려워져 전문성이 떨어짐

- 매개자들이 겸하는 활동 내용을 보면, 타 지역 유사 프로젝트에 참여, 비정규 강사 활동하거나, 역으로 주된 수익 활동하면서 ‘마을만들기’ 사업에 부수적 참여하기도 함
- 매개자는 전공이 다양하고 경험의 차이가 다른바. 사업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수행은 방법도 다르고 역량의 차이도 다름. 작가 군은 문화적 측면을 강조하고, 활동가 군은 조직 성장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함
- 참여자의 문제점
- ‘마을만들기’ 사업 참여자 중에는 사랑방을 개인의 사업 수단으로 보고 접근하여 활동하는 사람이 더러 있는데, 일반 참여자로 소극적 접근하는 경우 영업이나 정치 목적을 위해 접근하고, 핵심 참여자로 적극적 접근의 경우는 사랑방을 자신의 사업 조직으로 만들어 가려함. 후자처럼 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그로인한 손실은 실로 큼
- 소극적 접근은 작은 이익을 목적으로 사랑방에 접근하는 경우로 보험 영업을 위해, 학습지 홍보를 위해, 정당인의 정치적 홍보를 위하는 등 다양하지만 문제 발생의 가능성이 적고, 발생하여도 조직의 피해도 적음
- 적극적 접근은 사랑방의 핵심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사업 목적과 이익을 위해 조직으로 변질시키거나 이용하는데 이 경우 사랑방 안으로는 혼란과 분열이 일어나고 밖으로는 이미지에 손상을 가져와 피해가 안팎으로 발생함
- ‘마을만들기’ 사랑방 내에서는 발생하는 문제는 복잡다단, 변화무쌍하여 예측하기 힘들고 한마디로 정리하기 힘들
- 참여자는 순박한 면과 이해득실에 빠른 면을 함께 가지고 있고, 상황에 따라 적극 참여의 행동을 보임으로써 혜택이 지속 된다는 것도 알고, 매개자가 미숙할 때는 단합하여 주도권을 가지려고도 함

## 2.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 1) 사업 개요

#### (1) 목적

- 기존의 지원사업은 관례적으로 기금의 단순분배, 중복(지역 내·외의 유사한 지원사업)지원 및 목표성의 부재, 복합적 지원 방식의 부재, 시민의 삶과 연계되지 못하고 일부 계층만을 위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

- 성남문화재단의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은 문화예술과 지역을 결합하고, 공공성을 증진시킨 사업을 통해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기획지원사업의 추진을 통해 이와 같은 지원사업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 또한 예술이 지역으로 들어가 지역과 예술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지역과 예술인 문화재단이 함께 해야 하기에 지원방향과 목표의 구체적 설정 및 추진을 위한 보완 시스템 등 지원사업의 바람직한 모델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 중에 있음

## (2) 사업기간 : 매년 2월 ~ 12월

- 2월 사업설명회를 통해 공고 접수 후 서류 및 인터뷰 심사를 통해 지원단체를 선정하고, 4월 집행정산 교육을 실시한 후 지원금을 교부하고, 사업 추진상황을 모니터링 함
- 사업 종료 후 집행정산을 통해 각 사업을 완료하며, 12월 활동보고회를 통해 그 해의 지원사업에 대한 정리 및 모니터링 내용을 공유하는 작업을 실시함

## (3) 지원사업의 유형

- 경기문화재단의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 일반지원사업과 성남문화재단의 기획지원사업인 상생협력지원사업, 생활예술창작지원사업, 문화기획인력양성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2) 추진 과정

### (1) 2011년

-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은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을 경기문화재단과 매칭을 통해 2011년 시작하게 되었으며, 본 지원사업의 목적은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생활속의 예술 활성화 및 지역문화정책 방향을 반영한 새로운 지원사업 모델 구축이었음
- 이를 위해 지역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일반지원사업과 성남의 정책방향을 담은 지역의 동네를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아트 지원사업인 기획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
- 지원규모

<표 6>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2011년 사업별 지원액

총지원액	일반지원사업	기획지원사업
109,000,000원	64,000,000원	45,000,000원

○ 지원영역

<표 7>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2011년 지원영역 및 규모

지원사업	지원분야	지원규모
<일반지원사업> :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초예술분야의 발표사업</li> <li>주체별 문화예술사업</li> <li>목적별 문화예술사업</li> </ul>	200만원 ~ 600만원
<기획지원사업> : 지역의 동네를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아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예술사업</li> <li>문화예술역량강화 및 교육사업</li> </ul>	300만원 ~ 1,500만원

○ 지원 및 선정 현황

<표 8>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2011년 신청 및 지원건수

구 분	합 계	일반지원사업	기획지원사업
신 청	125건	93건	32건
선 정	28건	23건	6건

○ 선정사업

- 일반지원사업

<표 9>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2011년 일반지원사업 선정 단체

연번	신청사업명	신청자
		단체명
1	2011 문정숙의 색 - 70년을 돌아본 색	문정숙설장구연구회
2	사회소외계층 중학생대상 미디어여행 프로젝트	사진모임'찬란한일상'
3	다문화합창단 Uangel VoiceJr.의 '동요야 놀자'	재)유엔젤보이스
4	아카펠라와 만나다! 아카펠라그룹 '젠틀브리즈' 창작공연	젠틀브리즈
5	태평4동 어린이기자단 '한울신문'	한울어린이기자단
6	뽕 - 한국편	창작그룹-오기
7	여름방학 어린이 국악콘서트 '한마음'	민족음악원 분당지부 윤봉헌
8	은행주공아파트'제5회문화배움터'	은행주공문화배움터
9	청소년 창작뮤지컬 '네버랜드'	성남뮤지컬컴퍼니
10	제3회 줌마날다	성남여성회
11	성남시민과 함께하는 청소년 뮤지컬	EPPL(Ever Play)

12	도시애 핀 들꽃전	들꽃미술가회
13	양상불'오감'과 함께하는 'AH~!merica'	양상불'오감'
14	행복한 영화	포토펬리스
15	마을배움터 형성을 위한 10대 창의예술아카데미	성남청소년창의스쿨
16	서울기타콰르텟 10주년 연주회	서울기타콰르텟
17	2030토크콘서트 '청춘불패'	성남청년회
18	제16회 이투스매스터코랄 정기연주회	이투스매스터코랄
19	장애인애 함께하는 아름다운 음악회	성남청소년오케스트라
20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공연 이미지음악인형극-소금인형	극단로.기.나.래
21	코리아메이저 플루트오케스트라	코리아메이저 플루트오케스트라
22	송규정의 정가	소석가원
23	2011 해설이 있는 국악공연	소리사랑회

- 기획지원사업

<표 10>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2011년 기획지원사업 선정단체

연번	신청사업명	신청자
		단체명
1	중앙시장 문화예술 공동체 활성화프로젝트	중앙시장문화공동체활성화 추진위원회
2	디딤돌달거리발표회	학교밖 청소년 배움공동체 디딤돌
3	골목길페이스오프 '색깔있는골목,칼라대문!'	그림마을
4	판story교	사)연극놀이터 해마루
5	어린이창의 예술교육프로그램 '2011놀자!움직이자!생각하자!'	한국라반움직임연구소
6	실버미디어교육 '어르신들이 만드는 우리동네 생생뉴스'	다울영상미디어연구회

○ 모니터링 및 평가연구

-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의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사업 운용상황을 점검하고 모니터링 단 교육을 통해 지역활동가를 발굴·육성하며, 향후 지원사업의 발전방향을 도출하고자 모니터링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는 차년도 지원사업 심사시 반영되어 지원사업자들의 적극적 사업 참여를 유도함
- 모니터링 요원 선발 및 교육, 운영
  - 모니터 : 공모, 인터뷰를 통한 15명 선발
  - 교육 : 사전교육 3회, 특강 4회
  - 네트워크파티 : 4회(정보공유 및 지속적 활동을 위한 모니터링 요원 네트워크 강화)

- 웹 카페 운영 : <http://cafe.naver.com/snmonitoring>
- 지원사업 평가표 개발
- 현장평가 수행

**<표 11>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2011년 모니터링 사업건수**

총계		기획지원사업		일반지원사업	
사업수	평가지 제출	사업수	평가지 제출	사업수	평가지 제출
29	63	6	25	23	38

- 활동보고회
- 중간보고 및 결과보고
- 평가연구를 통한 발전방안 도출
- 활동보고회
  - 지원사업 활동 종료 후 사업단체와 모니터링단이 함께 모여 지원사업 활동과 모니터링을 통한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를 갖음
  - 지원사업 선정심의위원, 모니터링 및 평가연구 연구위원 등 전문가 총평을 통해 지원사업의 전·후 및 모니터링, 평가에 대한 심도 깊은 평가 자리로 향후 단체의 발전적 활동을 위한 기회를 제공함

## (2) 2012년

-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은 경기문화재단의 지원금 배정기준의 변경을 통해 지원금이 축소되었지만, 성남지역의 안정적 지원환경 조성을 위해 시 출연금을 확대함
- 지역의 문화예술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속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 지원 외에 지원사업의 홍보활동, 격려하는 우수사례집 제작 등 간접지원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지역문화예술단체가 자생적 활동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변화를 모색함
- 지원규모

**<표 12>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2012년 사업별 지원액**

총지원액	일반지원사업	기획지원사업
103,000,000원	47,000,000원	56,000,000원

- 지원영역
  - 2011년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지역의 단체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기획력, 동네를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 사업에 대한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단체 간 협력을 통한 새로운 네트워크 형성, 시민이 시민을 교육하는 시스템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상생

협력지원사업을 기획함

<표 13>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2012년 지원영역 및 규모

구분		내용	규모
일반지원		두 장르 이상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문화예술단체가 동네와 마을에서 협력하여 실행하는 예술프로젝트	최고 700만원
기획지원	주민참여 지원사업	지역의 동네를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	최고 1,000만원
	상생협력 지원사업	지역의 동네를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를 단체 간 협력을 통해 진행하여 상생 발전하는 프로젝트 ※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단체(주관단체)가 사업실행 과정에 신규단체를 참여시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또 신규단체의 재능을 사업에 결합하여 상호협력 보완하며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	최고 2,600만원

○ 지원 및 선정 현황

<표 14>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2012년 신청 및 지원건수

구 분	합 계	일반지원사업	기획지원사업	
			주민참여	상생협력
신 청	33	17	13	3
선 정	17	12	4	1

○ 선정사업

- 일반지원사업

<표 15>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2012년 일반지원사업 선정 단체

연번	사업명	단체명	협력단체
1	분당벨칸토여성합창단 제4회 정기연주회	분당벨칸토여성합단	
2	음악 속 하루	한국조이앙상블	
3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발레 갈라콘서트	성남청소년오케스트라	계원예술고등 학교 무용과
4	제12회 정기연주회	성남원드오케스트라	분당사진연구회
5	다양한 문화 속에서 피어나는 리코더의 울림 속으로 풍덩	경기교사리코더합주단	
6	정가 전통예술공연	사)대한시조협회 성남시지회	



7	성남water art展	성남water art展	
8	장수사진 및 봉사활동	성남여성사진작가회	수묵향기
9	해설이 있는 K팝 이색콘서트	코리아 슈퍼재즈 빅밴드	KKANG프로덕션
10	하늘빛 높이 날다	춤하랑	
11	서울기타콰르텟 해피콘서트	서울기타콰르텟	한국우크렐라 앙상블
12	어린이 감성 무용극 너의 몸 나의 몸	책이랑 도서관	창작그룹오기

- 기획지원사업

· 주민참여지원사업

<표 16>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2012년 기획지원사업 주민참여지원사업 선정단체

연번	사업명	단체명
1	색깔있는 골목, 칼라대문	그림마을
2	태평4동 어린이기자단 '한울신문'	한울신문
3	청소년이 만드는 우리동네 다큐페스티벌 '나는우리동네 PD다.'	비영리민간단체 꿀찌 없는 글방
4	상희공원그림콘서트	상희공원을 사랑하는 모임

· 상생협력지원사업

\* 1차 공모에서 ‘중양시장 문화예술 공동체 활성화 프로젝트 시즌2’를 선정하였으나, 시장 재개발 문제 등으로 인하여 지원단체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재공모를 진행하여 ‘수정남로 아트프로젝트’를 진행함

<표 17>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2012년 기획지원사업 상생협력지원사업 선정단체

연번	사업명	단체명	비고
1	중양시장 문화예술공동체 활성화프로젝트시즌2 '시장으로 놀러와~'	중양시장 문화공동체 활성화 추진위원회	사업포기
2	수정남로 아트프로젝트	동네쟁이들	재선정

○ 모니터링 및 평가연구

- 시민모니터링의 활성화를 위해 모니터링단의 교육지원 및 운영관리를 강화하고, 시민모니터링 평가지표를 보완하여,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의 발전방향 도출의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하였으며, 2011년 모니터링 결과 단체들이 희망한 홍보활동 지원을 위해 모니터링단 내에 홍보 지원단을 운영함
- 모니터링 요원 선발 및 교육, 운영
  - 모니터 : 공모, 인터뷰를 통한 13명 선발
  - 홍보지원 : 2명 선발(월 1회 이상 회의 및 보도자료 배포)
  - 교육 : 사전교육 3회, 특강 3회
  - 네트워크파티 : 5회(정보공유 및 지속적 활동을 위한 모니터링 요원 네트워크 강화)
  - 웹 카페 운영 : <http://cafe.naver.com/2012snca>
- 지원사업 평가지표 보완
- 설문지 설계 및 설문조사 시행
- 현장평가 수행

<표 18>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2012년 모니터링 사업건수

총계		기획지원사업		일반지원사업	
사업수	평가지 제출	사업수	평가지 제출	사업수	평가지 제출
17	55	5	31	12	24

- 활동보고회
- 중간보고 및 결과보고
- 평가연구를 통한 발전방안 도출
- 활동보고회
  - 지원사업 활동 종료 후 사업단체와 모니터링단, 전문가가 교류하며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단체들은 타 단체와 교류하며 함께 사업추진을 논의하자는 약속을 하기도 하고, 심사위원,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등 단체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회로 활용함

(3) 2013년

- 2013년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의 방향은 지역 현실을 반영한 지역 특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문화예술 단체의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 이슈를 커뮤니티아트프로젝트로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상생협력지원사업의 확대 및 지역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심사관참여지원제도를 추진하여 문화예술 인력을 육성하고 문화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지원-육성-참여-평가’ 과정이 상호 연계성을 갖는 지역형 지원사업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였음

○ 지원규모

<표 19>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2013년 사업별 지원액

총지원액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		생활예술 창작지원사업	문화기획인력 양성지원사업
	일반지원사업	상생협력지원사업		
144,000,000원	47,000,000원	67,000,000원	18,500,000원	11,500,000원

○ 지원영역

- 확대 실시된 상생협력지원사업은 실제 커뮤니티 아트 프로그램의 실행과정에서 필요한 실무, 방법론 등을 강의를 통해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단체의 선도 아래 실제 현장에서 시민들과 부딪치며 겪는 다양한 경험들을 축적하고 단체 간 협력을 통해 상호발전을 기함

<표 20>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2013년 지원영역 및 규모

구분		내용	규모
우리 동네 예술 프로 젝트	일반 지원사업	예술공감대 확장을 위해 문화예술단체가 동네와 마을에서 실행하고자하는 예술프로젝트를 지원	단체협력프로젝트 최고1,000만원 단체단독프로젝트 최고5백만원
	상생협력 지원사업	단체 간 상호 보완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 이슈를 커뮤니티아트 프로젝트로 해결하고 이를 통해 지역, 단체가 상생 발전하는 프로젝트를 지원(지역단체 상호 인큐베이팅)	최고 2,500만원
생활예술 창작지원사업		시민의 창의성 향상 및 동아리 활성화, 동아리 간 관계성 형성을 위해 3개 이상의 동아리가 그룹을 형성하여 추진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최고5백만원
문화기획인력 양성지원사업		동네에서 실행하는 커뮤니티 아트프로젝트 기획인력 양성프로그램 지원 문화예술단체 기획력 전문화 및 사업수행 역량강화를 위한 인력양성프로그램 지원 수행단체 실무자를 중심으로 하여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지원	최고1,150만원

○ 지원 및 선정 현황

<표 21>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2013년 신청 및 지원건수

구 분	합 계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		생활예술 창작지원	문화기획인력 양성지원
		일반지원	상생협력지원		
신 청	45	31	5	7	2
선 정	18	10	3	4	1

- 선정사업
  -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
  - 일반지원사업

<표 22>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2013년 일반지원사업 선정 단체

연번	신청사업명	신청자	협력단체
		단체명	
1	장수사진 및 봉사활동	성남 여성 사진가회	수묵향기
2	우리마을 순회공연단 "시니어양상불 페스티벌"	그린아트양상불	
3	흥과 신명으로 소통하는 "중양통, 시장음악회"	우리소리연구회 "숫대"	
4	즐겁고 편안한 지하보도 만들기 -빛과 색의 길	이십육점구	그림언덕
5	나들이공원 문화예술 활성화사업 예술이 꽃피는 마을 "나의 살던 고향은"	마제스틱 청소년오케스트라	페르마타, 작은물소리, 아르페지오
6	사랑나누기 (다문화어린이 미술수업)	분당 수채화가 모임	
7	꿈을 그리는 어린 작가들	꿈을 키우는 양영어린이	
8	상희공원 가을 음악회	상희공원을사랑하는모임	고이상희대위기념사업회
9	성남오리뜰농악과 함께하는 "두레싸움한판"	사)한국농악 보존협회 성남지회	
10	태평4동 어린이 기자단 <한울신문>	한울어린이 기자단	

- 상생협력지원

<표 23>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2013년 기획지원사업 상생협력지원사업 선정단체

연번	신청사업명	신청자	협력단체
		단체명	
1	성호시장 활력 프로젝트 '성호 시장 인생 극장'	예술마당 시우터	문화숨, 성남 사자춤 연구회
2	수정남로 아트프로젝트 2	문화예술로 마을을 만들어가는 '동네쟁이'	스윙싱어즈, 우리음악 교육원, 늘미랑
3	다문화 가족과 함께 즐기는 "문화비빔밥 축제" -樂(악)歌(가)舞(무)예(禮)를 중심으로	분당사랑 A&C (경기청소년국악관현악단 단장 외 10팀 모임)	성남시수정구 민간어린이집연합회, 한국다문화가족연구소, 울림소리, 희망나눔재단

- 생활예술창작지원

<표 24>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2013년 기획지원사업 생활예술창작지원사업 선정단체

연번	신청사업명	신청자	협력단체	비고
		단체명		
1	성남문화예술 동아리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늘푸른챔버오케스트라	푸른초장브라스밴드, 파구스필 하모니오케스트라, 어울리오	
2	성남시 승격40주년 기념 오케스트라 연합공연	분당 청소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분당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첼로포니아, 늘푸른챔버오케스트라	
3	Classic in Cinema 클래식 인 씨네마	한국조이양상블	바이올린 플레이어, 성남씨네스트	
4	주민과 함께 하는 "국악으로 힐링 할까요?"	울림소리	국악의 메아리, 가야금 병창단 [미소]	포기
5	풍물굿패 두렁'풍물 난장'	풍물굿패 두렁	소리샘, 태평설장구, 태평2동 3동 주민센터 풍물반	추가 선정

- 문화기확인력양성지원사업

- 지역단체의 요구를 반영하여 기획력 전문화, 사업수행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기확인력양성사업을 지원하여 지역문화인력의 성장 및 이를 통한 성남문화예술지원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표 25>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2013년 기획지원/문화기확인력양성지원사업 선정단체

연번	신청사업명	신청자
		단체명
1	2013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시민문화기획자 양성 워크숍	사단법인 한국문화기획학교

○ 심사관참여지원제도

- 심사관참여지원제도는 심사를 담당한 심사위원이 선정된 프로젝트의 기간 동안 프로젝트와 단체를 맡아 사업 종료시까지 밀착 컨설팅을 수행하는 제도임
- 심사관은 본인이 담당하는 프로젝트의 주관단체와 협력단체의 회의, 행사에 참여하여 기획, 운영 활동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타 심사관과 회의를 통해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재단에 제출하게 됨
- 주관·협력단체는 심사관을 통해 유사한 성격의 다른 사례를 접하며,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점검·추진하고 향후 다른 사업과 연계 추진의 그림을 그려보며 본 제도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자 함
- 2013년 첫째 ‘수정남로아트프로젝트’, ‘성호시장인생극장’, ‘세계문화비빔축제’에 적용 시행하고 있음

○ 모니터링 및 평가연구

-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선정 단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지원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고, 모니터링단 교육을 통해 지역활동가로 발굴·육성하고자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성남문화재단의 모니터링은 2011, 12년 모니터로 활동한 모니터 요원이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2013년 지원사업에 지원, 선정되어 사업을 시행하는 기획자로 거듭나는 성과를 보이며, 진행 중에 있음
- 모니터링 요원 선발 및 교육, 운영
  - 모니터 : 공모, 인터뷰를 통한 10명 선발
  - 홍보지원 : 2명 선발(홍보전문가를 통한 교육, 보도자료 배포)
  - 교육 : 사전교육 3회, 특강 3회
  - 네트워크파티 : 5회(정보공유 및 지속적 활동을 위한 모니터링 요원 네트워크 강화)
  - 웹 카페 운영 : <http://cafe.naver.com/2012snca>(지속 운영)
- 지원사업 평가지표 재설계
- 설문지 재설계 및 설문조사 시행
- 현장평가 수행
- 활동보고회
- 중간보고 및 결과보고
- 평가연구를 통한 발전방안 도출

### 3) 평가

#### (1) 성과

- 경기문화재단에서 추진하던 문화예술지원 사업을 성남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홍보함으로써 지역 단체와 지역 작가들의 관심을 유도하였고, 적극 참여의 기회가 됨
-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추진으로 어린이에서 노인까지 다양한 계층 참여와 시민 단체에서 전문단체까지 다양한 분야의 활동으로 시민이 폭 넓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함. 주요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① 지역 내 타 기금지원사업과의 차별화를 통한 신규 지원영역의 창출과 공공성 제고
- 2011년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 성남시 문화예술지원사업은 크게 성남시가 주관하는 ‘성남시 문화예술발전기금사업’과 경기문화재단이 지원하는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이었음
- 두 사업은 모두 ‘문화예술활동지원’이라는 목적으로 추진되어왔으나, 예술가 및 단

- 체 지원, 동호회활동 지원 등 대상 및 지원내용이 중복, 유사한 점이 있어 각 사업 고유의 성격과 차별화된 지역영역이 명확하지 않았음
- 또한, 기금의 단순 분배 역할 성격이 강하여, 사업 성과가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대한 대응으로 경기문화재단의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이 지역협력형사업으로 성남문화재단으로 이관, 추진됨에 따라 기존 사업 추진방식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새로운 지원영역의 창출을 통해 지역 내 기금 관련 지원사업의 지원영역을 확대하고자 하였음
  - 성남시 문화예술발전기금 : 각 개별 예술가 및 단체의 창작활동 지원
  -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 문화예술을 통한 커뮤니티 형성과 발전을 위한 예술가 및 단체의 공공미술 지원
  - 기금지원사업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주요 기반으로 추진
- ② 지역 내 타 사업 및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사업성과를 제고하고자 노력
- 기존 기금지원사업이 단일 단체의 단일활동 대한 지원이었다면,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은 다양한 주체들과 연계, 협력을 통해 각 사업의 성과가 보다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함
  -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의 ‘수정남로 상권활성화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상인, 문화기획자, 예술가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각 사업이 기대하는 사업성과를 보다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감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지역 사회 내 계층의 교류와 협력을 도모함
- ③ 단순 기금 분배방식에서 벗어나 참여단체의 역량 강화, 문화활동가 육성, 신규 단체 발굴/육성 등 각 참여주체별로 다층적인 지원방식을 추진함
- 참여단체 역량 강화 프로그램
  - 활동보고회 개최
    - 사업 종료 후, 전체 사업 평가를 통해 우수사업의 추진방식 및 내용 등을 공유하고 전파하는 활동보고회를 실시
    - 이를 통해 사업 목적 및 성격을 명확히 하고 각 단체가 차기년도 사업 신청 시 보다 향상된 기획력과 실행방안을 강구토록 지원함
  - 집행정산설명회 개최
    - 기금사업 참여단체들은 그동안 예산집행, 결과보고, 정산 등 행정적 업무의 부담을 토로해 옴

- 성남문화재단은 공공재원에 대한 참여단체들의 공적인 책임의식을 살리면서, 또한 행정업무에 대한 의식적 부담감을 완화시키고자 선정단체들을 대상으로 예산의 사용 및 정산에 대한 상세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여 관련 세부 정보를 제공함
- 심사관 참여지원제도
  - 2013년 새로운 시도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책임심의관 제도’를 검토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전문 컨설팅 지원체계 마련
  - 기존에 심사위원은 단순 심사로 역할이 한정. 선정 사업의 성과에 대한 책임은 부족했음
  - 이를 개선하고자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통해 선정된 단체들을 사업 기간 동안 사업 현장을 방문, 또는 단체들과 회의를 통해 사업 성과가 보다 구체화되고 질적으로 높아질 수 있게 컨설팅을 실시
  - 이 과정을 통해 단체들은 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 취약부분에 대한 개선이 가능해질 수 있었음
- 신규 단체 육성 및 지역 문화활동가 육성 프로그램
  - 모니터링사업
    - 기존 또는 타 기금지원사업의 모니터링은 모니터링 모집과 모니터링 실시 등 단순 목적과 구조로 시행
    - 성남문화재단은 모니터링활동의 수준을 제고하고자 전문단체를 선정, 전문 모니터 교육과 활동가 육성프로그램을 사업 기간 중 장기간 지속적으로 실시함
    - 아울러, 모니터 참여자가 향후 지역 문화활동가 또는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후 사업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강의실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현장성을 높이고 실행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구조를 강화함
    - 실제 모니터 참여 시민이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성과가 있었음
  - 상생협력사업
    - 현재 지역 내 문화예술을 통한 커뮤니티활동 참여 작가 및 단체수는 한정
    - 향후 관련 영역에 역량 있는 신규 단체 발굴과 참여를 위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참여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
    - 단순 강의를 지양하고 현장 경험 축적 등의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 참여 단체와 협업체제로 시행. 사업 주관단체가 일종의 신규 단체를 인큐베이팅하는 방식으로 추진
  - 문화기획인력양성사업
    - 지역 내 공공미술 참여 단체 및 잠재 인력들의 문화기획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문화기획자 양성 프로그램을 2013년 실시



<표 26>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주요성과 정리(2011 ~ 2013)

연 번	성 과	주 요 내 용
1	지역 내 타 기금지원사업과의 차별화를 통한 신규 지원영역의 창출과 공공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 기금지원사업과 차별화</li> <li>● 기금지원사업의 공공성 및 예술의 사회적 가치 강화</li> </ul>
2	지역 내 타 사업 및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사업성과를 제고하고자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남시 상권활성화 재단 및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사업과 연계 추진</li> </ul>
3	단순 기금 분배방식에서 벗어나 각 참여주체별로 다층적인 지원방식을 추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사례의 공유 및 전파를 통한 지원단체 사업 개선 노력 동기 부여</li> <li>● 행정업무 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 및 세부 정보 제공</li> <li>● 심사관참여지원제도의 전문 컨설팅을 통한 단체 역량 강화</li> <li>● 상생협력지원사업을 통한 신규 단체 발굴 및 인큐베이팅</li> <li>● 체계적인 전문 모니터링 교육과 지원을 통한 지역문화활동가 발굴, 육성</li> <li>● 문화기획인력양성지원사업을 통한 지역 내 단체 및 시민의 문화기획력 제고</li> </ul>

(2) 문제점

-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의 목적은 예술의 생활화, 다양화를 통해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단체가 협력하여 동네에서 실행하는 문화예술사업을 위한 지원을 전제하고 있음. 그러나 추진과정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음

① 성남문화재단 추진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과의 중복성

- 이런 사업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마을미술 프로젝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공미술 2.0, 성남문화재단의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등과 유사성을 보이며, 중복 현상이 발생

<표 27>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

사업	내용	기관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목적: - 지역의 정체성과 특성을 기반으로 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민의 예술 향유 기회 제공 및 지역 활성화 기여 - 역사, 문화, 생태, 정서적으로 분명한 특색을 가진 지역의 거점과 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창조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미술 2.0	사업내용:	한국문화예술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공공미술 작품 활용·활성화 프로그램(투어,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li> <li>- 지역공동체 중심의 커뮤니티아트 프로그램</li> <li>- 공공미술 작품 설치프로그램 등</li> </ul>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p>1단계 실행내용:</p> <p>골목길, 아파트, 공단, 상가, 시장 등 유형별 마을만들기 시범 사업을 통해서 전국의 문화예술 작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성남시의 다섯 개 지역 주민과 함께 해당 동네를 문화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다채로운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를 실행하였음</p>	성남문화재단

-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사업 내용은 커뮤니티를 조건으로 하고 있고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도 커뮤니티를 강조하고 있으나 성남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에 대한 개념과 범위가 명확하지 못함
  - 예를 들면, 주민과 함께 만드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에서 작가는 주민과 2번 만나고 프로젝트를 완료하였는데 일회성 참여로 주민이 지역 공동체 일원이라 인식하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가졌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② 장기적 비전 및 목표, 지원계획의 구체화가 필요
- 2009년 ~ 2010년 경기문화재단의 사업 이전 추진이 이미 논의됨
  - 2011년 사업이 실제 추진되었으나, 기존 성남문화재단 생활예술 및 문화공동체 육성, 발전 정책 및 사업과의 연계성 방안은 부족했음
  - 이는 사업 성격이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과 중복, 유사한 주요 원인이 됨
- ③ 사업 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한 사업 참여자의 사업 이해 부족
- 2013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지원영역을 보면 크게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와 생활예술창작사업으로 나뉘고,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는 다시 일반지원사업과 상생협력지원사업으로 나뉘고, 일반지원사업은 단체협력프로젝트와 단체단독프로젝트로 나뉘어 있음
  -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은 4개 영역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이중 3개는 둘 이상 단체가 추진하는 협력 사업이고, 1개는 단체 단독 사업인데 이러한 구조적 나뉘임이 보는 이의 이해를 힘들게 하여 단체의 사업 이해와 신청에 장애가 됨
- ④ 예산 규모의 불확실성에 따른 장기적 전망의 안정적 사업 추진이 어려움
-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의 예산은 경기문화재단과 매칭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경기문화재단의 지원금 규모에 따라 전체 예산이 확정되는 예산 구조를 가짐

- 재단의 사업계획과 예산은 매년 8월에 확정되나, 경기문화재단 예산은 9월 이후 구성되어 8월 수립된 재단의 지원계획이 경기문화재단 지원금 규모에 따라 변경, 수정되는 문제가 발생
- 또한, 성남문화재단 사업예산도 12월 시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데, 이 역시 사업 예산규모 그리고 사업계획에 큰 영향을 주는 변수이기도 함
- 이러한 변수가 많은 사업 기획 단계구조는 실재 사업 실행과정과 기간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이에 따라 공고, 심사, 확정 기간을 제외하면 실재 사업은 5월부터 시작되어 약 6개월의 사업기간으로 한정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 또한, 전년도 모니터링사업을 통해 분석된 성과와 문제점들에 개선안이 차기년도 사업에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이기도 함



### Ⅲ. 국내외 사례 분석

#### 1.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 관련 사례

##### 1) 국내 마을만들기사업의 현재

###### (1) 지역, 마을만들기의 토양

- 많은 지역에서 저마다의 특성과 역량에 걸맞게 속도와 균형을 적절하게 유지하며, 지역의 마을만들기의 토양을 만들어왔음
- 일부지역의 고유한 경험과 성과는 다른 지역의 출발을 독려했으며, 때론 중앙정부의 마을만들기 정책을 견인하는 역할도 수행하였음
- 한편 중앙정부의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은 여러 한계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마을만들기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2) 지방자치단체, 마을만들기 시스템

-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를 위한 오랜 고민과 민관의 노력을 바탕으로 마을만들기 관련 자치조례 제정과 각종 지원사업 추진, 중간지원조직(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치 등 마을만들기 제도화를 통한 지역별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이러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아래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인력을 양성하는 등 독자적인 마을만들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음
- 한편 지역의 마을만들기는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및 지역현안에 적극 대응하며 계속해서 진화를 거듭하고 있음

#### [마을만들기 시스템 사례-1] 전북 진안군 마을만들기 시스템

##### ■ 외래형 개발전략의 한계에 따른『내발적 발전론』 도입

- 대표적인 오지 산촌, 전라북도 진안군
  - 단조로운 산업 기반, 열악한 교통 여건, 도시화에 따른 인구유출
  -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공공서비스의 악화, 생활공간기능 상실
- 내부의 위기와 외부의 위협
  - 용담댐의 건설(1990~2001)로 인한 1읍 5개면 68개 마을의 수몰과 인구 외부유출
  - WTO 체제 출범에 따른 농산물 시장 개방(1994)과 농촌경쟁력 저하 · 지역활력 상실
- 절망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다, 주민주도형 지역개발의 시작
  - 지방전임계약직의 채용(2000)과 민관 협치조직 “군정기획평가단” 신설(2001)
  - 주민주도의 상향식 마을가꾸기 사업의 시작 : “읍면지역개발사업” 추진(2001)

-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자산 활용과 내·외부와의 파트너십 구축

■ 지역과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역발전 방안 모색

- 주민주도 상향식 마을개발 :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아래로부터의 개발 지원
- 지역 리더의 육성 : 주민들이 자발적인 사업추진주체가 되기 위한 지원
-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 행정과 주민의 협의체 구성과 원활한 작동을 지원
- 계획 평가와 성과의 확산 : 선택과 집중에 따른 지원과 주변으로 파급효과 유도

■ 독자적인 마을만들기 시스템 구축 : 진안군 마을개발사업 “5단계 접근론”

- 사업규모를 기준으로 각종 사업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진안군만의 독자적인 주민주도 상향식 마을개발사업 시스템 구축
- 분산 추진되었던 마을 단위 사업의 단계화를 명시하고, 예산과 행정력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공모델 창출을 유도
- 행정 결재시스템에 상호협조 혹은 정보공유를 이루어지게 하여, 행정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하고 진안군 마을만들기 기본조례에 반영하여 운영



<그림 4> 진안군 마을개발사업 “5단계 접근론” 도식

출처: 진안군, “마을만들기 10년의 경험과 시스템(2011.12, 국토연구원)” 참조 재작성

■ 의의 :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 구축”

-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 정비
  - 행정전담팀 신설과 관련 업무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 행정운영 도모

- 지역 특성과 역량에 맞는 독자적인 행정사업 발굴과 적절한 외부 지원 활용
- 지역인재 양성, 지원그룹 조직, 민관 협력시스템 구축 등에 예산의 우선 투입

#### • 지속가능한 지역운영 시스템 구축

- 지역에서 자력으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자치조례 등) 마련
- 행정과 주민 사이를 이어주고, 부족한 전문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설립
- 기존 사업을 연계·통합하고, 지역자산을 활용하는 효율적인 예산운영 도모

### [마을만들기 시스템 사례-2]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사업시스템

#### ■ 도시개발정책에 대한 반성

- 신도시 조성,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에 의한 지역간 불균형 심화
- 문화재보호법 등 법적규제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과 주택가 및 주변상권의 쇠퇴 가속화
- 도시화, 양극화, 슬럼화 등에 따른 공동체의식의 상실

#### ■ 도시문제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정책 기조의 변화

- 민관협력 파트너십의 구축과 경제·사회·문화·예술·역사 등을 수렴한 총체적 관점에서의 도시접근
- 주민이 도시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강화
- 시민공동체 회복과 지역역량 강화, 지역의 자력수복형 재생활동을 위한 행정지원시스템 구축

#### ■ 수원 마을르네상스 사업체계의 구축

- 제도적 기반구축과 조직 구성 :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조직구성과 지원조례 제정
- 마을만들기추진단 신설, 좋은마을만들기위원회 발족, 수원시 마을르네상스센터 운영 등
- 지역사회 공론화 유도 : 연구토론회, 도시환경아카데미 등 진행
- 유형별 공모사업 지원 : 공동체 프로그램, 시설과 공간조성 사업 등

#### ■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만들기 운동으로의 발전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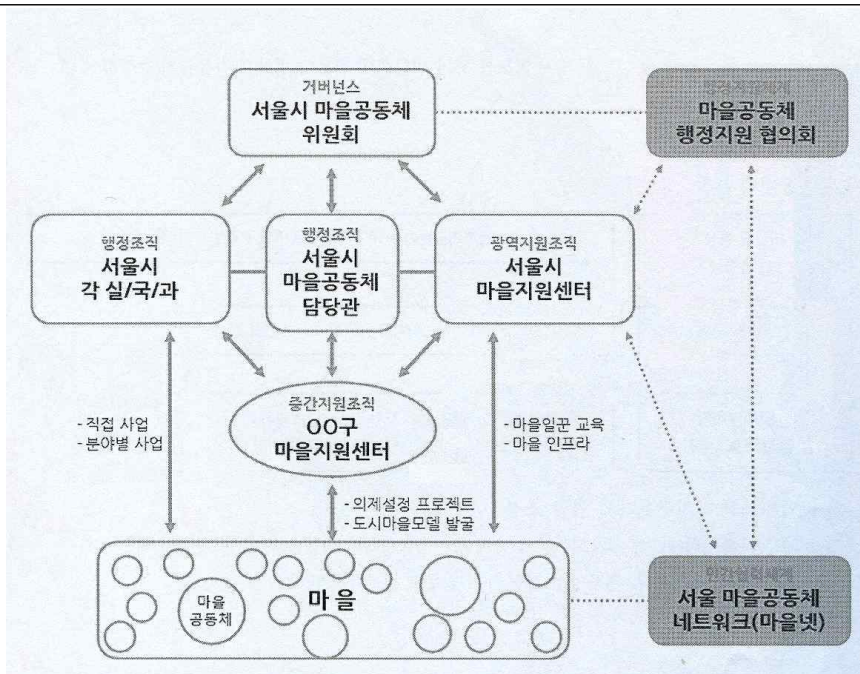
- 지역대학, 전문가 참여 : 주민과 함께 마을계획 및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오픈스튜디오 운영
- 지역 문화예술인의 참여 : 지역 작가, 예술가조직 등의 창작활동 지원과 마을만들기 활동 참여
- 자원봉사자의 참여 : 마을봉사센터 설치와 주민자원봉사자들의 나눔과 재능기부
- 지역시민단체의 참여 : 마을만들기 연구모임을 통한 경험과 노하우의 적극적인 수렴

<표 28>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단계별 추진전략(안) 도식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도입기반 확립기	추진동력 확보 및 제도 정착기	성숙 및 확산기
기간	2010. 7 ~ 2010. 12	2011. 1 ~ 2011. 12	2012. 1 ~ 지속
	장기적인 계획 추진을 위한 계획적 제도적 기반구축	마을인재 및 마을조직 육성을 통한 민간 주도마을만들기 추진	지역문화 공동체 운동의 정착 및 도시계획과 지역 재생·활성화 프로그램 추진
단계별 추진전략	<pre> graph LR     A[1단계 : 2011년 지역형 마을르네상스 지역 문화와 마을 공간을 새롭게 구성하는 지역형 마을르네상스] --- B[2단계 : 2012년 수원형 마을르네상스 21세기 도시문화의 역사를 창조적으로 만들어가는 수원형 마을르네상스] --- C[3단계 : 2013년 한국형 마을르네상스 대한민국의 도시개발과 도시재생의 롤 모델을 제시한 한국형 마을르네상스]           </pre>		

출처: 이근호, “시민을 주인되게 하는 마을만들기\_마을르네상스”(2012.05, 국토연구원 발표자료)“ 참조





<그림 6> 마을공동체 사업 거버넌스와 중간지원조직

서울시, “마을공동체 시민토론회 : 서울시 마을공동체의 비전 및 방향설정(2012.05)” 참조

### (3) 주민 주도 마을만들기 : 성미산마을<sup>3)</sup>

#### ① 형성과 발전

- 성미산마을공동체는 공동육아 중심의 대안공동체에서 출발해서 현재의 모습에 이르고 있음
- 성미산마을공동체의 형성과 발전과정은 크게 네 단계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주요 계기와 그것을 통한 모임, 조직 결성, 과정과 의미 등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육아공동체에서 출발해서 지역사회와의 소통 시기: 1994~2001

<표 30> 성미산마을공동체 발전 초기 과정(1994 ~ 2001)

시기	주요계기	모임·조직 결성	과정·의미
1994	공동육아에 대한 요구	공동육아협동조합(1994) (우리어린이집)	조합원들의 고민 공유
1996 - 1999	공동육아 1세대 어린이들의 초등학교 입학	방과후교실(도토리방과후)설립(1996) 날으는어린이집(1996) 풀잎새방과후(1999)	아이들의 성장에 따른 지역사회와의 관계인식
1999 - 2001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	두레생활협동조합(2001)	

3) 성미산마을사례는 성미산마을축제 감독인 남동훈 연출가 ‘사랑방문화클럽 발전방안 연구’에 제출한 원고 중 일부를 실음

- 성미산지킴이 운동을 통한 확장: 2001~2007

**<표 31> 성미산마을공동체 발전 확장 과정(2001 ~ 2007)**

시기	주요 계기	모임.조직 결성	과정.의미
2001 - 2003	서울시의 성미산 배수지. 아파트 공사 계획 및 서울시 공사 유보 결정	1차 성미산지킴이 운동 제1회 성미산마을축제(2001.6) 성미산을 지키는 주민연대 <sup>4)</sup> (2001.7)	-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결합 - '성미산마을'이라는 사회적 명칭 부여 - 조합원들의 활동영역 확장
2003 - 2007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일상적 욕구 분출과 소통의 확장	교육.경제.환경.복지. 정치 등 다양한 모임. 조직 결성	대안학교 설립 협동조합의 확산 마을기업의 출범
	독립적으로 발생한 조직.모임 등을 연계하고 공동체의 체계를 수립할 필요성	사단법인 사람과 마을(2007)	건설교통부 마을만들기 프로젝트 지원

- 성미산지킴이 ; 동아리 활동을 통한 활발한 문화예술적 소통: 2007~현재

**<표 32> 성미산마을공동체 동아리활동 발전 과정(2007 ~ 현재)**

시기	주요계기	모임.조직 결성	과정. 의미
2007 - 현재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자기표현과 관심공유에 대한 욕구	다양한 문화예술동아리 및 소모임 결성	- 성미산마을축제를 계기로 급성장 - 축제를 통한 소통과 공감의 장 공유

- 마을공동체 문화예술활동의 확장: 2009~현재

**<표 33> 성미산마을공동체 문화예술활동의 확장 과정(2009 ~ 현재)**

시기	주요계기	모임.조직 결성	과정. 의미
2009 - 현재	마을공동체 문화예술 활동의 거점 공간 및 지역과의 소통 공간 필요	성미산마을극장(2009)	- 4개 시민단체 마을입성 -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 기업 지원

## ② 형성과 발전

- 이상에서 살펴본 성미산마을공동체 형성 및 발전과정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음
  - 주민들의 자발적 욕구와 관심 : 적극적 주체의 형성
  - 공통의 관심사. 공동체의 이슈 : 소통과 공감을 통한 합의 도출
  - 자율적 시도에 의한 모임 결성 : 마을활동가의 경험
  - 관계망을 통한 유기적 발전 : 구성원의 공유와 연대를 통한 사회적 확장

4) 성미산을 지키는 주민연대는 생협, 공동육아협동조합 외에 성만교회, 성림사, 신체조교실, 건우회, 나무회, 성미향우회, 성산향우회, 체조교실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와 모임이 참여했음(<대안적 마을 공동체에 있어서 축제의 의미와 기능>, 송지선,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③ 형성과 발전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미산마을의 조직들은 처음부터 마을에 대한 전체적인 상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계획, 구성된 것은 아님
- 오히려 사람들의 필요와 관심사에 따라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개별영역과 조직들이 관계망에 의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마을공동체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그리고 이와 같은 시도들은 지역사회 주민들, 그리고 대안적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호응을 얻으며, 마을공동체가 확장, 발전하는데 기여하게 됨

### ④ 성미산마을이 지향하는 마을 상

- 행복한 지역공동체 : 오래도록 살고 싶은 고향마을
- 아름다운 생태마을 :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추구하는 도시 속 생태마을
- 소통과 교류의 문화예술마을 : 스스로 생산하는 문화, 지역민과 향유하는 문화
- 호혜적 지역경제 : 인적, 물적, 역사적 자원의 호혜적 선순환 마을경제
- 생애주기 고려한 평생교육 :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는 마을 배움공동체
- 사회적 돌봄 : 주민참여와 협동에 의한 상호돌봄의 실현
- 주민자치 : 주민과 행정의 능동적 협력을 통한 주민자치의 실현

## 2) 마을만들기를 둘러싼 여건변화

### (1) 새로운 주체의 ‘등장’과 사업의 다양화

- 문화예술단체, 네트워크조직, 청년혁신기업가, 여성, 시니어, 청소년 등 다양한 사람들이 마을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마을만들기의 대응분야와 내용, 방법 등이 다양해지고 있음
- 지역사회에서 마을만들기가 다원화되는 양상으로 인해 운동적 차원에 머물던 마을만들기가 다양한 일상활동과 연계되는 유의미성을 획득하게 되었지만, 일부에서는 마을만들기의 역사성 회복이 필요한 시기로 판단하고 있음

### (2) 마을만들기 행정, ‘성숙과 진화’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부정책에 선행해서 마을만들기 전담팀을 조직하고 흩어져있는 부처별, 부서별 유사중복사업을 통합 연계하여 재원운용과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 실제로 지역간 연계협력사업 추진, 참여주체간 네트워킹을 통해 사업실행효과를 제

고하는 한편, 평생학습, 주민참여예산제 등과의 연계를 통해 열악한 재원운용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3) 중앙정부, 다시금 ‘마을’에 주목

-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현장과 밀착되고, 주민과 지자체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
- 부처별로 마을 단위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활성화하기 위한 법률을 새롭게 제정하고, 각종 정책과 지원제도 정비

### (4) 지역현장, 기대에서 ‘우려’로

-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각종 공공지원책이 작동을 앞둔 상황에서 오랫동안 지역현장에서 마을만들기를 실천해왔던 사람들에게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지금의 속도는 지난 2000년대 중반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는 말은 행정주도형 마을만들기가 성과주의와 전례주의에 다시금 귀착해버릴지 모를 우려이며, 다른 한편 당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민간부문의 비판에 대한 목소리임

## 3) 중앙정부 마을만들기 정책의 공통이슈

### (1) 법률 제정

- 안행부 “지역공동체 활성화법”, 농림부 “농촌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법”, 국토부 “도시재생 특별법”, 문화부 “지역문화진흥법” 등 마을만들기와 직간접적으로 연계가 있는 법률을 신규 제정하고 있음
- 지역 단위의 마을공동체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법적 성격의 법률을 신규 제정 중이거나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음<sup>5)</sup>

〈표 34〉 중앙정부 마을만들기 관련 법률(2013.9 현재)

구분	안전행정부 지역공동체 활성화법(안)	농식품부 농촌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법(안)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법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법(안)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공동체사업 및 마을 기업의 기반시설 지원</li> <li>● 지역통합, 균형발전, 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마을계획 수립하여 시행 촉진</li> <li>●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감소, 지역경제 침체,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지역에 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안) :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지역고유의 문화창조력 강화, 지역</li> </ul>

5) <마을만들기 이슈페이퍼 : 중앙정부의 마을만들기 정책동향-1>, 류태희,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 2013

	방자치 실현을 통한 주민 행복 증진	계 관한 사항 규정	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 시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주민의 문화향수권 신장도(안) : 지역문화발전 기반조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화공동체 형성
체계	5장 24개조	5장 21개조	6장 33개조	이병석(안) 20개조 도종환(안) 23개조
추진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안부 지방행정실 지역 활성화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운석 국회의원 외 13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부 도시재생과 서병수의원 등 34인(2012.7)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양승조 등 11인) ※ 구도심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주선 등 15인) ※ 도시재생에 관한 특별법안(안민석 등 10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병석 의원(안) / 도종환 의원(안) (2013.2 법안 비교검토) ※ 2006.5 아광철 등 31인 국회의원 최초 발의</li> </ul>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체계</li> <li>· 지역공동체활성화자문위원회</li> <li>· 지역공동체활성화기획단</li> <li>· 지역공동체 중앙지원센터 : 한국지방행정연구원</li> <li>· 공동체 진단지표</li> <li>● 지역공동체 활성화 계획 수립</li> <li>· 수립주체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li> <li>●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li> <li>· 지원사업의 신청·선정</li> <li>· 지역공동체사업에 대한 지원</li> <li>· 마을기업의 지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마을만들기계획 수립과 지원(2장)</li> <li>● 농촌마을만들기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li> <li>● 농촌마을만들기계획(요청 및 반영)</li> <li>● 농촌마을 진단 및 마을계획 시행 지원</li> <li>● 농촌마을만들기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3장)</li> <li>· 농촌개발전문자격제도(농촌개발컨설턴트/ 농촌퍼실리테이터)</li> <li>● 농촌마을만들기 지원체계(4장)</li> <li>· 기본계획수립(주체: 장관)</li> <li>· 활성화계획수립(주체 : 지자체)</li> <li>· 조직(전담부서/지원센터/농촌마을만들기진흥원)</li> <li>· 기금의 설치 및 운영</li> <li>· 농촌지역개발공간정보시스템</li> <li>· 농촌재능기부/농촌사회공헌인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체계</li> <li>· 국가가 국가 도시재생전략인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제시하고, 주민·지자체·지역전문가 등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각종 H/W 및 S/W 사업을 종합한 재생계획 수립</li> <li>● 추진조직</li> <li>·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 컨설팅 등 주민 재생역량 지원을 위해 ‘도시재생지원기구(중앙)’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지방)’ 설치</li> <li>● 공공지원</li> <li>· 국가·지자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고, 규제 특례 지원</li> <li>● 시범사업</li> <li>·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선도 지역으로 지정하여 예산 및 인력을 우선적으로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문화진흥계획의 수립</li> <li>·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li> <li>· 문화인력 양성, 문화프로그램 및 지역문화시설의 운영 활성화 등</li> <li>●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규정</li> <li>· 지역주민의 문화예술활동 지원</li> <li>· 지역 문화시설의 확충 및 운영활성화</li> <li>·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지원</li> <li>· 지역문화실태조사</li> <li>· 지역문화인력의 양성</li> <li>● 문화도시의 지정 및 지원</li> <li>·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문화도시 지정 및 계획수립,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li> <li>● 도(안) : 지역문화재단 및 한국지역문화진흥원의 설립,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소규모 지역주민 밀착형 복합문화공간 활성화, 문화지구 지정·관리</li> </ul>

## (2)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 중앙정부는 ‘여전히 부족한’ 지역역량을 강화하고, 각종 마을공동체 활동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 등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부처별 유사중복사업들을 통합한 ‘지역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강조하고 있음

## (3) 시범사업 추진

- 예산한계를 감안하여 ‘공모형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목표를 구현하는 동시에, 해당 정책을 검증·보완
- 공정한 지역선정,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부처별 정책파트너를 통해 지역실태, 예상성과, 평가제도 등에 대한 개량연구 진행

## (4) 지원체계 구축

- 사업의 총괄 조정·관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를 중앙에 설치하고, 지자체 단위의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운영을 지원하여, 유연한 ‘정책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공공과 민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각종 정보와 교육 프로그램, 컨설팅 기능 등을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종합정보시스템’ 개발

# 4) 우려와 쟁점 사항

## (1) 마을·마을정책·마을사업의 재생산

- 중앙정부는 지역여건 및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중앙주도의 정책대응의 한계를 인식하고, ‘주민생활체감형 + 현장과 밀착된 + 주민과 지자체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자율적인 지역발전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사업실행의 최소단위로 서 마을(근린생활권)에 주목
- 그러나 부처별·부서별로 ‘마을’을 정량화·표준화하고, 조작적으로 정의함으로써 ‘마을’은 여러 공간적·내용적 범주가 만들어지고 있음
- 또한 각종 시민단체, 예술가조직, 전문가 등 다양한 마을만들기 참여주체가 각자의 마을을 재정의하거나 주장함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정작 주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을 이해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정책개념은 살아있는 마을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담아내는 데에 한계를 가짐
- 오래전부터 마을만들기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 활동가 및 전문가들은 마을만들기의

근본적인 역사성을 복원할 필요를 인식하고 있으며, 그 대안의 하나로 한국 마을만들기의 역사 정리작업을 준비하고 있음

## ■ [개념 비교 사례] 마을만들기의 개념 비교⑥

### □ 한국의 마을만들기 개념

- 한국의 마을만들기 개념은 아직 제도적으로나 학술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아 정의하기가 쉽지 않음
- 최근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마을만들기 조례”라는 제도적 틀 속에서 마을만들기가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그 개념을 파악해 봄
- 마을만들기와 관련하여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그 정의를 보면 다음 표와 같음

마을만들기 용어	마을만들기 정의	관련 사례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함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12.3 시행)
좋은 마을만들기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살기 좋은 공동체로 만들고자 교육, 문화, 복지, 환경, 경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함.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11.5 시행)
마을만들기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의 전통과 특성·자원 등을 고려한 주거환경개선, 경관, 교육, 문화, 복지, 환경, 일자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함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12.8 시행)
마을만들기	“마을별로 가지고 있는 개성과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아름답고,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더불어 잘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모든 활동”을 말함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07.10 시행)
마을만들기	“주민 스스로가 스스로의 발상으로 자기 마을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으로써 소득과 경관,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분야를 포괄함	진안군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기본조례(10.5 시행)

### □ 일본의 마을만들기 개념

- 일본의 마을만들기는 다양한 목적과 여러 분야에서 전개되고 있어 학술적으로 통일되거나 단일 개념으로 정의하기는 쉽지가 않음
- 그러나, 마을만들기가 기본적으로 주민의 삶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정의를 예로 들어보고자 함
- 마을만들기란 “특정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행정과 전문가, 각종 중간지원조직, 민간섹터 등이 연계하여 진행하는 물리적/비물리적인 것들이 일체가 된 주거환경의 향상을 지향하는 활동의 총체”라고 정의할 수 있음)
- 한편, 일본은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많은 제도(조례)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 제도상의 정의를 통해 마을만들기 개념을 정의해 볼 수 있는데, 일본의 마을만들기 제도속에서의 마을만들기 개념을 보면 다음 표와 같음

마을만들기 용어	마을만들기 정의	관련 사례
마을만들기 사업	“마을만들기사업”란 “세타가야구내에서 시가지의 정비, 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업”을 말함 ※ 마을만들기에 관한 별도의 용어 정의는 없음	도쿄도 세타가야구 마을만들기조례(1995.3)
풍경만들기	“지역의 개성이 넘치는 세타가야다운 풍경을 지키고 가꾸고 만드는 것”을 말함	세타가야구 풍경만들기조례(1999.3)
가구재편 마을만들기	“가구마다 일체성을 유지하면서 부지통합, 좁은도로 확폭, 미이용저이용토지의 일체적 개발 등 시가지를 재편하여 개성이 넘치고 매력있는 시가지를 형성하는 것”을 말함	도쿄도 세련된 시가지(街並み)만들기 추진조례(2003.3)
시가지경관 만들기	“시가지(街並み)경관을 보전하거나 수복하거나 창조하는 것”을 말함	도쿄도 세련된 시가지만들기 추진조례(2003.3)
복지마을 만들기	“장애자고령자 등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활동의 참여를 촉진하고, 모든 사람이 상호 교류협력하여 복지도시 실현을 위하여 하는 모든 환경정비”를 말함	삿포로시 복지마을만들기 조례(2007.12)
범죄없는 안전하고 안심하는 지역만들기	“도민이나 사업자, 관계단체 등에 의해 범죄 방지를 위한 자주적인 활동, 도시정촌 및 도민 등에 의한 범죄의 방지에 배려한 생활환경 정비나 기타 범죄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말함	홋카이도 범죄없는 안전하고 안심하는 지역만들기조례(1998.12)
방재도시 만들기	“진재를 예방하고 진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확대를 막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시설 등에 대해 내진성 및 내화성을 확보하는 조치나 기타 도시구조의 개선에 관한 조치”를 말함	도쿄도 진재대책 조례(2000.12.22 제정)

## (2)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들

- 부처간 성과주의와 칸막이 행정에 따른 법률간·사업간 충돌, 경쟁심화에 따른 지속 가능한 자원 확보 및 조달의 구조
- 한편 이러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함
- 도시 및 마을, 공동체에 대한 전문가들의 성찰적인 시각에 대한 문제
- 마을만들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법률이 부재한 상황에서 시범도시사업 및 부처별 정책사업으로 추진

### ■ [중앙정부 대응체계 사례] 공모형 시범사업

#### □ 개요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중앙정부부처별로 다양한 공모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지역에서는 관련 조직체계의 구축·운영, 조례제정, 가이드라인 운영, 독자적인 사업 추진 등으로 대응하고 있음

6) 문체, 마을만들기 제도의 운영특성 및 향후 운영방향, 2012, 국토연구원 내부자료 참조

7) 佐藤滋(1999), 『まちづくりの科学』, 鹿島出版会



- 대표적인 정부주도의 공모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문화역사마을가꾸기 시범사업, 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 문화로 아름답고 행복한 학교만들기 사업,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 등), 안전행정부(신활력사업[초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간판개선 시범사업, 동네마당조성사업[현 희망마을만들기 사업], 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등), 농림수산식품부(신활력사업 등), 국토교통부(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등) 등이 있으며, 성과와 의의,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음

#### □ 정부주도 공모사업의 성과

- 공간의 디자인 수준 제고
  - 쇠퇴한 공간의 잠재력 발굴로 지역의 장소가치 향상
  - 도시 및 문화환경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군단위 지역의 삶의 질 향상
- 지역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하는 참여형 장소만들기 실현
  - 주민참여를 전제로 하는 상향식 사업추진을 통한 주민참여 인식 확산
  - 지역차원의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계기 마련
- 지역주도의 지속적인 공간개선의 기폭제 역할
  - 정부차원 공모사업 선정의 근거로 한 재원확보 용이
  - 지자체 공공사업 관리체계 개선 및 종합적인 디자인정책 추진기반 마련

#### □ 정부주도 공모사업의 과제

- 성과물 위주의 보여주식 사업 추진
  -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지역 및 장소 특성에 대한 고려 부족
  - 외형 디자인에 편중된 사업추진과 사업성격에 적합한 업체선정 미흡
  - > 기획과정의 내실화와 사업특성에 적합한 발주방식 선정
- 사업간 차별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시설사업 예산확보의 어려움
  - 사업대상 및 목표의 사업간 차별화 미흡으로 인한 사업간 통폐합 문제 제기
  - 계획수립 지자체에 대한 시설사업 예산의 효율적 지원체계 미흡
  - > 종합적 마스터플랜에 기반한 사업·예산의 연계 및 역할 분담
- 사업성과에 대한 성과관리 미흡
  - 사업결과 평가에 편중된 성과관리
  - 사업지원체계의 형식적 운영
  - > 개별사업의 단편적 성과보다는 사업을 통한 지역역량 강화에 초점

### (3)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설계

- 사업간 통합추진을 저해하는 규제 완화, 현행 포괄보조금 운영상의 문제점, 마을만들기 인력에 대한 적정대우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에는 대응 미흡
- 기존사업 재평가를 통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려는 의지는 부족하고, 새롭게 공모형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 가이드라인(지침), 매뉴얼 북, 평가지표 등이 해당 사업별로 양산되나, 현장에서의 실제 활용도는 떨어지고, 실무부담은 가중됨

#### (4) 정부주도형 지원체계 구축

- 지역의 재량권과 창의성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표준화·정량화된 지표와 행정 시달된 조례는 ‘사업’의 운영·관리가 우선
- 지역특성, 행정역량, 지역의 속도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지역의 독자적 마을만들기 시스템을 재편할 우려 발생
- 정책목표 변경, 사업종료 등에 따라 지원이 종료되는 한시적 운영구조
- 지식과 정보의 공정한 공유체계 구축 및 접근용이성 확보 등은 미흡

**<표 35> 광역지자체 마을만들기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b>주민</b>	· 인식부족, 참여부담(생계), 주민일부의 의견수렴(협의 불충분)에 따른 중도포기 · 한정적 사업추진, 행정의존성 고착, 정산보고서 등 행정처리 능력 미흡, 1주체 1사업으로 참여제한에 따른 주민조직 분화·개별조직 역량부족 등
<b>행정</b>	· 주민자치센터별 주민지원에 대한 편차 발생, 행정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 관련부서와의 협의와 연계 부족 등
<b>전문가 (중간지원조직)</b>	· 일회성 자문의 한계, 현장경험 부족으로 주민갈등, 지역전문가 부족 등
<b>사업내용</b>	· 주민숙원사업 해결, 조경·축제 등에 대한 한정된 아이템 편중, 일회성 행사 중심, 일회성 소모적 대여비 비율이 높음 등
<b>지원체계</b>	· 단기사업 지원, 사업선정과정의 논의 지속성 확보 어려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예산지원 어려움, 주민요구에 수동적으로 대응, 교육프로그램과 공모사업간 연계 부족, 주민간 교류부족 등
<b>기타</b>	· 지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공모사업 등 정비사업계획 중심의 마을만들기 진행 · 지역 커뮤니티 육성을 위한 마을만들기의 실천적 방안 부재 : 마을만들기의 최종 목표는 만들기가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임을 주지함에도 별도의 지역 커뮤니티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만들기 주체로 등장하는 것보다 마을만들기 사업추진과정에서 육성되고 있음

※ 자료 출처 : <경기마을넷·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 마을만들기전국대회 토론내용, 2013

### 5) 소결 : 향후 지역의 대응과제

#### (1) 다양한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등장과 역할 강화

- 상기와 같이 우리사회 마을만들기와 관련한 여건변화 및 정책현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 마을만들기의 대응과제를 도출하고, 성남문화재단에서도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탐색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의제21, YMCA 등에서 의제(agenda) 중심 및 지역사회운동의 일환에서 다양한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협소한 인식은 지역문화재단이 주요한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으로 활동하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 보다 주민중심·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및 합의된 비전을 형성하는 한편, 다양한 지역 내 지원조직간의 연대·협력을 통해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2) 지자체 마을만들기 행정의 실무자역량 및 통합조정기능 강화

- 중앙정부의 통합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마을만들기의 실행력을 높이고, 지역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 ‘마을만들기 행정’은 정책환경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공공지원 프로그램을 창의적으로 통합 연계하여, ‘마을단위’에 구현해야 함

### ■ [지방정부 통합대응 사례] 수원시 마을만들기<sup>8)</sup>

#### □ 커뮤니티재생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수원 마을르네상스 사업은 생태환경, 역사문화 등 마을별로 특색 있는 마을만들기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참여형의 시민이 주인 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마을만들기 공감대 조성 및 제도 기반 구축, 민간주도 마을만들기 추진본부 및 지원센터 설치, 마을만들기 인재·조직의 육성과 성숙·확산 등을 목표로 마을르네상스 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2010년 마을르네상스 관련 자치조례를 제정하고 행정조직을 신설함

#### □ 마을만들기 사업의 연계·통합 도모

- 마을만들기는 지역공동체의 자생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공모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재정확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중요한 바, 수원시는 중앙부처 공모사업과 수원 마을르네상스사업을 연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르네상스추진단과 르네상스센터는 중앙부처의 사업을 유지하여 통합연계하여 실행할 계획을 구상함
- 중앙부처 공모사업의 최근 경향을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간과 행정부문의 역할을 설정하는 것과 더불어, 각 부처별 공모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 및 관리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또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105개 중앙부처 공모사업 중 32개 사업을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도출하였고, 수원시에 적용 가능한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마을조사 교육·체험 사업,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 문화예술마을 사업, 골목경제마을 사업, 돌봄마을 사업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음<sup>9)</sup>

<표 36> 수원시 마을만들기 관련 중앙부처 지원사업 유형별 조사

구분	공모사업명	중앙부처명	유형분류
1	희망마을만들기 사업	행정안전부	마을조사 교육·체험
2	지자체 한옥건축 지원사업	국토해양부	

3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행정안전부	저탄소 녹색마을
4	시청각 영어도서관 시범 조성	문화관광부	
5	친환경생활공간 조성사업	행정안전부	
6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국토해양부	
7	지역기반 U-서비스(RFID음식쓰레기 관리)	환경부	
8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9	이야기 문화생태 탐방로	문화체육관광부	
10	방축도 천년 야생초마을 조성	행정안전부	
11	소하천정비사업(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	소방방재청	
12	지역농업특성화사업	농촌진흥청	
13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산림청	
14	전통 마을숲 복원사업	산림청	
15	관광특구활성화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마을
16	운동장생활체육시설	문화체육관광부	
17	농어촌복합체육시설	문화체육관광부	
18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과	문화체육관광부	
19	레저스포츠클럽 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	
20	지역사회거점 네트워크 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	
21	광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문화체육관광부	
22	2011방학예술캠프 지원센터	문화체육관광부	
23	지방과학문화시설 확충	교육과학기술부	
24	전통시장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중소기업청	골목경제마을
25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고용노동부	
26	참살이실습터 지정사업	중소기업청	
27	농촌여성일자리사업	여성가족부	
28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추가지원사업	고용노동부	
29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건복지부	돌봄마을
30	소외계층 사회문화 예술교육	문화체육관광부	
31	저소득층 밀집지역 안전환경 개선사업	행정안전부	
32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봄비	보건복지부	

- 한편 마을르네상스사업과의 통합 연계 방안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공모사업, 자체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마을만들기 사업이 부처·부서를 초월해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을만들기 예산확보 및 시범마을 지정으로 강력한 행정력에 따른 성공적인 마을만들기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 또한 중앙부처 공모사업의 성격에 맞는 적합한 사업을 도출하여 연계 추진하고 개별 지구의 부족한 예산사업비를 충당하는 한편 유사중복사업에 따른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아래와 같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용 가능한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을 도출하고 수원 마을르네상스 실천 계획 사업유형 중 하드웨어 측면의 사업 위주로 재정리하여, 실천계획 38개 하드웨어 사업 중 중앙 공모사업과 연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유효사업 18개를 도출하였음<sup>10)</sup>

**<표 37> 수원시 수원 르네상스사업과의 정부지원사업의 연계계획**

유형분류		중앙부처 공모사업	수원 마을르네상스 사업
하드웨어	마을조사 교육체험	희망마을만들기 사업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버드네마을 조성
			탐동 좋은마을만들기 사업 추진계획
			생기있고 활력이 넘치는 화서마을 만들기

	저탄소 녹색마을	친환경생활공간 조성사업	그린파킹마을 조성사업
			정겨운 마을마당 조성사업
			자연 친화적인 저탄소 그린마을만들기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매탄동 매탄4지구 중심상가 내 미관광장 정비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	오감만족 둘레길 만들기
		이야기 문화생태 탐방로	화서마을 환경보존지역 관리
			테마가 있는 “방죽머리 올레길” 조성
		소하천정비사업	우리동네 걷고싶은 황구지천 만들기
	문화예술 마을	관광특구활성화사업	파장골 맛고을 마을만들기
			테마가 함께하는 가구 특화거리 조성
		골목경제 마을	전통시장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활력 넘치는 느림보타운 조성		
	돌봄마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자원봉사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

- 한편 마을만들기 행정 공무원은 실무적인 역량을 개발·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공공부문에 지원하는 일반적인 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지역단위 마을만들기 관련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마을만들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실무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학습을 유도하는 것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 [실무공무원 역량강화 사례] 마을만들기 네트워크<sup>11)</sup>

##### □ 배경

- 마을만들기 행정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서 인재개발원 및 외부교육기관 교육, 전문가특강 및 현장답사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이 병행되고 있음에도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음
- 지자체 단체장이나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의식변화가 지역 마을만들기를 추동할 것이라는 생각도, 행정협의 회를 운영하고 기획조정기능을 강화하여 통합적인 마을사업 추진하는 것도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
- 중앙정부에서도 행정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오프라인에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해당사업의 운영관리에 국한되거나 사업종료와 함께 해체되어버리는 문제점이 드러남
- 실제로 실무 담당 공무원의 근본적인 의식변화를 동반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그러한 의식변화로 인해 해당 공무원이 영속적인 업무로 가져가지 않고서는 마을행정운영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우며, 지금과 같 이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실무자는 스스로 의식변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고사하고 마을에 대한 생 각과 고민을 전개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임
-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담당행정은 행정논리와 잣대를 통해 지역에 축적된 소중한 마을만들기 경험적·기술적 자산과 마을공동체의 기록들을 적절한 비용 지불 없이 확보·활용하는 윤리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며, 공공 지원사업의 유치경쟁에 매몰되고 부서별로 개별적인 마을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시행착오를 반복할 우려를 가짐

8) <커뮤니티재생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제도의 통합적 운용방안 연구>, 이왕건, 류태희 외, 국토연구원, 2012

9) 수원시 내부자료, 2012

10) 상동

□ 전략

-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마을행정의 특이성을 감안한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과 함께 실무 공무원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예를 들어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에서 시험 운영하였던 '(가칭) 공무원 네트워크'는 실무자로서의 창의성이 제한되고 제도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유사한 고민을 가진 여러 지역의 실무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교류·소통하는 장임
- 전국 여러 지역에서 모인 실무자는 행정가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시민이자 마을주민으로서 마을만들기를 바라보고, 다른 지역의 경험과 노하우, 나아가 마을만들기 철학과 가치관, 행정의 바람직한 역할까지 공유하게 되며, 이러한 계기를 통해 한 사람의 공무원은 마을만들기 주체로서 삶 전체를 대안적 형태로 재구성하고, 타 부서로 옮기더라도 해당부서의 사업을 마을지향적인 행정을 통해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자연스럽게 축적함

마을만들기사업의 추진과정상에서 행정 공무원은 스스로 교육과 학습을 통해 자기만의 '마을만들기 철학과 가치관'을 세우는 것에 노력해야 하며, 마을만들기를 단순한 행정업무로 접근한다면 주민간의 불신을 심화시키는 사태를 초래한다. 공무원들은 스스로 공부·학습하는 모임(예 : 진안군 그루터기, 국제 민관공동연수 등)에 참여하고 주민과의 신뢰관계를 만드는 일에 집중하여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사업추진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마을만들기의 활성화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행정주체의 통합적 사고가 매우 중요한 바, 여러 부서 담당공무원이 참여하는 자율적인 학습모임을 통해 상호업무를 이해함으로써 통합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수립 및 사업실행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마을만들기 담당공무원 네트워크, 진안군(2013.8.3))

(3)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체계 구축과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정립

-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과 운영시스템은 설립배경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하나, 공통적으로 행정과 민간, 민간과 민간의 중재자(intermediation)이자 참여주체의 부족한 역량을 지원·육성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촉진자(boost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sup>12)</sup>
- 타율적 변화와 외부이식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민간부문의 정책대응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폴뿌리 마을만들기의 철학과 역사성’, 오랫동안 가꾸고 쌓아온 ‘고유한 마을만들기의 경험과 지혜’를 정책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해야 함
- 또한 시민참여행정을 지원하며 마을만들기의 실행을 위한 사회문화적 인프라를 다지는 것에 주력해야 함. 이는 기 운영중인 관설민영의 지원센터가 행정사업의 대행기능이라는 현상적 한계를 탈피하여, 합의된 지역미션과 시민사회 내 다양한 참여그룹을 만들어 내고 지역 커뮤니티를 재조직화하는 것을 우선해야 하는 것을 의미함
- 향후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은 지역 마을만들기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역 참여주체 간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촉진하고, 지역기반의 민간그룹들과 네트워크를 보다 촘촘히 형성하는 한편, 스스로 태동하는 소그룹들을 어떻게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지원·육성할 것인지에 대해 다각도로 고민해 나가야 함

11) <전환기의 마을만들기, 결핍은 네트워크로 메운다>, 수원시 한일 마을만들기 정책발표 및 토론회, 류태희, 2013

12) <민관학 연계의 도시 및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 UDCK>, 류태희, 국토연구원 월간국토, 2013

## ■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모형 사례] 현행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역할 및 유형

### □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의 제정 목적(지역별로 상이)

- 주민자치 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 통합과 주민 스스로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마을 만들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 □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역할(지역별로 상이)

-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과 시행
- 마을단체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 마을단체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
- 마을단체와 관련단체 네트워크 사업
- 마을단체 일꾼 발굴과 육성
- 마을만들기 관련 교육·홍보·전파
- 마을만들기 자원관리
-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 □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유형

<표 38>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유형

구분	관 주도형	민관협력형	민간주도형
설립주체	행정	행정	민간
운영주체	행정	민간단체(입찰, 수의계약)	민간단체
상근자	공무원	민간인	민간인
사업제원	행정재원	행정재원, 독립재원	독립재원
업무자율성	각종규제 업무분장에 의한 행정	교섭능력 중요 행정과과의 교섭력 강화	자율 창의적 활동 가능
재정조달	안정	불안정	불안정
강점	재정 안정성에 의한 운영의 지속성 가능	행정과 민간 운영의 장점 모두 보유	시민의 주체성 강화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주도형의 전략할 가능성 높음</li> <li>● 업무분장에 의한 행정지원으로 업무의 전문성 및 책임감 결여 가능성 높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사업에 의존할 가능성 높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능력 상실에 의한 경영부실 초래가능성 높음</li> </ul>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신용도 높음</li> <li>● 안정적 재정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비, 기금, 자체사업 등의 활동에 의한 재정안정성 확보</li> <li>● 시민주도형 운영으로 전환도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장 이상적인 민간자립형 운영 시스템</li> <li>● 높은 경영능력 동시에 필요</li> </ul>

## 6) 성남지역 마을만들기 추진현황

### (1) 민간부문의 마을만들기 추진현황

- 성남시 행정에서 지역 단위에서 마을만들기에 대한 개념과 체계 정립을 통한 사업 실행 경험이 없는 반면, 민간영역에서는 성남YMCA, 성남민예총 등의 지역 NGO그룹들의 실천들과 성남문화재단의 ‘우리동네사업’, 성남의제21 마을사업 지원의 경험 등을 통해 성남지역의 마을만들기의 도입과 실천과정에 관여하고 있음
-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는 마을의제 작성, 참여, 실천을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를 추진을 모색하고 있으며, 성남의제21 산하 분과위원회인 마을만들기위원회에서는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초록마을대학<sup>13)</sup> 공모사업 등과 관련하여 단대논골 지원을 확정하는 등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성남YMCA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주민자치위원 교육 및 실천사업, 주민자치박람회 등을 진행하여 주민자치센터를 매개로 주민자치위원회와 시민단체, 지방정부가 협력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 마을 만들기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과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최근에는 성남시 사회적경제센터를 비롯하여 주민교회 신흥, 주민생협, 맹산자연학교, 의료생협, 한 살림, 성남YMCA 생협 등 각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사회적경제와 마을만들기와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있음
- 그러나 각개약진하는 마을만들기는 재원운용, 전문성, 지속가능한 사업실행 등에 따른 한계에 봉착하는 상황이며,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2) 성남시 마을만들기 행정의 추진현황

- 성남시 마을만들기 행정은 조사연구를 통해 성남형 마을만들기 추진계획으로서 ‘2013년 행복마을만들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성남의 마을만들기 추진체계는 마을만들기 제도화(조례제정, 종합계획 수립 등), 단계별 사업추진(기반조성→사업추진·정착→성숙·확산), 지원체계구축(행정협의체, 추진단, 위원회 운영, 지원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 등)을 핵심으로 함
- 2012년도에는 마을커뮤니티 문화 조성(마을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등), 마을씨앗 육성을 위한 마을교육(행복마을리더 아카데미 등), 마을만들기 거버넌스 구축 및 마을네트워크 조성(행복마을만들기 추진지원단 운영, 온라인 카페 운영 등)을 추진하였음

13) 경기도 및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광역의제)에서는 경기지역 내 마을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및 에너지를 주제로 마을주민 학습과정과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초록마을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민(民)·관(官), 광역(도)과 기초(시군)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초한 주민주도 친환경마을만들기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서 에너지 절약과 쓰레기 제로를 주제로 선정마을과 함께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있는 도시형·농촌형 마을의 에너지 절약과 쓰레기 제로·자원순환 모델을 발굴하고 주민활동을 통한 관련 정책과제개발을 모색하는 것임



- 2013년도 마을리더 및 공직자 교육프로그램과 소액공모사업 등을 운영하였으며, 사업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을 위한 행정기반 조성, 중간매개조직 육성 및 네트워킹, 주민 및 공무원 대상의 역량강화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 (3) 시사점

- 성남문화재단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이하 우리동네사업)’ 사업의 경험과 성과가 문화예술 영역을 넘어, 성남시 도시·마을정책에 유효하게 활용하고 향후 발전적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함

#### ① 마을만들기 관련 정책 및 지역대응 동향

- 마을만들기 정책동향 및 전국적인 현황분석을 살펴보면 ‘마을지향행정’은 지속가능한 도시만들기 및 생활자치 구현을 위해 필수적이며, 선행해서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서 지역특성 및 현안에 대응하는 독자적인 마을만들기 시스템을 구축하고 참여주체별 역할을 정립하고 있음

#### ② 마을만들기 행정의 역할 정립

- 향후 성남시는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의 실현을 위해 행정부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사회적 경제 등의 실천영역과 보다 촘촘히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러한 마을만들기 참여주체의 활동을 후방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 ③ 성남형 마을만들기 시스템 모색

- 또한, 지역여건에 따라 마을만들기의 개념과 철학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지역특성 반영, 지역현안과 밀착, 현행 마을만들기 지역자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통해 성남형 마을만들기를 구현해나가야 함

#### ④ 성남지역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성남문화재단의 역할 모색

- 주민이 주인이 되는 성남시 마을만들기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성남문화재단은 기존의 활동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 및 지역사회와의 신뢰관계, 문화 인프라 등을 마을만들기 자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하며, 성남의 핵심적인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이자 우리사회 마을만들기의 발전을 위한 촉진자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해야 함

## 2.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관련 사례

### 1) 국내 사례

#### (1) 국내 커뮤니티아트 현황

- 국내 커뮤니티 아트의 현황을 살피기 위해서는 그 전단계로서 새 장르 공공미술의 형태로 진행되었던 참여정부 시기(2003~2008)의 공공미술과 그 이후로 구분해서 살펴야 함.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야 함으로 기본적인 흐름만 적시하기로 함
- 문화민주주의에 기반하였으나 첫 공공미술 사업의 형태는 ‘소외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미술사업(2006~2007)’으로 등장함
- 그 이전의 단계가 ‘미술가를 위한 공공미술’, ‘건축 속의 미술’에 한정되는 것이었다면, 최근의 공공미술은 ‘공공장소 속의 미술’, ‘도시재생을 위한 공공미술’, ‘새 장르 공공미술’의 형태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임

<표 39> 우리나라 공공미술의 발전과정

단계	사업명
1 단계	미술가를 위한 공공미술
2 단계	건축 속의 미술
3 단계	공공장소 속의 미술
4 단계	도시재생을 위한 공공미술
5 단계	새 장르 공공미술

- 현재, 커뮤니티 아트는 <5단계 : 새 장르 공공미술>의 개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며, 거기에 ‘두레 정신’과 ‘또랑 광대론’이 혼용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음
- 국내 커뮤니티 아트의 최근 현황은 최근 경기도미술관과 대전시립미술관 대전창작센터, 금천예술공장이 아카이브 전시로 보여주었던 <2012 경기아트프로젝트-동네미술>전, <프로젝트 리뷰 2011>전, <2012 전국 창작공간 네트워크 프로젝트-그 ‘거리(distance)’의 창의적 자세>전의 주요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를 기본으로 하되, 그 외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를 추가하여 작성함

#### (2) 국내 커뮤니티아트 주요 사례

##### ① 작가 주도형

○ 허태원 기획, 금천공동정원 프로젝트, 2011 (경기)

- 금천예술공장의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되어 진행된 프로젝트임
- 작가가 상수동에서 진행했던 <여기에 꽃을 심어도 될까요?>를 금천구의 지역 문화적 특성에 맞게 변형한 작업임
- 2011년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금천예술공장 근방의 독산파출소, 범안로 17길과 금천예술공장 내 정원에서 수행되었고, 약 485명이 참여했음
- 범안로 17길 17-17은 일명 ‘가영이 정원’ 으로 다세대 주택의 옥상에서 벌어진 정원가꾸기 프로젝트였음. 초등학생 가영이와 그의 친구들 그리고 어머니들이 함께 참여하여 가영이네 옥상정원에 꽃을 심었고 주위 분들도 배란다나 창을 통해 가영이네 정원을 즐기도록 함
- 독산파출소 앞 정원은 금천구 진도아파트 옆의 실재 독산파출소 앞의 자투리 정원을 파출소근무자, 이웃경로당 어른들, 지나는 행인, 근처 세탁소 손님들과 함께 가꾼 이야기임. 쓸모없는 것으로 여겼던 장소가 예쁜 정원으로 재탄생한 이야기
- 금천예술공장 소망정원은 예술공장 주위의 양복공장, 와이셔츠 공장, 자동차 정비공장 등지에서 일하는 분들이 각자의 소망을 적은 꽃 화분을 예술공장에 놓아두는 프로젝트였음

\* 누리집 : [http://blog.naver.com/sas\\_g?Redirect=Log&logNo=10128465952](http://blog.naver.com/sas_g?Redirect=Log&logNo=10128465952)

○ 박이창식 예술감독, 포천 도롱이집 이주 프로젝트, 2009~2013 (경기+금천)

- 경기도 포천의 수물지역에서 5년 여 기간 동안 진행된 지역 레지던시형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임
- 수물지역의 교동마을이 프로젝트의 거점 공간이었음. 교동마을은 예부터 도롱농이 많아서 생긴 이름. 한탄강 댐이 건설되면서 32가구가 살았던 마을이 수물지로 확정되면서 이주가 결정됨
- 박이창식과 예술그룹 스포치 작가들은 이곳에서 수물지역 마을의 빈집을 활용해 마을아카이브를 시작했고, 이를 바탕으로 새마을에서의 마을박물관 개념을 확장시킴. 특히 교동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집 한 채를 통째로 해체 복원시키는 이주프로젝트를 전개함
- 2012년 10월 15일 도롱이 집 해체 작업이 시작되었고 2013년 11월 22일 새 집이 완료되었음. 이 과정에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작가들에 의해 다양한 예술작업들이 생산되었음

\* 누리집 : <http://cafe.naver.com/spacegong/>

○ 김월식 예술감독, 인계시장 프로젝트, 2011 (경기+대전+금천)

-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나혜석 거리에 위치한 영성빌딩 4층, 5층을 개조해 4층은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의 창작공장으로 사용하고 5층은 작가 레지던시 공간으로

사용한 프로젝트임(\*참고로 이곳은 안마시술소가 있었던 공간임)

- 예술생산에서 소비까지를 레지던시로 풀었던 ‘인계시장 프로젝트’는 시장에서 진행된 프로젝트가 아니라 ‘아트마켓형’ 프로젝트였음
- 작가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주변 동네를 돌며 사람들이 버린 다종다양한 사물들을 취향에 맞게 채집한 뒤, 이를 작업실로 옮겨 예술적 작업으로 재생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창작공장은 늘 열려 있으며, 관객 참여자들과 부담 없이 만날 수 있고, 생산된 예술 작품들은 토요일마다 나혜석 거리에서 작은 축제와 더불어 아트마켓을 형성함. 지역사회와 예술가, 미술시장과 예술난장이 섞인 매우 특이하고 흥미로운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라 할 것임

\* 누리집 : <http://cafe.naver.com/muni2/4>

- 공공미술 프리즘 기획, 달리는 버스 프로젝트, 2006~2012 (경기)
  - 현대인들이 출퇴근, 이동 시간에 이용하게 되는 버스라는 일상적인 시공간에 다양한 작품을 놓아두어 쉼, 여유, 말 걸기를 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임
  - 서울과 경기를 순환하는 광역버스 2200번이 그 주인공임
  - 버스 운행노선은 파주시 맥금동→영어마을→헤이리→파주 출판단지→파주 프리미엄 아울렛→대화역→백석역→합정역
  - 프리즘은 2200번 버스 내 좌석 커버나 바닥, 손잡이 등에 기존의 버스에 있는 것들과 달리 예상치 못한 그림들을 배치함으로써 그 작은 공간들을 예술 공간으로 바꾸어 놓는 실험을 시도해 옴
  - 그러나 그 과정은 예술가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참여자들을 작가로 참여시킴으로써 문화민주주의의 미학을 실현시키고 있음
  - 2013년에는 ‘핑크리본 버스 프로젝트-콜라보레이션 편’을 기획함

\* 누리집 : <http://www.free-zoom.com/walk/walk3.htm?id=walk3>

- 홍보람, 마음의 지도 프로젝트, 2006~2011 (대전)
  - 홍보람의 ‘마음의 지도’는 크게 두 가지 작업으로 이뤄짐. 첫째는 커다란 마음의 지도이며, 둘째는 내게 가장 소중한 장소임
  - 커다란 마음의 지도는 마음속으로 지금 여기까지의 여정을 더듬어 생각해 보고, 커다란 지도를 함께 그리는 관객참여 작업임. 각자 서로 다른 길을 통해 지금 여기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환기하게 됨
  - 내게 가장 소중한 장소는 참여자에게 가장 소중한 장소를 묻고, 그 곳에 찾아가는 지도를 받는 것으로 시작함. 이후 그 장소를 실제로 찾아가 그곳에서 만난 사람에게 그 장소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 참여자의 마음을 전함. 소중한 장소를 떠올리며 갖게 되는 마음의 기쁨을, 다른 한편으로는 뜻밖에 맞이하는 작은 행복을 기대하

는 공동작업임

- 작업이 끝난 뒤, 작가는 참여자와 지도, 장소와 사람, 그 과정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선물로 보내지게 됨
- 그동안 진행된 프로젝트로 <마음의 지도-홍대와 대학로>(2006), <마음의 지도-인천>(2007), <마음의 지도-제주 서귀포시>(2009), <마음의 지도-제주 강정마을>(2011) 등이 있음

\* 누리집 : <http://valley.egloos.com/viewer/?url=http://hongboram.egloos.com/3527450>

### (3) 국내 커뮤니티 아트の問題點

- 국내 커뮤니티 아트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함. 그러나 지금까지 커뮤니티 아트 분석을 위한 원칙이 별도로 있지 않았으므로 새 장르 공공미술의 평가를 위한 아래의 세 원칙을 적용해 보기로 함
- 새 장르 공공미술 평가를 위한 세 원칙에서 공공미술의 유형은 1)타자 중심 2)주체 중심 3)상호주관성을 나뉨. 이러한 구도는 커뮤니티 아트 유형 구분에서도 비교적 큰 부담 없이 적용할 수 있을 것임

<표 40> 새 장르 공공미술 평가를 위한 세 가지 원칙

상호성의 유형	공공미술의 유형		언어적 차원	비언적 차원 (행위 및 정서)
1. 비대칭	1) 타자 중심		호서, 절규, 거절 등과 같이 발화수반(illocution)적 의미를 가지므로 소통행위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각종 표현들.	‘아직’ 발화수반의 의미를 획득하지 ‘못한’ 표현들과 신의 폭력(예술의 정치화)
	2) 주체 중심	2)-① 치료적	치료적 대화	행동주의적 치료
		2)-② 조작적	전략적 대화, 명령, 강제	과시적 공공성, 전시행정, 선전정치(정치의 예술화)
2. 대칭	3) 상호주관성		의사소통, 논변	놀이 또는 게임

- 커뮤니티 아트の問題點은 상호성의 유형에서 비대칭일 때 자주 발생함. 즉, 타자 중심이거나 주체 중심일 때,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성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음
- 이러한 문제는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에의 참여방식과 관객의 유형으로도 나타나는데, 이 부분 또한 새 장르 공공미술의 사례를 비교해서 살펴 볼 수 있을 것임

<표 41> 공공미술 참여방식과 관객의 유형

공공미술 개입자  공공미술 수용자	면대면 상호작용					매체를 통한 상호작용	
	타자중심적 태도	주체적심적- 치료적 태도	주체중심적- 조직적 태도	상호주관적 태도		매개된 상호작용	매개된 유사 상호작용
요청과 저항자	○	×	×	×	매체 정보 수용 전략  1)저항 2)절충 3)대립  → ←		
협업과 공동개발자	△	△	×	○			
자원봉사자와 행위자	△	○	×	○			
관찰자적 수용자	△	○	×	○			
미디어를 통한 수용자						○	○
신화와 기억 속의 관객		○	○	○		○	○

(○=정상효과, △=부수효과, ×=불가능한 효과). ○는 수용자에 대해 시행자가 전적으로 취해야 할 주된 활동을 의미하며, △는 부분적으로 취해야할 부수적 활동을 의미함

- <표 16>에서 살필 수 있듯이 면대면 상호작용에서 정상효과를 가장 많이 드러내는 지형은 ‘상호주관적 태도’ 일 때임.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의 문제점은 그러니까 상호주관적이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것임을 알 수 있음
- 커뮤니티 아트의 활동은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가진 일련의 예술적 활동을 통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창의성을 적극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창조적 기능을 가짐. 심리적 만족감 고양, 감수성 교육, 정신적 가치 추구하고 비판적 사고의 함양, 타인에 대한 배려심 고취 등이 그것임. 그러므로 예술가 주체와 참여 주체 간의 상호주관성에 입각한 소통이 문제해결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을 것임

#### 상호주관적 공공미술 또는 커뮤니티 아트에 대하여

- 이해지향적이고 대칭적 의사소통행위가 일어나는 이곳에서 대화 상대자들은 서로 평등하고 자유로움
- 여기서 공공미술 개입자는 특권의식이나 권위의식 없이 자신의 작업에 타자를 평등하게 참여시킬 수 있어야 하고, 비평가 역시 작업의 완성도를 넘어서 어떤 식의 참여와 어떤 공공성을 창출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작업해야 함
- 그뿐만 아니라 관람객 역시 ‘객’이 아니라 참여자의 태도를 취할 수 있어야 함
- 이 공공성은 평등하고 자유로운 참여가 보장된 채 진행되는 공공성이라 할 수 있음.

■ 커뮤니티 아트와 사례와 진단, 문제점(신문기사 부분발췌)

# 안마시술소를 공방으로?

· 최근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유흥가에서는 작가들이 애써 만든 ‘아트 공방’ 하나가 조용히 사라졌다. ‘인계시장 프로젝트’ 라는 이름 아래 이곳 옛 안마시술소 건물에서 석달 여간 등지를 틀었던 재 활용 예술작품 공방이 지난달 24일 문을 닫은 것. 공공미술 작가 김월식(42)씨가 6월18일부터 건물을 ‘생활문화예술재생레지던시’ 공간으로 바꾸면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건물 4층과 5층을 작업실과 갤러리, 작가 숙소, 미술시장으로 꾸며 주민들에게 개방했다. 10개팀 작가 11명은 방마다 개성 있는 공방 간판을 걸고 버려진 술병이나 가구 등을 재활용한 작품을 만들어 팔아왔다. 평단과 작가들 사이에서 한국 커뮤니티 아트의 모범으로 손꼽히기도 했지만, 운영난을 겪으면서 공방은 활력을 잃고 작가들은 철수해야만 했다.

· 지역 공동체의 삶과 직접 연관된 이슈를 소통하며 작가와 주민이 함께 작업하는 커뮤니티 아트는 최근 2~3년 사이 공공미술의 새 패러다임으로 주목받아왔다. 그러나 이런 사례들에서 보이듯 성과 이면에는 근본 역량의 한계 또한 뚜렷해 보인다. 인계시장 프로젝트를 벌였던 작가 김월식씨는 “자금난 탓도 있지만 예술가들의 운영이 미숙했고, 치밀한 사전준비도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지속가능한 예술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털어놓았다.

· 현재 국내에서 커뮤니티 아트 작업은 도시마케팅, 도심재생, 재래시장 활성화, 문화 이모작 등의 명분을 내걸고 전국의 도시와 지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사업의 목적도 도시개발(창의도시프로젝트), 지역·경제 활성화(문전성시프로젝트), 지역재생(부산 또따또까), 커뮤니티 활성화(사랑방클럽, 논아트 발아트)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양적 측면에서 성과를 거둔 것처럼 보이지만,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문화 속에 작가들의 작업이 뿌리를 내렸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참가 작가들이 현장에서 인식하는 공공미술 개념의 혼란, 해당 지자체·지역 주민과의 인식 격차 등으로 프로젝트가 지속되지 못하고 뼈격거리는 한계도 보인다. 실제로 최근 경기문화재단 지원으로 경기도 남양주시 광릉 숲 둘레 마을에서 작가들이 벌인 ‘논아트 발아트’ 프로젝트는 사유지 하천 기슭에 작품 공작소와 발 공원을 만들려다 점유권을 내세운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작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 커뮤니티 아트를 비롯한 공공미술이 주민들과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는 배경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작가와 주민, 지자체 사이에 지역 현안이나 일상 생활에 대한 사전 교감이 부족하고, 작업 지향점 등이 현지 실정에 맞게 정립되지 않은 탓이라는 지적을 내놓는다. 미술평론가 김종길씨는 “소통을 앞세우는 커뮤니티 아트는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대중과 공감대를 모으기

쉽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보기에 아름다운 기존 미술 작품을 기대하는 지자체나 주민들에게 작업이 낯설게 비칠 수 있는 만큼 실제로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작가들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자발적인 주민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한겨레, 2011.10.27. 정상영 기자

#### (4) 국내 커뮤니티아트 모범 사례

- 면대면 상호작용을 통한 상호주관성이 적절하게 구현된 모범적인 커뮤니티 아트의 사례는 가장 최근의 사례보다는 초기 단계의 커뮤니티 아트에서 찾아 볼 수 있음.
- 그 첫 번째 사례는 충남 공주시 근방의 원골 마을에서 개최고 있는 <예술과 마을>임. 두 번째 사례는 강원도 원주에서 기획된 <숲과 마을 미술축전>임

##### ① 예술과 마을

- 정의 : 충남 공주시 신봉면 동원리 1구 원골에서 열리는 마을예술제임
- 개설 : <예술과 마을>은 자연미술의 시원적 형태라 할 수 있는 민중의 숨씨와 예술가의 예술이 만나는 접점을 시도하여 “농즉예(農卽藝) 예즉농(藝卽農)”이라는 관점을 실현했음. <예술과 마을>은 농민과 예술가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이질적 주체 간의 교류를 통한 상호이해의 장이 됨은 물론, 국내 최초로 농촌마을에서 이루어진 미술행사의 새로운 원형이라 할 수 있음. 농촌의 한 마을에서 주민들과 예술가들이 한데 모여 창출해 낸 진정한 의미의 민중미학이라고 할 수 있음
- 연원 및 활동 : 1993년 공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자연미술가협회 야투 그룹의 회원을 비롯한 이상진·박봉기·반연희·문병탁 등 부산 지역의 청년 미술가들이 공주시 신봉면 동원리 원골의 자연 환경 속에서 주민들과 함께 예술적 표현을 시도한 것이 단초였음
  - 제1회 <예술과 마을>전은 1993년 12월 개최되었음. 행사는 ‘예술과 원골’이라는 이름으로 부산을 비롯한 경남의 청년 작가, 한국자연미술가협회 야투, 그룹 열넷과 묶음, 원골 동리회가 모여 설치전과 함께 자연미술 심포지엄을 열었음. 1994년 1월에는 부산의 다다갤러리에서 자료와 실내 설치전으로 전시되어 소개되었음. <예술과 마을>은 예술문화와 농경문화의 교류를 목적으로 미술작가들과 마을주민들이 제작한 미술작품을 전시하고, 예술 공연, 민속놀이 시연 등의 축제를 벌이는 정례적인 예술제로 마을주민들이 미술작품 제작에 동참하면서 시골마을에서는 유래가 없는 자연예술축제로 발전하였음
- 활동내용 : 마을주민들과 초대작가는 마을에서 구할 수 있는 사물이나 자연물의 재료를 이용해 한 두 점씩의 작품을 만들어 마을현장에 설치하는 미술제를 개최함. 부대행사로는 노인들을 위한 경로잔치, 원골 출향 인사를 위한 만남의 날 행사, 총행사 개막식을 위한 <예술과 마을>전 행위예술 공연, 사물놀이 및 민속놀이 시연, 초대작가의 농촌 일손 돕기와 마을답사, <예술과 마을>전 세미나 등이 열림
- 현황 : 1998년 8월과 1999년 8월에는 한국자연미술가협회 야투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후원으로 “예술과 마을, 마을과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기획, 자연미술적 방법론으로 예술제를 개최하기도 했음

- 2000년부터는 원골의 주민운영위원회가 주최가 되어 작가와 학생들을 초대하여 <예술과 마을>을 연례행사로 개최하고 있음. 제12회 <예술과 마을>은 2008년 7월~8월 원골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개최되었음. “예술이 곧 농사고 농사가 곧 예술”이라는 주제로 농사가 진정한 의미의 자연, 대지, 생태 예술임과 동시에 농민은 자연생명예술가임을 선언하고 주민들 간의 새로운 유대감과 삶의 활력을 얻는 축제로 진행되었음

☞ <예술과 마을>의 시사점 : 예술가와 농촌 마을 주민들이 더불어 함께 예술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고, 특히 지금은 마을 주민운영위원회가 주최가 되어 기획하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임.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로 이 마을에 들어가 살면서 자연미술의 미학을 삶으로 살았던 야투의 창립 주창자 임동식 작가가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함. 그의 미학적 헌신에 의해 이 프로젝트는 한 마을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음

☞ 야투의 창립을 주도했던 임동식은 1993년 봄에 원골로 입주해 “감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터에 맨손으로 손수 지은 작업장 25평. 터 잡기부터 시작해 건물골조-지붕공사, 벽면처리, 내장공사, 배수로-화단공사, 땀이나 쥐에 대한 신경 쓰기-여름에 모기, 파리 대책, 겨울의 온돌방에 매일 군불 때기, 즉 인간생존의 1차 문제를 공부” 했으며, 생활일기를 남겼음

☞ 그의 이런 삶은 「농경문화와 예술문화의 합생 ‘마을과 예술’ 새로운 예술이념」에 투영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예술과 마을’ 은,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왔으며, 자연 가운데서 살다가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예로부터의 사상을 재확인하며, 예술에 있어서 농경문화와 자연미술을 합생 시키려는 노력의 큰 서장을 연다. 즉, 농사는 천하의 근본이며, 농사가 예술이며 예술이 곧 농사임을 선언함과 동시에 수천, 수백 년 이래 산과 물 등 풍수조화에 적응하여 터를 일구어 이루어진 ‘농촌마을’ 을 살아있는 자연예술로 확인하며 그 인간적 분위기를 예찬한다. 또한 농민들에 의해 전래되어 온 풍습 등 문화적 사항, 즉 미술, 음악, 무용 등 주민들의 숨은 예술적 소양에 대한 발표의 장을 마련하여 사라져 가는 마을문화를 복원시키며, 주민 스스로가 자연미술 출품작가로 나서 그들 자신이 이미 자연미술가였음을 확인하는 대 장을 연다.”

## ② ‘숲과 마을’ 미술축전

- 개요 : 1980년대 미술동인 두령의 김봉준 등 20여명의 민중미술 계열 작가들이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진발마을 주민들과 함께 벌이는 생태미술축제임. 2000년부터 시작했고, 생태공동체 문화 살리기 지역축제 표방함
- 내용 : 진발마을은 산 좋고 인심 좋은 두메산골 작은 마을로 산과 구릉이 70% 이상을 차지하며 대대로 내려오는 두메산골의 마을문화가 서려 있음. 숲과 마을은 문

막 원주 인근지역 미술인들의 미술전시행사로 미술의 지역성과 자연 친화성을 생각 하는 뜻에서 행사를 갖게 됨

- 진발마을은 숲과 마을이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온 마을로 산들이 빼곡히 따 리를 틀고 있는 곳임. 그야말로 문명보다 숲이 가까운 자연 친화적인 마을임. 미술 인들이 진발마을에서 미술과 놀이로 주민과 함께 축제를 벌이는 것은 농사와 예술 이 몸과 마음 서로 살림에 근본이라는 사실을 삶의 거처로 확인하고 싶어서임
- 진발마을 일대에서 미술공개작업(워크숍)과 장승깎기, 마을 민예품 설치, 주민얼굴 그리기 행사를 하며, 마을회관·수풍일대에서 장승 별신제, 등불밝히기 길놀이, 다 함께 노래자랑, 도예 현장실습, 숲과 마을 그리기 가족사생대회, 가마불축제가 열 림. 미술의 집 산아리 공개 및 관람을 비롯해 미술의 집 산아리에서 가마불축제 (노천가마 페스티벌), 두레문화 살리기 주민대화의 시간도 마련됨

☞ <‘숲과 마을’ 미술축제>의 시사점 : 예술을 통한 생태공동체 문화 살리기를 표방하고 있으며, 예술가와 마을 주민들이 우호적 관계에서 마을의 축제로 발전시켰다는 점에 주목 해야 함. 이 또한 예술주체와 참여주체 간의 적극적인 상호주관성이 형성된 사례라 할 것 임

## 2) 해외 사례

### (1) 해외 커뮤니티아트 현황

- 영국 예술위원회는 1970년대 초에 커뮤니티 아트를 최초로 연구 조사한 기관임
-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974년 보고서 ‘Working Party Report’ 로 공표하였으며, 1975년 영국 예술위원회 산하에 커뮤니티 아트 위원회를 설립함.
-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커뮤니티 아트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예술위원회에 커뮤니티 아트에 대한 예술지원금 지원 결정을 권고하였으며, 위원회는 1975~76년의 시 범기간 동안 커뮤니티 활동과 관련하여 150,000파운드의 재정을 지원함
- 이후, 영국은 사회적 필요성과 시대의 요구를 고려한 다양한 커뮤니티 아트 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모두를 위한 예술 프로그램’을 모토로 예술향유능력개발, 예 술활동 참여 능력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미국 커뮤니티 아트는 1960년대 민권운동과 실천주의 예술운동의 직접적인 산물이 지만, 1960년대 민권운동의 바탕에는 세계대전의 경험이 있음. 인종이나 사회적 신 분과 상관없이 누구나 미국의 가치를 수효하는 동등한 일원으로서의 경험을 갖게 된 것임
- 이러한 자각은 곧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강력한 운동이 되었고 흑인운

동, 여성운동을 비롯해서 각 민족에 바탕을 둔 다양한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음.  
미국의 커뮤니티 아트는 바로 이러한 운동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고 발전함

### 영국 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

- 1946년 국가가 개입하여 예술 지원을 시작한 최초의 공공기관
- 전쟁 이후 경제 재건기였던 1950년대에는 예술 지원금의 전체규모가 미약했음
- 영국 경제가 호황을 누리면서 대중들의 생활이 안정기에 접어든 1960년대부터 정부의 예술지원금이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함
- 늘어난 예술 재정으로 중앙과 지역에 아트센터, 갤러리, 공연장 등이 설립됨

#### ① 영국, 매직 미의 <Our Generations>

##### ○ 목표

- 첫째, 참여자와 동료들이 합의한 목적과 의미에 토대를 두고 만들어 갈 것
- 둘째,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장소의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성장시킬 것
- 셋째, 참여자들을 도전의식, 호기심, 자신감 그리고 위기해결 능력을 고양시킬 것
- 넷째,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기념할 만한 시간을 창조하는 것
- 다섯째, 스스로 그룹의 성취를 인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

##### ○ 매직 미의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 ‘OG’

- ‘OG’는 커뮤니티의 발전과 개인의 성장을 동시에 도모하는 매직 미의 대표 프로젝트임
- 이 프로젝트는 19개의 지구로 구성되어 있고, 인구 2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런던 동부의 행정구역 타워 햄릿 지역에서 2006년 4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진행함
- 프로젝트 참여자 나이는 0~5세 62명, 5~11세 145명, 12~17세 102명, 18~19세 41명, 20~24세 64명, 25~64세 316명, 65~74세 11명, 75세 이상 161명이었음. 성별로는 여성 참여자가 619명, 남성 참여자가 382명임
- 흑인, 백인, 유대인, 아시아계 등 다양한 인종과 영국인, 방글라데시인 등 다양한 국적의 구성원이 참여함
- 이 프로젝트는 9개의 세부 프로그램, 416개의 워크숍, 14개의 교육, 18개의 이벤트, 12개의 전시, 4개의 퍼포먼스, 부대 행사 등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음

##### ○ ‘OG’ 보호시설 연계 프로그램

- 보호시설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기획함
- 거주자와 초등학생이 인생의 특별한 순간들을 인형극, 음악, 드라마, 이야기로 재구성하는 프로그램을 하거나, 프로그램 참여자들 인생의 모험들을 드라마와 시각 예술로 표현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함
- 또한, 보호시설 거주자와 친인척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있었음. 이 프로그램은 특수한 상황에 놓인 참여자들에게 18개월 동안 사진을 이용해 보호시설 거주자

들의 삶을 창의적인 기록정보와 이야기로 만들도록 유도했음

-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보호시설 거주자는 “나는 지금껏 아무 것도 성공하지 못한 일흔 한 살이 더 이상 아니다.” 라는 말로 회복된 삶의 주체성을 표현했고, 친인척들은 지금까지 몰랐던 보호시설 거주자 개인의 역사에 대해 알게 되었음
- 보호시설 거주자들의 개인사는 아트 북으로 만들어져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방문객들과 거주자들이 함께 새로운 이야기와 이미지를 채울 수 있도록 남겨졌음

② 영국, 조나단 북부 커뮤니티 대학의 <빨강 노랑 파랑 프로그램>

- 11~16세 사이의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 기반의 예술교육임
- 2005년 예술위원회로부터 약 2억 8천 만원의 복권기금 지원금과 레스터시의 보조금 등으로 지역 내 일반, 특수학교 학생들을 위한 연극 워크숍을 지원함
- 공연장, 학교 및 다양한 공간에서 진행한 워크숍에 1,280명이 참가했고, 1,650명이 시범공연을 관람하였음
- 예술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 예술교육 활동이 아동과 청소년들의 예술적 창의성 개발에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에도 다시 활기를 불어넣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히고 있음

**커뮤니티 아트 위원회 권고문(부분)**

- 현재 예술을 즐기고 경험하는 사람은 인구의 약 5% 정도
- 대중들의 기존 예술에 대한 접근이 어려움. 즉 기존 예술의 배타성 때문이라 생각되며, 그 결과 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갈 권리에서 소외되고 있음
- 커뮤니티 아트는 예술이 일상적인 삶과 관계가 없고 거리가 있다는 생각을 없애, 사회에서 문화의 근본적인 역할을 환기시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술참여의 기회를 제공

③ 영국, 찾아가는 예술단체 <붉은 사다리 극단>

- 1968년 자본주의 체제 변혁을 목표로 사회주의 정치연극을 표방하며 런던에 설립
- 1970년대 중반 이후, 영국 잉글랜드 북동부 요크셔 지역의 리즈로 근거지를 옮겨 이 지역에 기반을 둔 커뮤니티 아트 활동 시작
- 1980년대 대처 정부의 정부 재정 억제 정책의 영향으로 예술위원회의 정치연극 등 진보적 커뮤니티 예술활동에 대한 지원금 삭감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겪음. 그리고 신자유주의 보수적 정책에 따른 사회 전반적인 보수화 경향으로 대중들의 진보적 정치연극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기 시작하자 정치연극을 통한 사회변혁 운동의 입지가 점차 줄어들게 됨
- 1980년대 이후, 지금까지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극단으로 활동 중임
- 영국 예술위원회로부터 매년 약 3~4억 원의 지원금을 받는 붉은 사다리 극단은 예술을 통한 사회통합이라는 영국정부의 정책을 따르고 있음
- 이 극단은 소위 ‘문화적 불모지’에 가까운 낙후된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그 지역의 청소년들과 함께 10대들의 임신과 미혼모, 폭력, 인종차별, 약물복용 등의 문제를

소재로 삼아 연극 작업을 하고 있음

- 영국 정부도 이들 지역의 청소년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듯이 이들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청소년들의 성, 폭력, 약물 등의 문제가 심각함
- 1980년대 중반 이후 이들이 초래하는 문제에 대해 사회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정부 재정 운용에 짐이 되어 왔음. 가령 한 중학생이 임신과 출산에 이르게 된다면 병원비와 양육비 등의 비용이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정부의 복지 예산으로 충당
- 이 학생이 임신과 출산에 이르지 않았더라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사회복지의 다른 부분에 유용하게 예산을 사용할 것임.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문화예술을 통해 10대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것이 현재 영국 정부의 주요한 정책 전략 중의 하나임
- 그러나 꼭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스스로의 문제를 다루면서 해결해 보려는 연극 창조행위 과정은 그 자체로 청소년들에게 협동심, 기획력, 성취감, 시민의식 등을 고양시켜 공동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품성을 갖추게 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음
- 이런 의미에서 영국의 낙후된 지역 공동체를 찾아가는 붉은 사다리 극단의 커뮤니티 아트 활동은 그 자체로 사회적 유용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④ 미국, 커뮤니티 무용가 로데사 존스

- 캘리포니아 주의 예술위원회는 여성재소자에게 춤을 가르치는 무용강좌를 운영하고 있음
- 댄스 강좌를 성공적으로 마친 예술위원회는 후임으로 에어로빅 강사를 모집하였고, 흑인 무용가이자 가수이며 작가이기도 한 로데사 존스가 선정됨
- 존스는 재소자들이 에어로빅을 배우는데 만족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음. 그녀는 그들과 대화를 시작했으며 그들이 생각하고 표현하기를 원했음. 독서와 토론 프로그램을 병행하였고 새로운 자각을 불러일으킴. 이러한 과정을 통해 로데사 존스는 재수감율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었음
- 그녀는 미디어프로젝트를 만들어 출소자들의 사회복귀를 돕거나 공연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 주어진 프로젝트를 잘 수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들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확대해 나감
- 이러한 그의 활동은 내면적인 변화를 이끌어 냈을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 실질적으로 새로운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도록 하였음

#### ⑤ 미국, 커뮤니티 사진예술가 토리 리드

- 덴버의 토리 리드는 대형 통신사 AP의 사진기자였지만 퇴직하고 사진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을 모색함. 그녀는 100년간의 신문을 조사한 끝에 지역에 진짜 필요한 기사들은 거의 없거나 왜곡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지역공동체가 사진을 통해 이

슈를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구상함

- 단 한 번의 충격사건 때문에 갱들이 판치는 우범지대로 낙인찍힌 커티스 공원에 대한 사진 찍기를 통해 세대, 종족, 직업 간에 형성된 편견을 해소하는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지역공동체의 내적 관계를 변모시키는 작업을 지속함
- 그녀의 커뮤니티 사진교실에서는 사진 기술을 거의 다루지 않음. 그녀에게 지역주민은 사진을 찍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메시지를 가진 사람임. 프로젝트는 그러한 메시지를 함께 공유하고 발신할 동료들을 모으는 데서 시작됨
- 사진교실에서 참여자들이 처음 배우는 것은 그들과 목표를 공유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데 필요한 것들임. 다음으로 배우는 것이 목표에 접근하는 방법임
-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것이 원래의 문제의식이자 동기였기 때문에 성취감을 즐기되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줌. 바로 이러한 점이 그가 사진 기술을 가르치지 않으면서 지역 커뮤니티가 수행할 공동의 목표를 찾아가는 예술 프로젝트라 할 것임

#### ⑥ 캐나다 노스우드(The Northwood) 아트 프로그램

- 경제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다양한 인종의 청소년들이 존재하는 캐나다의 베일과 럽브릭의 선더 베이 지역의 10대들을 위한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임
- 선더 베이 지역은 다양한 인종의 젊은이들이 자주 모이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부족함. 경제적 어려움이나 거리감으로 인해 예술을 접할 기회를 거의 가지지 못해왔던 청소년(12세~19세)들에게 예술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
- 일시적인 지역극단을 설립하여 젊은이들의 이슈와 생각을 탐구하고 훈련하기 위한 ‘청소년 드라마 캠프’를 운영함
- 참가 청소년들에게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면서 토론과 워크숍을 통해 스스로의 경험과 문제 등이 반영된 연극제작 및 공연을 시도
- 즉흥 가면극 시연 : 참가자 스스로의 해석으로 전쟁의 비극에 대해 인종차별주의나 정치적인 문제 등을 표현하는 개인적인 독백 혹은 마임
- 3개월 동안의 프로젝트 기간 중 155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민들의 호응으로 커뮤니티 극단이 창립되었고, 드라마 캠프의 프로그램 중 일부가 지역 공교육 커리큘럼에 포함 됨

#### (2) 해외 커뮤니티 아트의 시사점

- 해외 커뮤니티 아트의 특징은 시각예술뿐만 아니라 공연예술에서 특히 많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 그 외에도 다양한 내용과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면이 우리와 다름

-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청소년에 관한 이슈이지만, 이 외에 여성, 주부, 은퇴자,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과 같이 한 사회의 소수자 또는 소외자들을 중심으로 기획되고 있는 점 또한 우리와 많이 다른 점임
- 활동의 형식도 전통적인 공연장에서의 활동에서부터 찾아가는 커뮤니티 아트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음
- 1980년대 중반 이후 영국은 커뮤니티 아트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는 1980년대 보수주의 정책의 결과 양극화 등의 문제점으로 사회안전망이 위협받게 되자,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면서 사회통합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아트의 효용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임
- 영국은 1992년 예술과 공동체의 관계에 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보고서인 ‘예술과 공동체 사회’가 공동체발전재단에 의해 공표됨. 재단은 공동체의 발전으로 이끄는 커뮤니티 아트에 대한 국가의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를 위해 권고문을 발표함

#### 공동체발전재단의 권고문(주요 내용)

- 공동체 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데는 많은 요소들이 있음. 이 요소들 중 예술은 그동안 그 중요성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받아들여 지고 있음. 예술이 공동체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라면, 이것은 소수가 아닌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어야 함
-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창조성을 개발시키며 더불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신감을 심어주는 의미에서 예술활동은 모두에게 열려있어야 함. 커뮤니티 아트는 정책입안자나 재정부담자들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이 커뮤니티 아트 활동은 과소평가 되어 왔음
- 재원부족의 결과는 재능손실, 활동종결로 이어져 공동체의 손실로 나타나고 있음.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커뮤니티 아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가능한 한 모든 부문에서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할당해야 함

### 3) 커뮤니티 아트 진흥의 필요성

#### (1) 참여 예술로서의 효용성

- 다양한 참여주체들의 창의력 고양과 감수성 교육, 그리고 가치 탐구 및 비판적 사고능력의 배양,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 공동체의 창의적 발전을 위해 커뮤니티 아트는 반드시 필요함
- 커뮤니티 아트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창조적인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며, 예술 창작을 통해 이들의 삶의 질을 고양시켜 줌

#### (2) 사회 통합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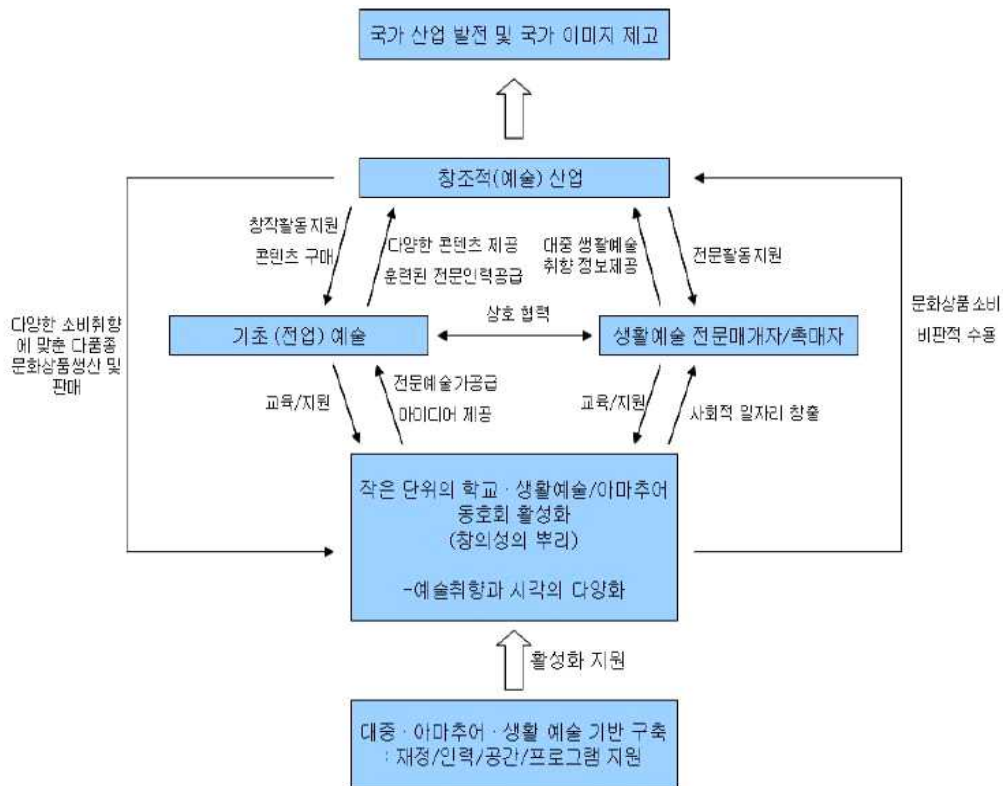
- 신자유주의 보수화 이후 정치연극 등 진보적 커뮤니티 예술운동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진 반면, 예술의 사회적 효용성 측면에서 사회적 낙후지역의 청소년, 소수자,

소외계층 등에 대한 문화적 접근이라는 공동체 이해 중심의 커뮤니티 아트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 됨

- 실업, 낮은 임금, 높은 범죄율, 빈약한 공공서비스, 열악한 주거 및 의료 환경, 가난, 가정 붕괴 등 복합적인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 사회의 낙후된 지역에 대해 예술과 스포츠를 활용하여 생활/교육/의료 환경 개선, 고용증가, 범죄예방 등의 방안을 제시하여 사회적 통합을 모색

### (3) 창조 산업 발전의 원동력

- 영국은 블레어 정부 하의 문화미디어체육부는 창조적 산업을 신경제의 최전방에 배치해 놓고 지식 정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개인의 창의성을 강조하고 있음
- 여기서의 창의성은 문화산업의 개념을 초월하여 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작동함
  - 혁신(innovation), 직관(intuition), 틀을 깨는 사고(out of the box thinking), 규칙 파괴(rule breaking), 기존 방식을 거역하는 반항(rebellion)
- 생활예술과 창조산업의 선순환구조는 다음과 같음



<그림 7> 생활예술과 창조적 산업의 선순환 구조



## Ⅳ. 사업별 발전방안

### 1.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

#### 1) 마을만들기 관련 정책 환경

##### (1) 우리나라 마을만들기 제도의 운영방향

- 마을(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 추진
  - 우리나라 마을만들기 제도를 지금까지의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시혜적 측면에서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하향식 지원방식에서 마을(주민)이 자신의 마을에 대한 마을만들기사업을 창의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마을만들기 제도를 운용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함
- 마을만들기 제도의 다양화
  - 마을만들기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확대되고 상황에서 현재의 단일 이슈 중심의 형태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업 유형에 따라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업유형에 따라 다양한 마을만들기 제도를 운용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함
- 마을만들기 제도의 차별화
  - 마을만들기 제도를 지금까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간 등 자치단체의 위계나 자치단체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운영되어 온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단체 위계간의 역할을 분담토록 하고, 자치단체별 지역정체성이 반영된 마을만들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을만들기 제도를 운용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함

##### (2) 경기도 마을만들기 제도 현황

-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
  - 이러한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최근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 마을만들기 제도적 경향을 살펴보면, 지원계획(행정)과 마을계획(주민의 합의된 마을의 미래상)을 분리·명시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주체로서 주민(거주자+소유자)조직을 강조하고 지원체제도 재정, 조직화, 역량강화, 정보축적 및 네트워크 등으로 다각화되고 있음<sup>14)</sup>

14) <경기마을넷·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 마을만들기전국대회 토론내용 및 마을만들기 전국 네트워크 지역순회간담회(경기지역) 참조, 2013

**<표 42> 경기도 마을만들기 추진방향**

<b>계획</b>	· 마을계획수립 (사업화 및 주민조직 형성과 연계)
<b>추진주체</b>	· 주민조직 육성(동아리활동 지원, 마을대표성 고민), 행정인식 제고 및 행정내부 사업 연계 강화, 동 주민자치센터와의 연계강화, 행정과 민간지원조직의 역할분담
<b>사업</b>	· 공모사업 보조프로그램 강화(상담, 자문, 전문가 파견), 공모사업에 떨어지거나 기준미달시 해당 마을 그룹에 대한 상담·자문 및 주민활동 지원, 사업다각화(복지마을만들기, 마을주민동아리 활성화 지원, 우리동네 마을계획 수립 지원 등), 공모사업선정방식 개선(공모사업 신청조직과 지역주민 공감대 형성 정도에 대한 확인·검토, 상담·자문·심사 최종심의과정의 일관성 확보)
<b>지원</b>	· 사업관리 모델 확충(행정사업단위 1년 지원 한계극복하기 위해 시작-기반구축-안정-성장 등 단계별 설정), 임대료 등 단발성·지출성 경비절감 대책(장소, 기자재 공동관리 등), 행정 사업과 마을계획의 연계를 통한 대형 예산 지원

<b>■ 지원내용</b> 1. 주민 활동 2.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3. 민간단체 및 기관의 네트워크 4. 전문가 파견 및 마을일꾼 발굴·육성 5. 교육·홍보·전파 6. 국내외 견학 등의 행사 7. 사업의 기초조사 및 분석·평가·연구 8. 자원 관리 및 기록 보관소 구축 9. 중앙부처 관련 사업의 유치 및 지원 등	<b>■ 사업내용</b> 1. 주거환경과 공공시설 개선 사업 2. 마을경관과 생태환경의 보전 및 개선 사업 3. 주민의 주거 및 복지증진 사업 4. 마을기업, 마을협동조합 등 마을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사업 5.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 사업 등 지역 특성 사업 등
---	--

## 2) 향후 성남시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성남문화재단의 역할

(1) 전문가와 행정은 지원하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역경영전략’으로서 마을만들기 추진

- 마을만들기의 중심 주체는 주민이며, 행정과 전문가는 후방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마을만들기에 대한 인식전환과 참여주체의 역할 재정립 필요
- 마을만들기 행정은 행정 및 전문가 주도형 마을만들기에 대한 한계와 문제점을 견지하고 주민들의 마을활동에 대한 보조자로서 역할을 다해야 함
- 전문가는 지역특성 및 지자체 행정역량, 주민의 수준 등에 따라 요구되는 역할이 다름을 이해하고, 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 및 역량 함양이 필요함
  - 특히 마을계획 작성(도시계획·건축 관련 법제도 학습), 퍼실리테이트 기술(워크숍 진행), 조직구성 및 운영(회의진행, 회의록작성, 강의, 자료작성 등), 다양한 사례 접촉 및 네트워킹을 통한 직간접 경험 축적 노력 경주 등 마을만들기 전문성을 강화해야 함
  - 문화기획자, 예술가는 ‘마을만들기 코디네이터’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 및

마을공동체에 대한 객관적 분석 및 이해 증진, 주민 일상활동 참여, 문제해결 모색 등에 노력할 뿐만 아니라 마을만들기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습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지역경영주체로서 육성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해야 함

## (2) 마을만들기의 최근 경향에 이해 및 정책보완

- 우리사회 마을만들기는 지역특성을 유지·전승하기 위한 공동체 활동에 대한 행정지원을 모색하는 가운데 선구적 지역리더 혹은 시민활동가에 의해 마을만들기가 도입되었으며, 개인 혹은 특정 목적그룹의 주도로 사업다각화가 모색되어온 경향이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는 지역활동 및 주민조직의 제도적 위상 미약하여 마을만들기 제도화를 통해 역량강화 교육, 저예산 정비사업(지자체 재원, 우선정비사업 실현)하는 지자체 행정의 공모사업에 의한 특정 목적형 마을만들기가 추진되고 있음
- 그러나 개별 공모사업 중심의 마을만들기가 가지는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고 주민 전반의 확산을 강구하는 마을별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도시계획 등 제도권 안에서 적극적으로 실현방안을 강구하는 ‘마을계획’의 수립이 강조되고 있음
  - 수원시 마을계획,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마을의제(안산시 사2동, 부천시 원미1동) 등을 보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마을과제를 발굴하고 계획을 손수 작성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주민의견 수렴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100인 원탁회의 등을 통해 지역주민이 마을만들기의 주체로서 바로 서고 주민조직이 지속가능한 활동을 유도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음
  - 이러한 내용과 방법은 기존 의제발굴대회와는 달리 도시 및 지역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시민참여 프로세스의 하나로 인식되어 시민계획단(서울, 제천, 무주, 수원 등) 등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3)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형성 및 강화

### ① 마을만들기 정책네트워크 참여 및 마을만들기 통합추진체계 구축

- 2013년 성남시 마을만들기 추진전략 등을 살펴보면 성남문화재단의 사업에서 발굴·육성된 지역공동체 등 마을만들기 자원 및 성과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
- 재단은 보다 정책대응력을 강화하여 마을만들기 담당행정과의 협의채널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마을만들기 정책 및 제도설계 과정에 적극적 참여하며 의견을 개진
-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등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지역 차원의 대안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마을만들기 통합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광역지

자체 정책 및 공공지원제도의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함

- ② 마을만들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조성 및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강화
  - 마을만들기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마을만들기 참여주체 간의 비전과 미션을 공유하여 마을만들기 담론 확장 및 정책 발굴,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마을만들기는 종합적이고 삶의 문제에 총체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문화를 비롯하여 복지, 환경, 도시개발,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등 광범위한 지역의제들과 함께, 행정, 전문가, 시민단체, 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과정임
  - 이에 성남지역 현실에 맞는 마을만들기 방식을 창조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와 영역이 수평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다주체간의 협력을 통해 정책개발이 필요함
- ③ 지역단위의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형성
  - 지역문화재단, 산업진흥재단, 청소년재단, 의제21실천협의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마을만들기와 관련한 유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성남시의 각종 사회단체 및 출연기관, 유관단체 등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자생조직이 상호 유기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마을만들기에 대한 비전·인식의 공유 및 정책적 연대가 절실함
  - 성남시는 행정이 주도하고 있는 전문가 중심, 단체 중심의 네트워크에서 벗어나 보다 종합적인 마을만들기 의제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자율적이고 열린 네트워크를 형성·운영할 필요가 있음
- ④ 대외적 마을만들기 네트워크와의 연대·협력
  - 경기마을넷,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 등 광역·전국 단위의 마을만들기 관련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마을만들기에 관련한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정책적 동향, 전국적인 대응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유사업무를 추진하는 실무자들의 소통을 통한 역량강화 모색
  - 마을만들기 실무 공무원 및 담당자의 참여를 독려하여 실무자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함
- ⑤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사업>과 연계한 마을 문화예술공동체 구성 및 운영 방안 마련
  - 시민들의 삶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그것이 토대가 되어 마을별 독특한 문화와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사업과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성할 필요

#### (4) 마을만들기 행정의 인식전환 및 역량강화

- 마을만들기 행정은 직접 사업과 주민조직을 발굴·지원하고 사업실행을 관리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마을공동체의 형성과 마을만들기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각종 행정 지원 및 정보제공의 역할, 통합조정 기능 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① 철저한 지역조사를 통한 마을만들기 비전 모색

- 현행 성남시 행복마을만들기 체계는 민간단위 마을만들기 네트워크가 오랜 기간 형성·작동하고 마을만들기조례 제정, 지원센터 설치, 공모사업 실시 등 마을만들기 제도화를 바탕으로 하는 선진지역의 지자체 마을만들기 시스템을 모방하고 있음
- 한편 성남지역의 고유한 특성 및 대외적 정책동향, 지역의 마을만들기 자원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분석이 빈약하며, 1기 신도시 쇠퇴 및 지역 양극화, 지역공동체 관련 사업의 침체 등 지역의 주요현안과는 다소 동떨어진 부분이 있음

##### ② 지역 마을만들기 사회자본의 적극적 활용

- 지역을 기반으로 존속·활성화되고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 마을거점공간 등과 기 운영되고 있는 지원활동 등 마을만들기 관련 유무형의 지역자산을 유지·관리하고 지원·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사업계획서에 따른 지원이 아닌 오랜 기간 동안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온 지역주체 및 활동을 발굴하기 위해 관련단체와의 협력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 ③ 마을만들기 실무 공무원의 역량 강화

- 부서별·단체별·부문별로 진행되는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의 통합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신속히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교육과 병행하여 현행 공직자 마을만들기 교육프로그램의 개선을 통해 실무 공무원의 인식전환이 중요함
- 순환보직제, 업무과중 등 현행 공무원 대상 지원프로그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단위·광역단위 등 다양한 마을만들기 네트워크에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자기주도 학습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함

##### ④ 참여체계 개선을 위한 마을계획 수립

- 현행 주민참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마을단위에서 장소중심적으로 마을만들기 활동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지역주민 및 다양한 지역사회주체

가 참여하는 마을공동체별 마을계획 및 통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러한 전망과 전략 안에서 지역전문가 및 매개자의 역할이 정립되고 경험과 노하우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표 43> 성남시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성남문화재단의 역할 정리**

구 분	내 용
전문가와 행정은 지원하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역경영전략'으로서 마을만들기 추진	행정가, 기획자, 주민 대상 세부 육성 및 발전전략 수립
마을만들기의 최근 경향에 이해 및 정책보완	공모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한계에 대한 중앙정부 및 타 지역의 대응방안과 추진내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이를 반영한 지속적 개선방안 모색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형성 및 강화	마을만들기 정책네트워크 참여 및 마을만들기 통합추진체계 구축
	마을만들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조성 및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강화
	지역단위의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형성
	대외적 마을만들기 네트워크와의 연대·협력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사업>과 연계한 마을 문화예술공동체 구성 및 운영 방안 마련
마을만들기 행정의 인식전환 및 역량강화	철저한 지역조사를 통한 마을만들기 비전 모색
	지역 마을만들기 사회자본의 적극적 활용
	마을만들기 실무 공무원의 역량 강화
	참여체계 개선을 위한 마을계획 수립

### 3) 마을만들기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성남문화재단의 추진과제

- ‘우리동네사업’은 성남시에서 오랫동안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내재하고 있으며, 대외적 인식에서도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에 성공적인 모범사례로 인용되고 있음
- 그리고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사업’과 더불어 향후 성남지역의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의 내용과 방법을 전국적으로 발신하는 유익한 도시문화컨텐츠이자 관련 공공지원제도를 유치·활용하기 위한 유효한 핵심자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에 행정은 ‘우리동네사업’ 등을 행복마을만들기의 주요사업으로 적극 지원을 강구해야 함

#### (1) 문화를 통한 마을만들기와 성남문화재단 사업과의 차별성 및 바람직한 이해 제고

- 예술가 및 문화단체에 의해 추진되었던 문화예술 매개형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의 모범사례로서 수원시 행궁동, 부산시 감천문화마을, 청주시 수암골, 기타 문전성시

- 프로젝트 등이 이목을 끌고 있지만, 주민의 삶과 공간을 관광문화컨텐츠로 대상화하거나 실제적인 주민의식 함양, 사업기간 종료에 따른 사업중단 등의 한계를 가짐
- 이에 마을만들기 활동가 및 지역주민들은 마을에 들어오는 문화예술가 및 문화적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잔존하고 있음.
  - 그러나 일반적인 지역문화재단의 지역문화예술활성화지원사업 등과 달리 ‘우리동네사업’ 등은 마을공동체의 발굴·형성·활성화, 마을만들기 코디네이터의 발굴·육성 등에 기여하는 도시문화정책이자 ‘문화를 통한 도시·마을활력사업’임을 재조명하고 공론화해야 함.

## (2) 마을만들기 정책네트워크 참여 및 마을만들기 통합추진체계 구축

- 2013년 성남시 마을만들기 추진전략 등을 살펴보면 성남문화재단의 사업에서 발굴·형성된 지역공동체 등의 성과를 활용하고 있음
- 재단 담당부서는 정책대응력을 한층 강화하여 마을만들기 담당행정(주민자치과)과의 협의채널을 형성하고, 마을만들기 정책 및 제도설계 과정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해야 함
- 이를 통해 행정과의 협의 속에서 ‘우리동네사업’에 대한 유의미성을 인지시키고 지역 차원의 대안을 마련해야 함. 한편 마을만들기 통합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광역지자체 정책 및 기타 관련 공공지원제도의 상시적인 모니터링해야 함

## (3) 마을만들기 비전을 공유하는 지역사회주체와의 연대 강화

- 성남문화재단은 그간 성남지역에서 구축해온 동아리 및 네트워크, 지역거점, 인적 자원 등 마을만들기 인프라와 조직 차원의 경험과 성과, 노하우를 마을만들기 유효자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함
- 마을공동체 사회문화적 인프라, 즉 마을만들기 사회자본에 대한 선행적인 경험과 이해, 조사 등이 부족한 성남시 마을만들기 행정 및 다양한 지역사회 주체와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성남문화재단은 장소중심적인 통합적 마을만들기 지원하는 주요 주체로 등장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사업>과 연계한 마을 문화예술공동체 구성 및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시민들의 삶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그것이 토대가 되어 마을별 독특한 문화와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사업과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4)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상호 협력

- 성남지역에서는 의제21, YMCA, 사회적경제센터, 평생학습센터, 일부 문화예술단체 등이 각자의 영역에서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상호 협력과 연대는 부실한 상황임
- 최근에는 민관거버넌스 기구인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가 마을만들기를 의제로 설정하고 성남시 및 경기도지역 광역의제인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와 함께 주민교육(행복마을리더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유치하기도 함

#### (5) 주민 대상 교육프로그램의 개선

- 의제설정을 목적으로 환경보전 예산에 근거하여 활동하는 지역의제21 중심의 주민 교육 커리큘럼, 외부전문가 중심의 주입식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지역현안과 연동되는 창의적인 지역맞춤형 마을만들기 교육프로그램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교육에만 머물거나 소수 기획자가 마을을 대상으로 문화적 실험을 행하여 주민들이 마을만들기에 대한 신뢰감이 저하되는 것을 경계하고, 지역주민들이 작은 것이라도 직접 실천하고 장기적으로 ‘지역경영(마을경영)’을 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경제 및 문화 영역은 단순한 주민요청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된 지역미션과 장기적 전략, 공공성에 기반하여 다각도의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함.

#### (6) 주민들이 직접 만드는 마을계획 및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 마을 단위에서 다양한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전략적 개념으로서 장소중심적인 통합연계가 강조되고 있음
  - 특히 ‘우리동네사업’ 등을 통해 형성되거나 자극을 받은 지역공동체를 마을만들기의 주요한 주체로서 새롭게 등장시키는 노력과 함께, 지역공동체활성화를 위한 핵심적이고 유효한 수단으로 ‘우리동네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
- ‘우리동네사업’의 발전적 도약과 마을만들기와의 통합 연계를 위해서는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개별 단체들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별 계획을 수립하는 주민참여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 이러한 주민들과의 마을만들기 전망공유 속에서 전문가, 매개자,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발견해야 함
  - 특히 마을계획은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를 위한 주체별 참여증진 및 주민역량강화 방안으로서 유효함
- 또한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대외적 네트워크가 형성된 지역의제21 등과 협력하고 향후 운영될 도시재생특별법 등의 공공지원제도(외부전문가 파견, 도시재생코디네이터 육성, 도시재생대학 운영 등)를 적극 활용해야 함.

(7) 성남문화재단의 마을만들기 사회자원의 활용

- 한정된 지방재원의 실태를 감안하여 지원센터의 운영방식 및 역할, 기능을 정립함에 있어 지역문화재단의 유무형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음
- 현재 주민자치과가 주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행정체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향후 설립될 행정협의체 및 지역사회주체와의 긴밀한 협업과 소통이 중요하며, 전문인력의 보강 및 실무자 지원프로그램 등에 관한 공공지원이 필요함

(8) 문화에 대한 역할 확장

- 기존 문화활동 범주에서 벗어나 지역재생을 위한 문화의 역할과 가능성에 대해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가령 지역사 조사 및 구술사 등을 문화적 활동으로 이어나가 지역자산의 창의적 개발과 문화적 활용을 위한 지역자산 인벤토리 구축, 정책수요 및 지역현안과 연동하는 사업으로서 원도심 쇄퇴, 1기 신도시 재생 등 고질적이고 긴급한 지역현안에 대한 문화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음

<표 44> 마을만들기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성남문화재단의 추진과제

연번	추진과제
1	문화를 통한 마을만들기와 성남문화재단 사업과의 차별성 및 바람직한 이해 제고
2	마을만들기 정책네트워크 참여 및 마을만들기 통합추진체계 구축
3	마을만들기 비전을 공유하는 지역사회주체와의 연대 강화
4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상호 협력
5	주민 대상 교육프로그램의 개선
6	주민들이 직접 만드는 마을계획 및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7	성남문화재단의 마을만들기 사회자원의 활용
8	문화에 대한 역할 확장

#### 4) 목표 및 추진과제

##### (1) 목표

###### ○ 주민주도 문화공동체활동을 통한 마을공동체의 성장과 발전

- 지난 7년간 우리동네문화공동체사업은 재단과 예술가의 기획과 행정 중심으로 추진하고 주민이 이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
- 향후 사업추진 방식은 주민이 마을공동체활동을 기획하고, 이를 재단과 행정이 지원하고 마을이 예술가를 초청하는 방식으로 전환, 추진
- 2013년 이러한 지원방식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였고, 성과도 긍정적으로 평가됨. 향후 이를 확대하고자 함
- 1~2단계의 경우, 문화공동체형성이 주된 목적이었음. 그러나 문화공동체에 대한 주민 욕구가 그리 크지 않았고, 형성된 문화공동체가 이후 적극적 마을활동에 주민 참여로 확대되지 못한 문제점이 발생했기에 이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한 상태임
- 즉, 당초 기대했던 마중물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 또한,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와의 연계, 협력도 주민들의 요구가 크지 않아, 긍정적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와 지속적인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사업 예산 역시 대폭 삭감된 현재와 향후 이에 대한 개선, 그리고 현재 논의 중인 성남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추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1~2단계에서 계획한 정책과 사업들을 3단계에서 확대, 강화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현실적이지 못함
- 따라서, 직접적으로 문화공동체를 형성시키고 이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미 조직된 주민조직이 문화공동체활동을 계획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자생적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외부 의견을 수용하고자 함
- 주민 주도의 기획과 활동들이 마을주민과 지역사회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면, 다른 마을의 활동도 이러한 방향으로 변화, 확산될 것으로 기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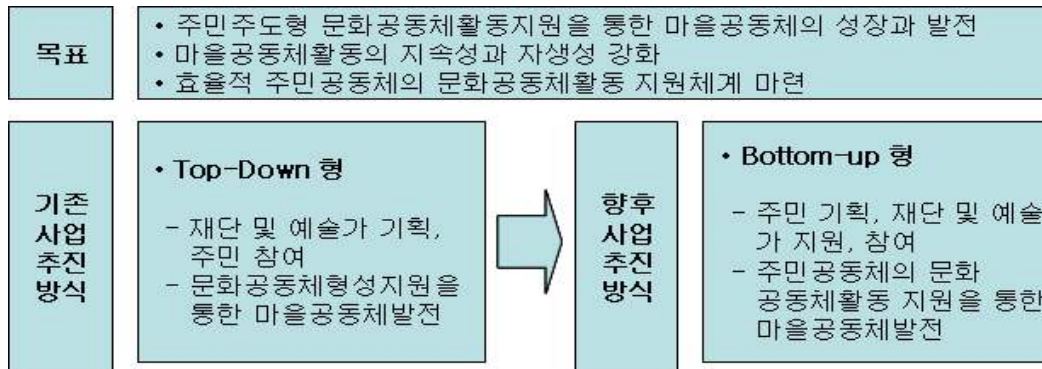
###### ○ 마을공동체활동의 지속성과 자생성 강화

- 지난 7년간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의 문화공동체 육성 지원 정책은 재단의 예산지원이 종료되면 주민 활동도 중단되는 ‘공중전화 현상’<sup>15)</sup>이 발생
- 이러한 폐해를 개선하려면, 재단의 지원사업이 주민의 자발적 문화공동체활동을 지원하되 복지, 교육, 환경과 같은 직접적인 주민 생활과 관계된 영역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활동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문화공동체 지원사업이 평생교육 지원사업, 복지 관련 지원사업 등

15) 돈을 넣어야만 통화가 가능한 공중전화와 같이 예산이 투입될 때만 활동이 일어나고, 예산 지원이 없으면 활동이 중단되는 현상을 일컫음

주민공동체의 타 지원사업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주민조직이 공공기관의 지원사업에만 의존하는 것은 지속성의 안정기반을 구축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궁극적으로는 마을 주민 공동체의 지속적 유지와 발전, 그리고 일부 소수의 주민이 아닌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마을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현재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협동조합 방식의 조직 운영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함
- 육아, 교육, 일자리, 복지, 의료 분야의 마을 협동조합의 형성과 발전 추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육아, 교육, 일자리, 복지, 의료 분야의 마을 협동조합의 형성과 발전 추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정리하면, 균형적인 민관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기대하는 성과들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그림 8>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의 3단계 7개년 추진 목표

## (2) 추진과제

### ○ 마을 주민공동체의 자발적 문화공동체활동 지원

- 2013년 지원사업과 같이 자생적인 주민조직의 문화공동체활동을 중점 지원
-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비, 문화환경개선, 마을축제 등의 사업비 지원
- 사업성과 및 주민역량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을 추진
  - 기본적으로 일몰제 방식으로 지원한 평가, 그리고 주민요구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
- 예술가 참여방식은 주민이 예술가를 ‘초청’ 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지원토록 함
  - 주민이 희망하는 문화공동체활동을 예술가에게 의뢰하고 예술가는 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며, 재단은 주민의 예술가 초청 시 마을과 예술가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수행토록 함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의 지역 네트워크와 연계한 활동도 연계, 강화토록 하며, 사랑방문화클럽축제 또는 사랑방문화클럽 행사에 주민 문화공동체도 참여하는 연계활동을 지원함

○ 사업 참여 주체(주민, 재단, 연계 기관 및 단체) 역량 강화 컨설팅

- 그동안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은 사업 중심으로 추진, 참여주체들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획이 부족했음
- 이를 해소하고자, 주민조직의 사업 수행 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마을만들기 관련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역량 강화를 도모
- 수행과정 외, 성과평가에 대한 조언, 개선점을 통해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사후 컨설팅도 실시함
- 컨설팅의 대상은 사업수행 주체인 주민조직 외, 주민 조직을 지원하는 재단, 성남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예정), 그리고 참여 유관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

○ 지역 내 마을만들기사업 참여 단체 간 네트워크 구성

- 성남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성남의제 21, YMCA, 생활협동조합 등 마을만들기지원체와 협력하여 주민조직이 다양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또한, 현재 논의 중이나 추진이 가시화되지 않는 ‘성남시 마을만들기지원조례’에 대한 제정을 위한 공동노력을 경주함

○ 주민공동체활동의 지속성과 자생성 확보 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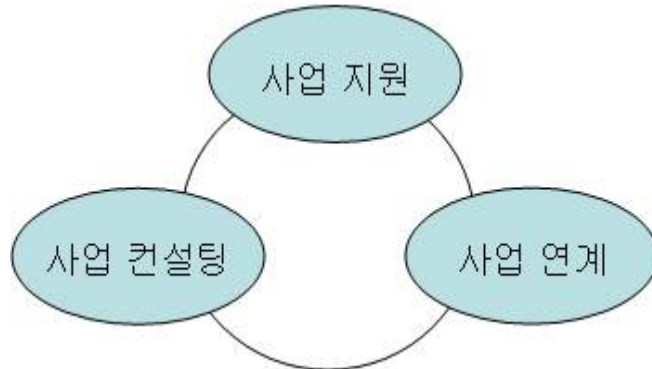
- 재단은 사업 실행 주민조직에게 중앙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여 제공하고, 주민조직이 사업 지원 시 관련 활동을 지원함
- 공공지원사업 외, 활동 지속성과 실질적 주민 요구사항의 충족을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봄
- 이를 위해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 운영 정보 제공과 관련 조직과의 연결, 그리고 사회적 경제 출범 시 선진사례 및 관련 교육을 지원토록 함

<표 45>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 3단계 7개년 추진 과제

연번	추진과제
1	마을 주민공동체의 자발적 문화공동체활동 지원
2	사업 참여 주체(주민, 재단, 연계 기관 및 단체) 역량 강화 컨설팅
3	지역 내 마을만들기사업 참여 단체 간 네트워크 구성
4	주민공동체활동의 지속성과 자생성 확보 방안 마련

## 5) 실행방안

-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 지원영역은 크게 다음과 같이 3개 영역으로 구분함



<그림 9>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지원사업 영역

### (1) 마을 주민공동체의 자발적 문화공동체활동 지원

- 지원 대상 ; 마을단위 주민공동체 조직(아파트/단독주택 2가지 유형 지원)
- 지원 기간 ; 기본 1년, 추가 2년(최대 3년)
- 지원 내용
  - 시범 5개 유형을 아파트/단독주택 2개 유형으로 단순화하여 마을단위 주민공동체의 문화공동체활동 지원
  -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마을축제, 문화공간 리모델링비 등의 사업예산 지원
- 추진 방식
  -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목적, 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제공 및 사업홍보
  - 사업 공모 후 신청서를 제출한 마을에 대한 조사 실시
  -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사업 선정
    - 마을환경, 주민의 참여 의지 및 욕구, 주민조직 결성 여부 및 규모, 리더그룹의 대표성, 지속가능성, 주민자치센터 등과의 연계성 등을 조사
  - 선정사업에 대해 평가를 통해 지속지원여부를 결정
    - 평가는 컨설턴트의 평가를 반영
  - 지원사업은 사업도입기/사업확대기/사업성숙기로 나누어 지원하고 각 단계별 필요 사항에 대해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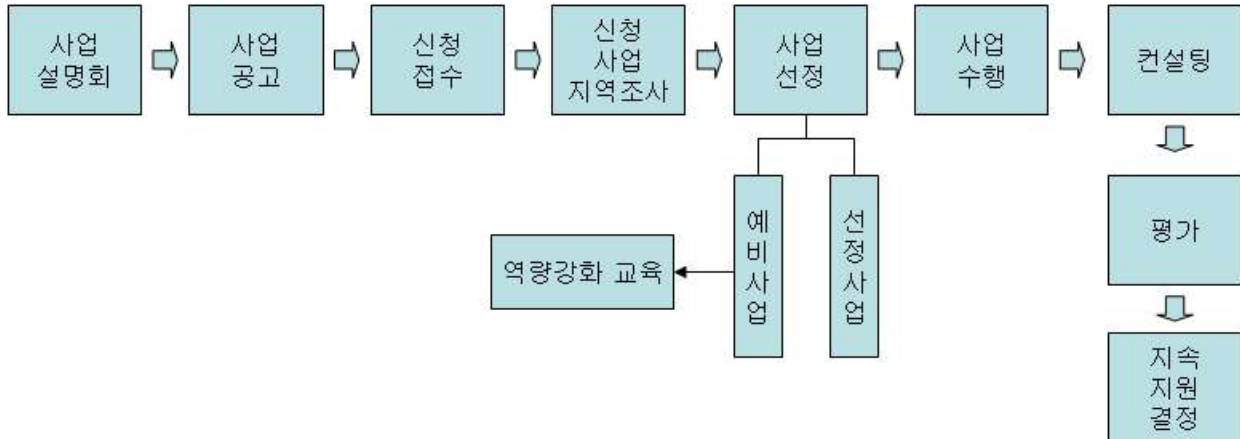
<표 46>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 3단계 7개년 사업지원 방식 및 내용

구분	추진 내용
사업도입기	중점 사업비 지원, 컨설팅 지원, 지원신청액의 최대 80%까지 지원
사업확대기	중점 사업비 지원, 컨설팅 지원, 평가에 따라 지원신청액의 100% 지원
사업성숙기	향후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역량 강화 방안 마련 지원,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사업 중 주민공동체 의지는 높으나 추진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사업은 예비사업으로 선정, 1년간 사전 준비기간을 두고 역량강화를 지원함

<표 47> 예비사업 지원 내용

구분	추진 내용
예비사업	주민공동체 조직의 리더 및 주민 교육(직접 교육 또는 유사기관 연계 교육 실시)



<그림 10>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 3단계 7개년 사업 추진 흐름도

(2) 사업 참여 주체(주민, 재단, 연계 기관 및 단체) 역량 강화 컨설팅

- 사업 대상 ; (예비)사업선정 마을 주민조직, 재단, 연계 기관 및 단체, 주민초청 예술가 등
- 사업 기간 ; 사업 실행 기간(최대 3년)
- 사업 내용
  - 사업선정 마을 주민조직 대상 컨설팅
    - 사업 참여 리더 및 주민 대상 컨설팅 지원
    - 컨설팅 주요 내용은 역량강화와 함께 <마을계획 수립(Master plan)>이 주요 목적
    - 마을만들기사업 전문가를 컨설턴트로 각 사업별로 지정하여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성과 제고방안 및 문제점 개선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
    - 예비사업의 경우, 사업 실행에 필요한 노하우 및 실행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모범 유사 사례 탐방, 마을만들기계획 수립 및 실천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 만약 성남시나 지역 내 연계기관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하면 이와 연계시키도록 함
    - 예비사업 또한, 당해연도 사업 실행 추진과정을 지켜보는 과정을 통해 본 사업 추진 시 겪게 될 문제들에 대해 예방적 조치방안들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컨설턴트는 컨설팅과 함께 사업 평가를 수행하여 사업 지속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재단을 지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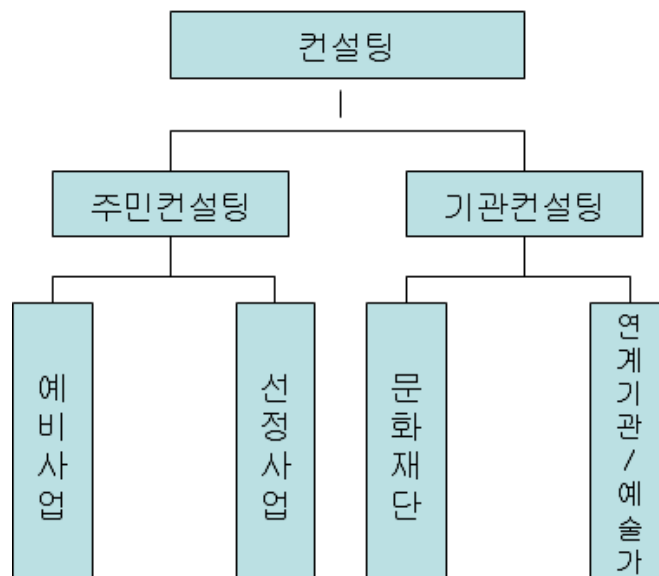
**<표 48> 주민공동체 대상 컨설팅 지원 내용**

구 분	컨 설 팅 내 용
선정사업	사업별 1명 컨설팅 지원, 마을계획(Mastrer plan)수립, 사업 성과 제고, 마을활동가 육성을 위한 컨설팅
예비사업	사업별 1명 컨설팅 지원, 마을계획(Mastrer plan)수립과 사업 추진 계획 및 전략 수립을 위한 컨설팅
평가사업	선정사업 및 예비사업의 성과 평가

- 재단, 연계 기관 및 단체 컨설팅
- 사업 참여 주민 외 지원체인 재단과 협력체인 타 지원기관(성남시, 연계지원기관 등)에 대해 지원사업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각 주체별 컨설팅을 실시
- 예를 들면, 컨설턴트가 담당사업을 1년 동안 지켜보면서 분석한 성과부분, 취약부분 등을 지원체에 제안하고 지원체는 이를 검토, 고려하여 보다 효과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표 49> 재단 및 연계 기관/단체 대상 컨설팅 지원 내용**

구 분	컨 설 팅 내 용
재 단	사업 성과, 취약부분, 지원강화부분, 지속 지원 여부 등 컨설팅
연계기관 및 예술가	연계성과, 취약부분, 역할분담 등 선정사업과의 연계성에 대한 컨설팅



**<그림 11> 컨설팅 지원 영역 및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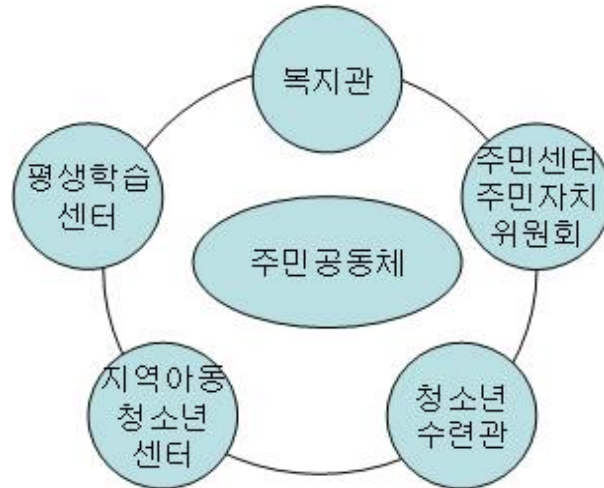
- 마을활동가 육성 컨설팅

- 기존 마을활동가 육성은 강의실 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짐
- 그러나 교육 후 실행 기반이 없어 교육-실행 연계가 미흡했음
- 따라서 향후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의 중간 조직 역할을 담당하는 활동가 육성은 별도 모집-교육이 아닌, 사업 참여 주민 리더 또는 주민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실시
- 이를 통해 주민들은 마을활동가로 활동 할 수 있는 지식과 노하우, 그리고 경험을 현장으로부터 얻을 수 있고, 실제 사업에서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일종의 ‘학습실행조직(Community of Practice)’ 형태로 추진)
- 컨설팅을 통해 3년간 현장에 참여했던 주민공동체 리더 또는 주민은 다음 다른 동네 사업 지원 시 컨설턴트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역량과 경험을 축적토록 함
- 이는 장기적으로는 외부 컨설턴트가 아닌 지역 내 육성 컨설턴트가 사업에 참여하여 보다 지역 특성 기반의 컨설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해 봄
- ※ 기존 사업방식이었던 기획자 및 활동가 지원을 통한 마을사업 추진은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정리함

(3) 지역 내 마을만들기사업 참여 단체 간 네트워크 구성

- 사업 대상 ; 재단, 성남시, 성남의제21,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 협동조합 등
- 사업 기간 ; 사업 실행 기간(최대 3년)
- 사업 내용
  - 우선적으로 지역네트워크 구축과 관련 정보 공유가 필요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구별 네트워크, 장르별 네트워크 등)과 연계 마을축제, 프로그램 참여 지원 등을 연계하고 사랑방클럽축제에 마을공동체 조직이 연계, 참여하는 기획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함
  -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 마을 단체들과의 연계 강화
  - 사업 대상 마을의 주민조직 및 행정조직과의 연계는 마을사업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향후 지속적 활동 전개를 위한 주요 기반이기도 함
  - 마을 내 기관 및 단체들과 협업하여 사업 후원조직 구성과 주민참여 확대, 사업 홍보 등 여러 면에서 중요한 지원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함
  - 사회복지사업, 평생학습, 교육사업과의 연계 강화
  - 복지관, 평생학습지원센터, 지역아동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선정사업 마을의 여러 기관들과 연계, 협력들을 전개, 주민들의 실질적 욕구와 필요요소들이 충족되어 보다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역할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을네트워크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림 12> 마을 연계 네트워크 구성

#### (4) 주민공동체활동의 지속성과 자생성 확보 방안 마련

##### ○ 사업 내용

- 주민공동체활동이 지속적으로 자생성 기반을 가지고 유지, 발전하려면 공공기관의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것은 지난 1~2단계 추진과정에 얻은 시사점이기도 함
- 사업 추진 마을 내 기업, 상점, 후원회 등을 통해 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는 있으나 이 역시 장기적 사업 추진을 위한 핵심 기반이 되지는 못함
- 결국 주민이 참여하고 운영하는 사회적 경제가 기반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봄
  - 최근 확대 추세에 있는 주민협동조합은 이러한 문제를 반영한다고 보며, 주민 스스로의 역할분담과 자구책 없이는 그동안 겪었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없다고 봄
- 육아, 교육, 주거, 생활 등 여러 부분에 다양한 주민 조합활동을 통해 기대하는 마을만들기사업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조합활동은 주요 리더의 부재문제를 주민 모두가 공동으로 대처하고 또한 새로운 리더들을 계속 발굴,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아울러, 주민 결속력을 높이고, 사업에 대한 주인의식도 높여, 지속가능한 자생적 주민활동과 마을만들기사업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함
- 따라서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 참여 주민공동체는 사업 2기 ‘확대기’부터 컨설팅과 지역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아 조합활동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도록 지원함
- 조합형 마을활동으로 전환 이전과 후에도 재단과 지역 마을만들기지원네트워크는 공공지원사업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공유하고, 선정 가능성이 높은 마을조직에 정보를 제공, 공공지원이 계속 이루지고 이를 통해 활동이 확산, 발전

할 수 있게 간접적으로 지원함

## 6) 연도별 추진계획

<표 50>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 3단계 7개년 추진 계획

연 도	추진 사업	비 고
2014	주민공동체 문화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3개	- 지역 협력네트워크 구축 추진
2015	주민공동체문화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2개, 예비사업 1개	- 지역 협력네트워크 구축 - 컨설팅사업 추진
2016	주민공동체문화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3개, 예비사업 1개	- 지역 협력네트워크 연계활동 - 컨설팅사업 추진
2017	주민공동체문화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3개, 예비사업 1개	- 지역 협력네트워크 연계활동 - 컨설팅사업 추진 - 1차 3년지원사업 종료
2018	주민공동체문화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3개, 예비사업 1개	조합형 마을조직 1개 조직
2019	주민공동체문화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3개, 예비사업 1개	조합형 마을조직 2개 조직
2020	주민공동체문화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3개, 예비사업 1개	조합형 마을조직 3개 조직

## 7)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과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과의 구분

- 위와 같은 추진방식, 지원내용 등을 통해 그동안 제기되었던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과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고유사업 영역과 내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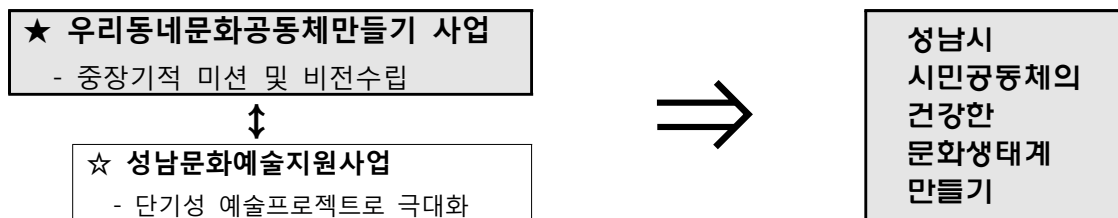
<표 51>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과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과의 구분

지원대상	주민조직	예술가 및 단체
예술가의 접근방식	예술가 초청형 (마을이 예술가를 초청함)	예술가 기획형 (예술가가 마을로 들어감)
사업 성격	마을공동체지원사업	커뮤니티아트지원사업
지원 목적	공동체육성, 발전	예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
지원 기간	중기지원	단기지원
지원 영역	주민공동체활동지원	커뮤니티아트 창작지원
기대 성과	마을공동체활동의 활성화 및 확산	커뮤니티아트 작가 및 단체의 역량 제고

- 2006년부터 성남문화재단이 성남시 출연금으로 추진해 온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은 중장기적 미션 수립을 통해 지역공동체 전체의 변화를 모색하는 사업으로 진행해야 함
- 위에서 살폈듯이 국내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의 최근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역공동

체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계는 그것이 단기성 프로젝트에 그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임

- 국내와 해외 사례가 크게 갈라지는 지점은 국내는 단기 프로젝트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며, 해외는 중장기적 프로젝트로 이어졌다는 점임. 그러므로 성남문화재단의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은 보다 긴 안목을 갖고 연차적/단계적 플랜수립과 실천을 제시해야 할 것임
- 반면,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우리동네예술 프로젝트>는 다양한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의 단기적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임. 물론 이 또한 지속적인 비전을 갖지 못한다면 실패할 확률이 큰 만큼, 프로젝트 공모사업의 장소성이나 참여주체들의 특이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프로젝트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임



<그림 13>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과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연계성

## 2.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 1) 커뮤니티 아트의 개념과 배경,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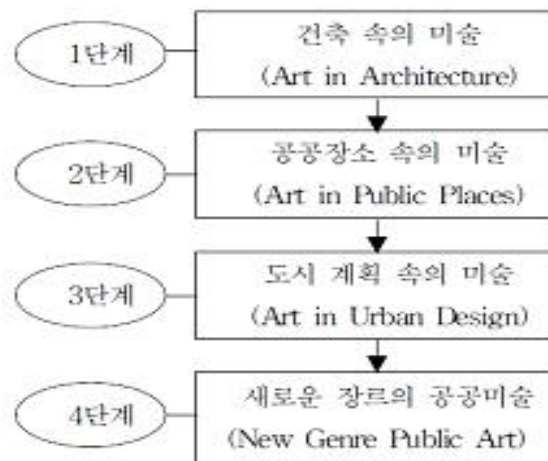
- 커뮤니티 아트(Community Art)는 공동체 예술로 불리며, 동네미술이나 지역사회 예술운동, 새 장르 공공미술로도 불림
- 특히 21세기 한국미술에서의 커뮤니티 아트는 전통 연희와 광대론, 두레정신에서 미술운동의 정신을 찾았던 1980년대 미술동인 두령과 광주자유미술인협의회, 그리고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된 새 장르 공공미술에서 근거를 찾기도 함
- 박삼철은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는 자족적이고 실천적인 공동체 운동을 미학화 한다” 고 주장
- 근대 산업화 이전의 농업 중심이었던 한국사회에서 노동을 함께 나누려고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공동노동의 풍습인 ‘두레’의 정신도 녹아 있음. 두레에 의한 공동노동은 모내기, 물대기, 김매기, 벼베기, 타작 등 경작의 전 과정에 걸쳐 있으며, 특히 일시적으로 많은 품이 요구되는 모내기와 김매기에는 거의 두레가 동원되었음

- 산업화 이후 두레 공동체 문화의 정신을 계승하려는 1970~80년대 문화예술운동으로 농민, 노동자 중심의 생활예술집단 ‘두레패’가 등장함. 이들은 현장 중심의 문화운동을 생활화하고 생활양식으로 일상화 하는데 초점을 둠
- 영국예술평의회 회장이었던 케네스 로빈슨(Keneth Robinson, 1911-1996)은 “커뮤니티 아트는 기능에 의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활동의 기본자세와 지역사회와의 관련성 속에서 규정”된다고 주장

#### 영국예술위원회 커뮤니티아트 지원프로그램(2004~2006)

- 문화프로그램 : 문화와 예술이 그 지역을 다시 활성화시키면서, 지역의 삶에 중심역할을 하는 축제, 행사, 전시회 등
- 문화다양성프로그램 및 공동체프로그램
  - 청년층과 공동체 그룹들을 위한 기회제공 프로그램
  - 창조적 배움과 발전 ; 개인과 공동체에게 새로운 기회제공 프로그램
  - 국제협력 ; 지역의 문화적 특징을 유럽에 소개하는 프로그램
  - 환경보존과 유지 등 공공이익을 지니는 문화프로그램 등

- 새 장르 공공미술에 이르는 공공미술의 변천과정은 아래와 같음



<그림 14> 공공미술 개념 변천과정

- 새 장르 공공미술을 주장했던 수잔 레이는 새 장르 공공미술이 기존의 공공미술과 차별화 되는 이유는 대중 참여적 특성과 더불어 새 장르 공공미술이 폭넓고 다양한 관객과 함께 그들의 삶과 직접 관계가 있는 쟁점에 관하여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전통적 또는 비전통적인 매체를 사용한다고 말함
- 새 장르 공공미술은 기존의 공공미술과 달리 커뮤니티 아트의 개념을 탄생시킨 매

우 주요한 기폭제가 됨

- 커뮤니티 아트는 문화엘리트주의를 거부하고 민주적 국가의 개인과 집단이 정치적 자유를 누리듯이 문화적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인식을 토대로 1960년대 후반 서구에서 출발함
- 대체로 이와 같은 주장은 ‘68혁명’ 이후 서구에서 활발하게 전개된 문화예술운동의 영향에서 근거를 찾고 있음. 즉, 기존의 문화엘리트주의에 기초한 예술인식을 거부하고 문화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면서 보다 많은 대중이 예술 창작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운동이기 때문임

#### 문화엘리트주의(Cultural Elitism)

- 소수의 엘리트들에 의해서 예술이 창조되고 이끌어져 간다고 보는 시각
- 예술창조 능력의 소수 창조자들이 창조능력이 결핍된 다수의 수용자들에게 예술의 내용과 형식을 제공해준다는 의미
- 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소수 엘리트와 예술기관들에 대한 국가지원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주장

- 문화민주주의에 근간을 둔 커뮤니티 아트는 1990년대 정부의 문화정책이 생산자에서 향유자 중심으로 기조를 변경한 이후인 2000년대에 접어들어 국내에서 관심이 본격화 됨

#### 문화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

- 문화민주주의는 오페라, 발레, 교향악, 연극과 같은 고급예술의 대중화를 주창하는 전통적 이념과 대비되는 개념임
- 고급예술의 대중화 정책이 다수 대중이 그들의 문화를 스스로 창조해 나갈 권리를 제한하거나 혹은 방해한다고 보고, 대중들이 스스로의 문화를 창조해 나갈 권리를 주장
- 대중에게 예술참여 기회의 균등성, 문화생산 수단에서의 동등한 접근을 강조함
- 문화민주주의의 4가지 기조
  - 대중들을 공동체의 문화적 삶에 적극적인 참여 권장
  - 대중들을 그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정책 결정에 참여 권장
  - 사회구성원들의 문화적 권리 및 문화적 다양성 보호/증진
  - 문화재원과 지원에 공평하고 균등한 접근 권장

- 대중의 예술창작 참여를 강조하는 커뮤니티 아트는 참여예술로서의 효용성뿐만 아니라 창조적 산업 발전을 이끄는 경제적 효용성, 그리고 사회통합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도 함
- 그동안 문화예술이 문화 향유권의 확대와 문화영역에서의 시민권적인 인간의 기본 권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전되면서 커뮤니티 아트의 기존 개념과 더불어 그 영

역을 넓혀가고 공동체 혹은 다양한 사회적 계층의 이해와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로서 그 필요성을 인식하게 됨

- 세계인권선언, 유네스코 국제협약,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문화기본권
  - 세계인권선언 : 제27조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유네스코 국제협약 :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제15조 “문화적 권리는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과학적 진보와 그 적용에 따른 혜택을 누리며, 자신이 만든 그 어떤 과학, 문학예술 상품으로 정신적, 물질적 이득을 누릴 자유가 있음을 인식한다.”
  - 우리나라헌법 : 제11조 1항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2)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의 추진 방향

### (1)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과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의 차별화

- 2006년부터 성남문화재단이 성남시 출연금으로 추진해 온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은 중장기적 미션 수립을 통해 지역공동체 전체의 변화를 모색하는 사업으로 진행해야 함
- 위에서 살폈듯이 국내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의 최근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역공동체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계는 그것이 단기성 프로젝트에 그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임
- 국내와 해외 사례가 크게 갈라지는 지점은 국내는 단기 프로젝트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며, 해외는 중장기적 프로젝트로 이어졌다는 점임. 그러므로 성남문화재단의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은 보다 긴 안목을 갖고 연차적/단계적 플랜수립과 실천을 제시해야 할 것임
- 반면,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의 매칭사업인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은 다양한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의 단기적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임
- 물론 이 또한 지속적인 비전을 갖지 못한다면 실패할 확률이 큰 만큼, 프로젝트 공모사업의 장소성이나 참여주체들의 특이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프로젝트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임

## (2) 예술주체와 참여주체의 동거 전략 수립

- 큰 비전과 미션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예술주체의 삶이 참여주체와 만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함. 최소 3년에서 5년까지 입주 가능한 거주형 레지던시와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즉, 지역에 기반 한 예술 활동이 펼쳐질 수 있도록 지역의 문화적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함. 성남시의 지역공동체 전반을 변화시키려는 중장기적 전략은 그러므로 얼마나 많은 예술가들이 성남시 곳곳에 등지를 틀 수 있는가가 하나의 관건이 될 수 있음
- 그러기 위해서는 영국의 사례에서처럼 ‘커뮤니티 아트 선언문’과 같은 지역공동체 예술전략을 운동의 차원에서 준비하여야 함. 보다 더 많은 시민이 문화와 예술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민주주의 이념과 그것에 기반한 선언이 필요함

## (3) 커뮤니티 아티스트의 전략적 육성

- 지원사업의 핵심에는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 기획자가 있음. 그러나 매년 기획자의 성과는 언제나 지역 밖의 전문가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문제로 대두됨. 중장기 플랜을 수립하면서 지역 커뮤니티 아티스트 육성 전략도 수립해야 함
- 성남시 내 예술인 및 기획자, 젊은 비평가들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 아트 기획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와 같은 전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최고의 커뮤니티 아트 기획자, 작가들과의 워크숍과 사례분석, 지역조사/연구, 새로운 기획의 상상력 개발 등을 교과 구성으로 개발한다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임

## 3)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의 추진 목표

- 커뮤니티 아트의 발전양상, 그리고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의 추진방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 목표를 설정함

**공공영역으로서의 커뮤니티 아트 지원과 육성**

-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과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은 커뮤니티 아트의 발전사와 같이 1~2단계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미술(Art in the Public Place)’과 ‘공공공

간으로서의 미술(Art as the Public Space)’ 을 실행함

- 시장, 동네에서 벽화나 주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지원
- 최근 몇 년간은 작가, 기획자들이 시장, 상가, 마을 등의 공공장소에서 지역 주민 공동체와 지역의 주요 이슈에 대한 문제 해결과 개선을 위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시작함
- 쇠퇴하는 상권의 활성화, 이주민 문제 등과 관련해 작가, 기획자가 주민과 함께 예술과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들이 기획, 추진됨
- 이를 위해 성남시 상권활성화 재단, 한국다문화가족연구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한 활동을 지원해 옴
- 이러한 최근 추세를 반영하고, 커뮤니티 아트에 대한 최근 담론들을 반영하여 예술이 공공영역에 보다 밀접히 연계되고, 또한 지원사업의 공공성 가치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

#### 4) 추진과제

##### (1) 커뮤니티 아트 중점 지원

- 그동안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과의 사업 중복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 고유의 특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은 성남지역의 커뮤니티 아트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성격을 정리함
- 성남 구도심 문화예술 활성화 중점 연계 지원
  - 성남 구도심은 공연장이나 갤러리 등의 문화예술 공간이 부족으로 구도심 주민은 문화 혜택의 기회가 부족
  - 분당은 성남아트센터가 기능을 다하고 있지만, 구도심 유일 복합 문화예술 공간인 성남시민회관은 역할이 미미함
  - 성남시민회관을 문화예술인 활동의 장 마련으로 문화예술인의 지역 활동 의지를 다지도록 함
  - 구도심과 분당의 문화예술 환경의 균형을 맞추어 문화예술창조 도시에 부응하는 사업 추진
  - 원도심의 커뮤니티 아트 창작 공간 및 주민 활동공간으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2) 커뮤니티 아트 참여 단체와 예술가 발굴 및 육성

- 1~2단계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는 성남지역 내 커뮤니티 아트를 수행할 단체



나 예술가가 한정적인 점이었음

- 지원대상을 지역 기반 단체나 예술가로만 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장기적으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와 예술가들이 성장,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이를 위해, 기존 커뮤니티 아트 참여 단체와 작가들에 대한 지원과 함께, 새로운 단체와 예술가를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활동 공간, 현장 실행과 연계된 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등의 다양한 지원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의 주체는 크게 예술가(단체), 기획자, 주민들로 구성되는 프로젝트를 지원함
  - 예술가와 기획자가 기획하고 주민들과 함께 작업, 활동하는 사업을 지원
  - 예술가와 기획자의 역할을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 예술가는 예술적 역량에 집중하고, 기획자는 매개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

#### (3) 커뮤니티 아트 참여 단체 및 예술가 역량 강화

- 2011년부터 추진한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은 상생협력지원을 통해 단체가 신규 단체와 현장에서 협업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옴
-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 실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부터는 컨설팅을 지원하는 심사관참여지원제도와 문화기획인력 양성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기획력과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장치들을 기획, 추진하고 있음
- 향후 이를 지속적으로 실행, 보완하여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4) 커뮤니티 아트 지원체계의 안정화 모델 구축

-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한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은 지난 3년간 다양한 지원모델을 시범적으로 운영함
  - 일반/기획지원, 상생협력사업, 생활예술창작지원사업, 심사관참여지원제도, 문화기획자학교, 모니터링사업 등을 추진함
- 그동안 추진한 사업들의 성과를 평가를 통해 향후에는 사업 지원 영역과 방식 등의 안정된 지원모델 수립이 필요함
- 아울러, 프로젝트 추진 성과, 보다 많은 관련 주체들의 참여, 그리고 사업 추진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권활성화 재단, 주민자치위원회, 상인회 등과의 협력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해 나감

<표 52>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추진 방향, 목표 및 과제

구 분	주 요 내 용
방 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고유 영역 및 성격 정립</li> <li>- 예술주체와 참여주체의 동거 전략 수립</li> <li>- 커뮤니티 아티스트의 전략적 육성</li> </ul>
목 표	공공영역으로서의 커뮤니티 아트 지원과 육성
과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커뮤니티 아트 지원 중점 지원</li> <li>- 커뮤니티 아트 참여 단체와 예술가 발굴 및 육성</li> <li>- 커뮤니티 아트 참여 단체와 예술가 역량 강화</li> <li>- 커뮤니티 아트 지원체계의 안정화 모델 구축</li> </ul>

## 5) 실행 방안

### (1) 기획지원사업의 지원방식의 안정화 모델 구축

- 현재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은 1. 일반지원사업 2. 상생협력지원사업 3. 생활예술창작지원사업 3. 문화기획인력양성사업으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음
- 일반지원사업은 경기문화재단의 지침에 따라 추진되기 때문에 이는 준수사항임
  - 일반지원사업도 커뮤니티 아트 지원을 목적으로 함. 기획지원사업과의 지원방식, 지원영역 등의 차별화가 필요함
  - 일반지원사업은 ‘소액 다건’ 지원방식을 선택, 추진함
- 기획지원사업은 성남문화재단의 기획력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역 특성과 재단의 지향 목적에 따라 기획이 가능함. 이를 향후 강화,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음
  - 기획지원사업은 현재와 같이 ‘선택과 집중’ 지원전략을 선택, 추진함
  - 또한, 신규 단체 발굴 및 육성과 참여 단체 역량 강화 영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표 53> 일반지원사업과 기획지원사업의 지원방식 구분

구 분	지 원 영 역	지 원 방 식
일반지원사업	사업 지원	소액 다건, 단기지원
기획지원사업	사업 지원, 육성 및 발굴, 역량강화	선택과 집중, 중기지원

### (2) 상생협력지원사업

- 상생협력지원사업의 목적은 사업 추진 단체가 신규 단체와 현장 협업을 통해 신규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임

- 신규 단체의 경우, 사업지원 시 활동 경력이 없어 지원 신청에서 불리한 점이 있음. 이는 신규 단체에게 진입장벽이 될 수 있음
- 주관단체는 실제 사업 실행과 함께 협력단체에게 현장에서 필요한 노하우 및 경험을 전수하여, 신규 단체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등 2가지 역할을 담당함
- 상생협력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 초기 신규 단체 선정 및 협업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으나 사업 추진 2년차인 2013년 사업에서 긍정적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함
- 향후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사업 추진 방식과 내용이 안정화되고 지역사회 내에서 널리 인지될 수 있도록 함
- 2016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되, 매년 상생협력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2016년 그동안의 성과를 검토하여 지속 추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 (3) 심사관참여지원제도

- 2013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심사관참여지원제도는 사업 참여 단체의 역량을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기획된 사업임
- 심사관은 사업 선정 심사를 담당할 뿐 만 아니라, 선정한 단체가 계획한 바와 같이 사업을 수행하고, 기대했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함
- 심사관은 선정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에 나가 사업내용을 참관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단체에게 실시함
- 2013년의 경우, 단체와 심사관 모두 이 제도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 평가를 함
- 향후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확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4) 모니터링사업

- 모니터링사업은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단순 모니터링이 아닌 지역문화활동가 육성을 목표로 추진해 오고 있음
- 모니터링사업은 크게 모니터링과 모니터 요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진행됨
- 모니터링은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 그리고 모니터 요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해 진행됨
- 실제, 지난 2년간 모니터링사업을 보면, 모니터링에 참여한 시민들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었음
- 2012년 모니터링 참여 시민이 2013년 사업에 지원, 선정된 모범적 사례가 있었음
- 따라서, 지금의 모니터링사업 체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다 많은 지역활동가와 기획자가 육성되어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시스템을 지속, 발전시켜 안정적 모델로 구축함

#### (5) 문화기획 아카데미 사업

- 2013년 시범적으로 추진한 ‘문화기획인력양성지원사업’을 향후 정식 사업으로 추진
  - 2013년 추진한 ‘생활예술창작지원’ 사업은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과의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하고 커뮤니티 아트 중심 사업 추진이 필요함
- 1단계 : 문화기획인력 육성 프로그램 확산(2014~2016)
  - 문화기획아카데미를 통한 커뮤니티 아티스트 기획자 전문적 육성
  - 문화기획아카데미(가칭)를 통한 ‘우리 동네 아트’의 고밀도 향유프로그램 운영
  - 우리동네커뮤니티센터(가칭)의 실무진 참여
  - 커뮤니티 워크숍, 사례분석, 지역조사/연구, 새로운 기획의 상상력 개발 등 참여
- 2단계 : “나도 우리 동네 아티스트” 프로그램 기획(2017~2018)
  - 거주형 커뮤니티 아티스트들을 위한 ‘우리 동네 서포터즈’ 기획
  - ‘우리 동네 서포터즈’를 위한 예술창의교육 프로그램 개발
  - ‘우리 동네 서포터즈’에서 ‘나도 우리 동네 아티스트’로 점진적 전환
  - 커뮤니티 아티스트들과 친밀한 협업관계 구축
- 3단계 : “우리 동네 아티스트” 안정화(2018~2020)
  - 우리동네커뮤니티센터(가칭)을 통한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의 안정화
  - ‘우리 동네 아티스트들의 ‘우리 동네 아트 페스티벌’ 개최
  - 거주형 커뮤니티 아티스트들과 새로운 문화공동체의 미션 제시

#### (6) 커뮤니티 아트 레지던스 프로그램

- 성남시의 커뮤니티 아트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레지던스 공간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며 아울러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한 추진이 필요
  - 커뮤니티 아티스트의 안정된 활동과 주민 참여를 위해서는 전용 공간의 확보가 필요함
  - 또한, 커뮤니티 아트 작가 및 단체 육성을 위해서도 프로그램 및 교류 공간 마련이 필요함
  - 현재 상대원 하이테크노 벨리의 아파트형 입주 공단의 경우, 성남시와 입주 기업의 레지던스 공간 운영에 대한 논의들이 시작되는 단계로 이에 대한 추진을 재단이 리더십을 가지고 담당할 필요가 있음
  - 공간 확보 및 리모델링 등은 성남시, 문화부 추진 예정인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지원사업 등과 연계한 전략마련이 필요함

- 아울러, 성남시 생활예술활성화를 위한 거점 공간 운영 전략과 연계 추진할 필요도 있음
- 1단계 : 거주형 레지던시 시범실시(2016 ~ 2017)
  - 우리동네커뮤니티센터(가칭)가 개관 가능한 지역 우선 고려
  - 2년 기한의 거주형 레지던시 작가 선정 및 지원
  - 입주 기간 중 예술창작 및 커뮤니티프로젝트 수행과제 협업
  - 1단계에서는 시범프로젝트로서 성남 내 몇 개의 점선으로 네트워크 구성
  - 각 거주 작가별 수행성 프로젝트에 대한 기록/아카이브/관계 등 동시진행
- 2단계 : 거주형 레지던시의 확장(2018 ~ 2019)
  - 몇 개 지역의 단위모델을 ‘창작마을’ 개념으로 확장
  - 우리동네커뮤니티센터(가칭)과 창작마을을 하나의 전략으로 구축
  - 문화예술인/문화예술단체의 거주형 레지던시 참여 확산
  - 커뮤니티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 기획
  - 3년~5년 이상 입주 가능한 예술가들로 레지던시 기한 연장
- 3단계 : ‘우리동네’의 ‘예술창작촌’ 만들기(2020)
  - 장기 입주 작가들을 중심으로 한 ‘예술창작촌’ 만들기 제시
  - 우리동네커뮤니티센터(가칭)를 통한 ‘또랑광대(거주형 예술가)’ 프로그램의 상시화
  - 지역주민들의 자치에 의한 문화예술 기획

## 6) 연도별 추진 계획

<표 54>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3단계 7개년 연도별 추진 계획

연 도	추진 사업	비 고
2014	일반/기획사업(상생협력)/모니터링/문화기획아카데미 추진	시범 사업 단계
2015	일반/기획사업(상생협력)/모니터링/문화기획아카데미 추진	모델안정화 단계
2016	일반/기획사업(상생협력)/모니터링/문화기획아카데미 추진 레지던스 시범 사업 추진	사업모델 평가/개선
2017	일반/기획사업(상생협력)/모니터링/문화기획아카데미 추진 레지던스 시범 추진	
2018	일반/기획사업(상생협력)/모니터링/문화기획아카데미 추진 레지던스 확장	
2019	일반/기획사업(상생협력)/모니터링/문화기획아카데미 추진 레지던스 확장	
2020	일반/기획사업(상생협력)/모니터링/문화기획아카데미 추진 예술창작촌 추진	

## 『참고문헌』

- 강수미, 「공동체를 위한 예술과 공공미술」, 현대미술학 논문집, 2008
- 경기도미술관 기획전 도록, 『동네미술』, 2012
- 경기문화재단, 「커뮤니티와 아트」, 2011
- 공주형, 「커뮤니티 아트를 통한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재생의 실천」, 2012
- 국토연구원, 「진안군, “마을만들기 10년의 경험과 시스템”」, 2011
- 「마을만들기 제도의 운영특성 및 향후 운영방향」, 국토연구원 내부자료 참조, 2012
- 김동규, 「새장르 공공미술의 정치철학: 공론장 개념을 중심으로」, 사회와 철학 연구회 논문집, 2013
- 김준기, 「홍보람의 ‘마음의 지도’와 커뮤니티 아트」, 내일을 여는 역사, 2012년 가을호(통권 제48호)
- 김혜진, 「2000년대 이후 한국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유형」,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집(제10권 제8호), 2010
- 노수정, 「커뮤니티 아트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논문, 2009
- 류태희, 「마을만들기 이슈페이퍼 : 중앙정부의 마을만들기 정책동향-1」,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  
크, 2013
- 「전환기의 마을만들기, 결핍은 네트워크로 메운다」, 수원시 한일 마을만들기 정책발표 및  
토론회, 2013
- 「민관학 연계의 도시 및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 UDC」 / 월간국토, 국토연구원, 2013
- 박미연, 「실천’으로서의 예술: 민중미술 이후, 한국 커뮤니티 아트의 ‘상황」, 예술경영연구 제27집, 2013
- 서울시, 「마을공동체 시민토론회 : 서울시 마을공동체의 비전 및 방향설정」, 2012
- 성남문화재단, 「성남문화재단 생활예술정책 성과평가 연구」, 2013
- 손은하, 「로컬리티&커뮤니티 아트」, 월간 미술세계, 1997년 6월호
- 송지선, 「대안적 마을 공동체에 있어서 축제의 의미와 기능」,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수잔 레이시/김인규,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지형그리기」, 이영욱 옮김, 문화과학사, 2010
- 이근호, 「시민을 주인되게 하는 마을만들기\_마을르네상스」, 국토연구원 발표자료, 2012
- 이왕건, 류태희 외, 「커뮤니티재생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제도의 통합적 운용방안 연구」, 국토연  
구원, 2012
- 이호상, 이명아,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도시재생 전략에 관한 사례연구-부산 감천문화마을과 나옴시마 사례  
를 중심으로」, 한국과학예술포럼, 2012
- 전병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커뮤니티 아트 진흥 방안 연구」, 2007
- 홍지석, 「노무현 정부와 공공미술」, 내일을 여는 역사, 2012년 봄호(통권 제46호)
- 佐藤滋(1999), 『まちづくりの科学』, 鹿島出版会
- 공주시 디지털공주문화대전(<http://gongju.grandculture.net>)
- 임동식이 작성한 <예술과 마을>의 선언문
- 중부일보, 2000년 7월 27일자 기사,
- 『1998 국제자연미술전-마을과 예술, 예술과 마을』 (한국자연미술가협회 야투, 1998)과 『예술과 마을』 (예  
술과 마을 운영위원회, 2001·2003)



**성남문화재단**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창조도시’ 3단계 7개년(2014~2020)  
문화공동체사업 발전방안 연구

---

발 행 인 : 신 선 희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편 집 인 : 하 동 근 (성남문화재단 문화진흥국장)

발 행 처 : 성남문화재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808 성남아트센터

[www.snart.or.kr](http://www.snart.or.kr)

인 쇄 처 : 진흥문화(주)

발 행 일 : 2013. 12. 13

---

© 성남문화재단